M5S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SEP 1 5 1981

The Korea Times Toronto

(일간) No. 599 1981년8월22일(토)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Saturday, August 22, 1981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The Korea Times of Toronto (or Hankookilbo)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 Holidays. Subscription fee $90. per year $8. per month
ISSN 0319 2962
구독료 : 연 $90, 월 $8.00
SECOND CLASS MAIL No. 5248

한국여자테니스 세계로

이덕희, 캐나다오픈 16강

세계 9위 루치시도 꺾어

◇나바로틸로바와의 대전후 코트에서 포즈를 취하는 이덕희 선수.

한국의 유일한 프로·테니스선수 이덕희(28)양이 퇴장하기 시작하자 천여명 관중은 모두 일어나서 이양이 코트를 완전히 떠날때까지 박수를 계속했다.

이선수가 밖으로 나오자 많은 팬들이「덕희！덕희！」소리치며 이양을 둘러싸고 싸인을 졸랐다.

20일 이날은 이양을통해 한국의 테니스가 세계의인정을 받은 날이었다.

이날하오 이양은 세계랭킹1위 여자테니스 크리스·에버트보다 낫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체코 출신의 망명선수 미국의 나바로틸로바를 맞아 선전했던 것이다.

이선수는 첫셋을 6 3으로 놓치고, 둘째셋은 6：1로무너져 분패했으나 나바로틸로바와 대전했다는것 자체가 이양을 세계 하이클라스의 선수로 클로즈업 시켰다.

경기가 열린 토론토의욕대학교 테니스코트는 나바로틸로바와 이덕희의 경기를 보려는 테니스광 들로 초만원을 이루었고, 경기장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담장밑에서 머리를 내밀고 이들의 경기광경을지켜 보았다.

「플레이어스·차렌지·컵」이라고 불리우는 이 캐나다 오픈대회는 여자부문에만도 20만 달러의 상금이 걸려있어 금액으로는 U.S오픈 다음이다.

나바로틸로바를 맞은 이선수는 첫셋을 2：1, 3：1, 3：2, 4：2, 4：3으로 나가다가 8번째 게임에서 이양이 받아친 볼이 2번 튀었다는 심판의 판정에 관중과 이양은 약간의 불만을 나타냈다.

예선 2게임과 본선 2게임등 연달아 4게임을 치러 피로가 겹친 이양은 본선부터 시작한「나」선수의 강서브와 넷트·플레이 앞에 굴복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나바로틸로바는 게임후 기자회견에서 "내가 너무 겁을준것 같다. 덕희의 실력은 날로 나아지고 있다. 이 겁이 뒷날에덕희테니스에 좋은 도움을줄것이다"고 말했다. "금년들어 건강이 나빠 활동이 부진했으나 이제는 거의회복됐다"는 그녀는"덕희 는 좋은「발리」(넷 앞에서 깎아 치는 기술)를 갖고있다. 놀라운 선수이다"라고 이양을 칭찬했다.

이양은"대체로 콘디션이 좋았다. 다음번에는 좀더잘 싸울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선수는 작년 WTA(세계여자테니스협회)챔피온 쉽에서 그녀에게6：1, 6：1로 졌었다.

이날 이양의 응원을위해 일부러 나온 유일한 사람은 미시사가의 팻·마틴 여사. 마틴여사는 작년 토론토에서 열린 에번토너먼트대회에서 주최측의 주선으로 이선수를 소개 받은후 그녀에게 숙식을 제공했었다. 마틴부인은 "덕희같은 좋은선수와 만나게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본선에서 분전하는 이덕희양

이양은 이보다 앞선17일의 본선 1차전에서 캐나다 최고선수 니나·브렌드를 6：4, 6：3으로 물리쳐 큰 관심을 모았다.

캐나다 기자들은 이때 니나양에게만 초점, "심판때문에 억울하게 졌다"는 니나의 변명만 다루었다.

이양은 19일밤 센타코트에서 열린 9번시드 루마니아의 버지니아·루치시와의 본선 2차전에서 예상을 뒤엎고 6：2, 2：6, 6：3으로 승리. 16명으로 추려진 본선 3차전에 진출, 나바로틸로바와 대전을 갖게된것이다.

78년및 80년도 이 대회 준우승자인 루치시양은 게임후 "덕희에게 모든 승리의 영광을 돌린다. 그녀의 테니스는 온 코트를 압도했다"고 말했다.

세계랭킹 9위의 루치시는 이제까지 거의 자기보다 랭킹이 낮은 선수에게 져본적이 없다.

〈토론토·스타〉지는 "서울서온 28세의 여행자(Journey woman)에게 가장 중요한 승리"라고 이 게임을 보도, 이선수의 미래를 밝게 내다 보았다.

이선수는 78년도 아시안게임에서 단.복식 우승으로 금메달 2개를 획득한후 79년 미국으로 나와 프로로 전향, 각종 세계대회에 출전했다. 스폰서나 매니저도 없이 혼자 라켓 몇자루를 들고 세계 전역에서 열리는 각종 세계대회에 출전. 「쟈니·우먼」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녀의 세계랭킹은 작년도에는 140위 였다가 그후 76위 80위선을 유지했으나 이번 경기로 금년말에는 세계랭킹 20위권으로 [illegible]

◇넷트 앞에서 이덕희의 공을 받아치는 나바로틸로바

현재 세계에는 약 300명의 프로·테니스 선수들이 상위랭킹을 노려 치열하게 각축하고 있다.

시드(Seed)：테니스에서는 선수들의 랭킹에 따라 개별대회별로 대전 우선권을 준다. 예를 들어, 랭킹 9위이면서「9번시드」라는 뜻은 랭킹9위까지의 선수가 이 대회에 전부 출전했다는 것을 의미. 대회의 권위를 나타낸다.

학생에게 직업정보 제공

가을부터 확대실시

온타리오주 문교부는 90만명에 달하는 지역내 국민학교 7학년및 8학년생들에게 SGIS(학생직업안내정보서비스)를 확대 실시키로 했다.

이것은 작년가을 1차적으로 북부온타리오 지역의 7·8학년생 5만7천명에게컴퓨터를 이용한 직업안내서비스를 해본 결과에 따른 것이다.

문교장관 스티븐슨 여사는「파이롯·프로젝트」가학교당국과 학생들로부터 크게 환영받았다고 밝히고, 오는 가을부터 실시될 확대방침에 따라 학생들은이제 좀더일찍 자신들의 직업에 대해 고려할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SGIS제도는 지난10년동안 온타리오주 상급학교학생들과 카톨릭계 학교의 9.10학년생들에 혜택을 주어왔다.

SGIS제도는 컴퓨터화한 직업정보제공서비스로서캐나다 국내 3천5백개직장과 150개가 넘는 전문학교및 직업훈련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있다.

퀸스·팍에있는 온타리오 정부 컴퓨터센터는 매년약 65만명의 SGIS신청자들을 위한 정보를 처리하고 있다.

社說

체육대회의 명암

—전진을 위한 제언(提言)

이땅 한인사상 처음 열린(지난15일 토론토램포트·스타디움)전캐나다 한인체육대회는 그 의도가 전국을 망라한 획기적 행사였던 점에서, 또한 이를 기획·실천에 옮긴 주최측이 뜻깊은 대행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우선 높이 평가받을 만 하다.

그러나 주관자의 시간적·금전적 출혈·희생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지역행사에 그치고 말았던 것은, 타지역 교민들의 무관심, 또는 방관적 태도와 주최측의 효율적 계몽 부족탓이 아닌가 여겨진다.

물론 오비이락(烏飛梨落)격인 전국우편파업이 타도시의 대회참가 계몽등에 결정적 저해요소가 됐던 것이 사실이며, 아울러 당일 장마비처럼 하루를 덮은 비궂은 날씨가 참가자수와 참관군중 격감의 주요원인이 되었다.

한편, 당일 2만5천명 수용의 대그라운드가, 텅텅 비다시피, 대성황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일부교민들은 "하필 종일 비오는데도 대회를 연기하지 않고 강행한 것이 교민동원 실패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못내 아쉬움을 표시했으나 부득이 그날대회를 치르지 않으면 안되었을 주최측의 고충도 참작 아니할 수 없다 하겠다.

이제 동대회 자체및 경기진행상의 몇 맹점을 지적, 차기대회의 교훈으로 삼게코자 하는 바이니, 이는 결코 비난을 위한 비난이 아니라, 보다 나아진 대회로의 발판이 되려는 노파심에서인 것이다.

첫째로 주최측의 사전 해명이 있어야했다. 그간의 이유야 어떻든, 그들은 ① 전대통령의 아우및 대한체육회장이 서울로부터 날아와 대회를 참관한다고 말했다. 그들이 와도 그만, 안와도 그만이지만 명예와 공신력으로 운영되는 체육회로서는 끝맺음이 분명했어야 했다. ② 하춘화·김정구·이은관·서영춘씨등인 기연예인들이 대회 이튿날 교민위안쇼를 대대적으로 벌인다고 예고(언질)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이렇다할 해명도 없은채 재미연예인으로 대치시켰다. ③2, 3개 타도시 축구팀이 출전키로 연락, 또는 신청해 왔다고 체육회 주축(主軸)이 밝혔음에도 불구, 결국 토론토팀들만, 그것도 10여개팀에 육박한 시내 교민단체팀들중 불과 3개팀만 참가한 규모축소 인상을 준 점은 이해가 안가는 것이다.

④마라톤 경기 끝무렵 선수들의 주파기록(시간) 파골인확인등에 미숙, 유종의 미(有終美)를 거두지 못했다.

⑤최종 종합점수 계수상에서도 우승, 준우승단체 책정이 번복되는등 혼선을 이룬 불철저 양상을 보였으며, 각종경기 운영·진행 과정에서도 가끔 미숙이 노출되었음은, 처음 시도된 대회라는 명목으로 대범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앞으로의 대회에서는 과감하게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경기종목면에서도 어떤 교포의 논평대로 "학교운동회같이 잡다한" 것을지양(止揚)하고, 유치원·국민교·중학교·부녀부·노년부용 여흥적 경기는 각1개종목씩만 채택하고, 육상·구기등 굵직굵직 하고 알찬 경기들만 간추려 거행함으로써 전국체전다운 면모와 위신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예컨대, 국민학생부는 과자 따먹기"나 "바구니 터뜨리기"중 하나만 택하고, 노년부 게임도 "공 담아나르기"나 "통치기"중 한종목만으로도 족하다 하겠다.

또한 농악·씨름·그네등 고유 민속(民俗)경기도 가미(加味)시키는 것이 이민사회에 우리의 전통문화를 이땅및 후세들에게 심는데 의의 있는 이바지가 될 줄로 안다.

아뭏든 체육회는 큰 일을 무난하게 치러냈으며, 이민사에 길이 남을 깃발을 올린 것이다. "시작이 반"이니 앞으로는 점차 나아지는 대회가 치러질 것으로 기대하며, 해마다 중단 없는 전진 있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타도시 한인회, 체육단체등에 대해서도 1년전부터 미리, 그리고 꾸준히 권유하고 설득하여, 내년 8월대회때에는 명실(名實) 아우른 전체 캐나다한인계의 거족적 체육대회로 치러지도록 만전을 다해주기 바란다.

2중언어교육 일찍 실시

판단력 형성에 도움

몬트리얼 매길대학에서발행한 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5세 이전에 외국어를 배우면 일반적으로 창조력 판단력을 형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한다.

동대학의 심리학자인 조쯔나·베이드 교수와 월런스 렘블트 교수는 17～29세의 48명 학생을 실험한 결과, 외국어를 일찍 배우면 복잡한 모형 속에 숨겨진 단순한 유형을 알아내는 잠재력이 앞선다는 것을 발견했다.

잠재력 테스트는 보통 심리학의 기본측정 방법이다. 이 잠재력이 우수한 사람은 사물탐구에 있어 분석, 종합하여 결론을 얻는 능력이 높다는 것이다.

베이드 교수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험대상 학생들중 우수한 잠재력을 나타낸 이유는 그들이 어린나이에 외국어를 배웠기 때문이라고 베이드 교수는 말했다. 그들은 외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의 차이점을 느꼈기 때문에 지각능력을 높여주며 생활에 필요한 분석적인 사고력을 배양시켜 준다.

그러나 베이드 교수는 자녀에게 일찍 외국어를 가르치려는 부모에게 경고를 준다. 이 연구보고서에서 동교수는 외국어를 일찍 배운 사람이 독립성은 높지만 사회적 능력은 부족, 다른 그룹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416)533·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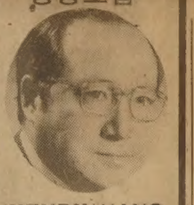
클래식기타 연주회

한인Y기타부 주최

토론토한인Y클래식 기타부는 오는 28일(금) 하오8시 941 던다스·웨스트의 한인천주교회 강당에서 기타연주회「클래식기타의 밤」을 갖는다

토론토 쇼핑의 전당
미도파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생명보험



(HENRY)KANG
Canada Life
12년간 근무중
교육및
생명보험
은퇴연금
R·R·S·P
세금공제
B) 868-0922
R) 622-5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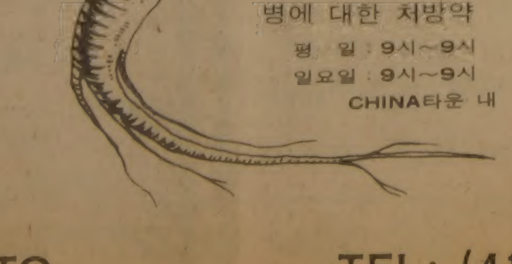
Daily Newspaper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TEL; (416) 533-2361

安康寧藥材行
안강용 한약 건재상
On Hong Ling Herbs Co.

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로 봉사
招志和, 李樹鴻, 周楚, 黃國威

●진품웅담 ●녹용
●우황청심환 ●사향
●경명주사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보제첩약및 각종 병에 대한 처방약
평 일 : 9시~9시
일요일 : 9시~9시
CHINA타운 내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평소에 뜻한바 있어 금번 중국에서 30여년 한약에 대해 많은 연구와 경험을 쌓으신 중국인 의사 네분을 모시고 교민여러분 가정의 건강관리에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코자 중국인 의사와 같이 아래 장소에서 한약도산매를 하였사오니 일차 왕림하시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호 권 PETER CHAN 배



465 DUNDAS ST. W., TORONTO
(DUNDAS×SPADINA)
TEL: (416) 363-3883 363-2088

기쁜 소리 444-4011

— 안 상 업 —

값비싼 수학여행

7월17일자 〈한국일보〉를 손에쥐고 넘기는 중 "하루평균 150명에서 200명까지 외국을 배우고자 미국으로 프랑스로 떠나는 대학생들이 김포공항에 줄지어 선다"는 큼직한 기사를 읽었다.

며칠후에 같은 신문에서 "해외유학도 좋지만 학문의자급자족을"이라는 정범모 총장의글을 또 읽었다. 나는 우리나라의 글속에서 가끔 보는 "세계에서 손꼽히는교육열"이라는 말이 치솟는다.

그것이 치마바람을 말하는 것인지, 학생이 많다는 아우성인지, 졸업보다 입학에 열을편다는 말인지, 사람이 되기전에 자랑부터 해놓고 보자는 말인지 모르겠다.

마치 졸졸이 자연스럽게 흘러야 할 개울물을 둑으로잡아 가두었다가 갑자기 터치니까 흙탕물이되어 터져나가듯 불쾌감과 위험스런 상황까지 만드는 모습이다.

구태여 배움과 관계를 시킨다면 얼른 느낌에 "값비싼 수학여행"이라고 나는 말하고 싶다.

교육은 항상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다. 교실 안에서 흑판과 교과서를 이용한 선생님 중심의 주입식 교육방법을 벗어난 현대교육방법중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시청각을통한 환경교육은 경험과 실제방법에 해당될 것이다. 돈 200달러와 두개의 무거운 가방을들고 외롭게 김포를 떠난 20년전의 나의 모습을스스로 잊을수 없다.

그후 이 땅에서 교육을 받고, 자녀들의 교육을 시키는 우리들에게는 가까운 곳이나 혹은 먼곳에 수학여행을 한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또한 중요함을 잘 알고있다. 이같은 환경이나 이해속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자극이나 특이한 소식이 아니다. 그러나 개인으로나 단체가 약 한달간의 수학여행에 약 5·6천 달러(약300만원)의 비용을 들인다는것은 여유가 있고 안정된 이 사회에서도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다.

교육은 항상 인생문제와 접촉되어야 한다. 즉 자연스런 발육에서 전인적 교육이 성숙된다는 말이다. 돈이란 많다고 막 쓰는데 가치가 있는것도 아니며, 또없는데도 있는것같이 분수에 넘치는 소비를 하는것은자신에게는 물론 사회에까지 미치는 혼란과 악영향이 있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미국구경을 갑니다."라는 S대학교 공대생의 솔직한 말에 마음이 끌린다. 아마 100에 하나라도 그런 학생은 지성인으로서의 좋은 여행이 될 것이다.

그런데 "부모의 권유로 간다."든지"영어회화 공부하러 간다"든지, 심지어는 "구경하는게 아니라, 공부하러간다"는 학생의 말은 오히려 어처구니없는 불쾌감을 주기까지 한다. 아마 출발전에 그 큰 포부와 흥분을 냉각시키는 것이 돌아가는길에 허탈감이나 눈물이 없게 될 것이다.

물론 "백문불여일견"이라는 속담으로 볼 때 값비싼 여행이라고 전혀 무가치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한달동안에 미국을 그리고 프랑스를 다 보고, 또한 수학여행의 목적을 다한 것 같이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풍이요 거짓말이다. 어느 한 도시의 고유한 성격과 문화를 찾고, 미리 생각한 학교속에 깊이 파고들어 그 구조와 자료, 교수와 학생들의 자세와 생활을 이해하고, 한 가정을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간의 생활태도와 사회참여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될때 배우기도 하고, 또한 내집의 좋은점도 깨닫게 될 것이다.

부모와 함께 진지하게 여행하는 자녀들, 목적을 위해 잘 계획되고 준비된 인솔자와 학생들에게는 일생 동안에 잊을수 없는 좋은 수학여행이 될 수 있으나, 눈에잘 보이는 저열한 풍이나 흉내내는 발걸음은 사치스러운 값비싼 여행이 될 것이다.

(토론토한인 선교교회 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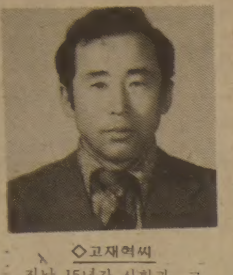
토론토 한국교육원
고재혁교사 부임

토론토교민들을 위한 토론토한국교육원이 한국정부의 도움으로 탄생된다.

한국문교부는 금년 교민2세들의 교육을 위한 지도교사를 토론토, 시카고 영국 런던등지에 파견했다.

토론토에는 고재혁(면목여중교사)씨가 부임, 가족과 함께 지난 31일 토론토에 도착, 한국교육원 설립작업을 하고 있다.

18일 본사에 들른 고교사는 아직 토론토한국인2세 교육실태를 파악치 못했다면서 곧 사무실도 정하고, 이곳에서 현재 실시중인 2세교육등에 어떤 도움을 줄수있는가 하는 방법을 강구중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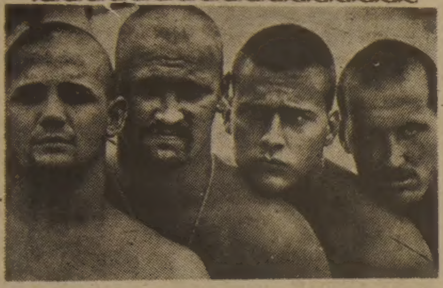


◇고재혁씨

지난 15년간 사회과 교사로 서울의 상도중학, 면목여중등에서 학생을 가르쳐 왔다는 고원장은 작년도 문교부에서 있는 해외파견 지도교사 선발시험에 합격, 3년기간으로 토론토에 왔다고 말했다.

만년교사의 인상이 짙게 풍기는 고원장은 우선 사무실을 한인회관내에 정하고, 9월부터 토요 한글학교등에 직접 나가서 학생및 교사들도 만나 실정파악을 하는한편, 한국 문교부로서 어떤 도움을 줄 필요가 있는가 하는점을 파악, 모국정부에 보고, 체계적 교육을 지도할 방침이라 한다.

또 고원장은 현대 화대일로에 있는 해외유학생 러시에 발맞춰 유학생이 공부마친후 본국취업 알선등도 모국정부에 권유할 예정이라 한다.



◇필승위해 삭발—마이아미대학 풋볼팀 허리케인즈는 금년도 대학풋볼선수권 쟁취를 위해 4명의 선수가 삭발까지 했다고.〈AP〉

수학올림픽, 캐나다 7위
미국1위, 소련9위

캐나다학생들의 수학실력은 소련보다는 낫고 미국보다는 떨어진다는 사실이 한 수학경시대회에서 입증됐다

8명의 고교생들로 구성된 캐나다팀은 워싱톤D.C에서 개최된 국제수학올림픽에 처녀출전 대회에 참가한 27개국중 7위를 차지했다

1위는 미국 소련은 9위를 차지했다

캐나다선수중 데비드·배쉬와 조지·긴디어는 만점을 받았다

1등을 차지한 미국팀은 만점을 받은 학생이 4명나왔다

"소련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라고 캐나다팀 감독 제프리·버트러 알바타대학 수학교수는 말했다.

높은 점수를 받은 토론토 학생 존·추군은 "문제들이 너무 어려워요" 라고 불평했다

이 대회에 모인 학생들은 연 2일간 4시간반 간이의 시험을 치렀다

"2일째는 2시간만에 나가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들의 답안지가 간점이래요" 라고 추군은 말한다

이 대회에서 성공적인결과를 올린 캐나다팀은 대회전에 사스케치완에서 2주동안 훈련받은 바 있다.

콜럼비아號 발사연기
연료탱크문제등 결함

〈워싱턴—AP〉 오는 9월30일 2번째 발사예정이던 왕복우주선 콜럼비아호의 발사가 예정일 보다 수일 뒤로 연기되었다고 연방항공우주국(NASA)이 19일 발표했다.

발사지연 이유는 콜럼비아호를 로케트에 연결하는 문제와 연료탱크 문제등 일련의 사소한 기술적 문제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히치하이커들 수난
강간2건 발생

토론토경찰국은 여성히치하이커들에게 모르는 사람의 차에 함부로 올라 타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 경고는 지난 주말에 있은 두명의 히치하이커소녀들이 강간을 당한 사건뒤에 일어났다

첫번째 사고는 핀치 서브웨이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19세 여인이 모터사이클리스트의 승차권유를 받자 오토바이 뒤에 탐으로써 발생했다

이 강간범은 킬·스트릿의 요크대학 캠퍼스에서 여인을 강간한후 다시 핀치역으로 데려다 놓았다

퀸·스트릿과 오싱톤·스트릿에서 승차를 한 22세의 여성은 주차장에서 강간당했다

경찰은 특히 여름철의 여성들 옷차림이 강간범들에게 더욱 자극을 주기 쉽다면서 여성들의 히치하이킹을 경고했다

교민동정

◆**장석환**(전 문인협회장) 지난 25일 서부지역(미시사가)에 아담한 새 저택을 구입, 이사한데 이어 27일에는 미시사가 쉐러던몰에 햄버거샵을 개업했다.
(B.822—6804)

◆**신우원**(동우회 학생축구팀 인솔자)=축구인으로서 8·15전국체전에 동우회 선수로 그라운드를 누볐고, 한맘소년축구팀 우승에 일익을 담당, 이번에 동우회주최 도시대항 축구전에한맘학생축구팀(천주교 청년회 소속)을 인솔 22일 몬트리얼로 원정, 23일(일)그곳서 몬트리얼 한인학생축구 연합팀과 일전을 벌이고 그날밤 토론토로 돌아온다. 1행은 임원진 5명, 선수및 가족 17명.

「상점경영의 묘미」… ③
좀도둑 탓?, 관리부실?

소매상 경영연구소장 피터·태사

요즘에 좀도둑처럼 상점주인들의 신경을 쓰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캐나다에서는 하루에 약 백만달러 어치의 상품들이 캐쉬리지스터를 통하지 않고 사라진다

현대경영연구소가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상점주인들은 구매 다음에좀도둑 방지가 상점경영에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조사에 응한 95%의 상점경영자들은 자기가게에서 얼마치를 손실하는지도 몰랐고, 또 자연소멸의 원인도 모른채 무조건 좀도둑만 비난했다.

우리가 조사한 한 통계에 의하면 좀도둑에 의한 손실은 실손실의 약 3분의1밖에 안된다. 나머지는상품들이 진열대에 오르지도 않고 사라지는 것이다 많은 상품손실이 관리부실에 의해 일어난다.

상점경영자들이 주의할 점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인 수:
① 당신은 물건상자를 세어 봤읍니까?
② 당신은 박스상태를 체크해 봅니까?

검 사:
①인보이스와 숫자를 맞추어 봅니까?
② 상품의 질을 검사합니까?

재확인:
① 진열하기 전에 더블체크를 하였읍니까?
② 숫자를 센 후 다시 박스에 넣어둡니까?

가격표: 가격은 누가 매깁니까? 만약 2달러 짜리를 1달러로 매기면 당신은 2 상품 50%를 좀도둑 아닌 관리부실로 잃게 되는 겁니다

인벤토리: 인벤토리를 할때 일일이 상품품목 숫자를 파악합니까?

매회계년도말에 인벤토리를 하는 경우 많은 재고감축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은 도둑보다 당신의 관리부실에 주원인이 있는 것이다

이런 손실들은 현대경쟁시장에서 당신을 물러나게 만든다

① 손실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계산하라
② 왜 이 손실이 일어나나를 발견하라
③ 손실방비책을 강구하라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주간女性

제1회 27 HOLES 골프시합

장 소 : CASTLEMORE COUNTRY CLUB
시 일 : 1981년 8월 26일(수요일) 오전9시30분 부터
참가비 : $30.00
$25.00(CASTLEMORE MEMBERS)
접 수 : 선착순 50명
미리 접수하실 분은 8월25일까지 하기인에게나
CASTLEMORE PRO SHOP에 등록하실것
(PRO SHOP 792—3636)
정 정 흥(678—2444)

시 상 : GROSS 3등까지
NET A(89이하) 1등. 2등(HANDICAP에 의한)
NET B(90이상) 1등. 2등(〃)

LONGEST DRIVE —3RD NINE 7TH HOLE
NEAREST —3RD NINE 6TH HOLE
STRAIT BALL —3RD NINE 1ST HOLE
MOST HONEST GOLFER

상 품 : ● CUSTOM DRIVER(PERSIMMON)
● SAND IRON(PUNCH DOT FACE)
● NYLON BAG 8"
● NYLON BAG 7"
● PUTTER
● HEAD COVER(SET OF 4)
● GOLF GLOVES 외 다수

시합규정 : SUMMER RULES-BALL을 TOUCH할 수 있는 경우는 FAIRWAY PIPE LINE에 공이 놓여 있을 때 만.

J.C. GOLF ENTERPRISE LTD.
191 EGLINTON AVENUE EAST, SUITE 306, TORONTO, ONTARIO, CANADA M4P 1K1
TEL: (416) 481-9976 TELEX: 06-217791 JCGOLF

토론토 패션계의 정인숙여사

톱·클라스 모델로 활약

2자녀 가진 주부, 시간당 보수 70달러

◇남편 전남욱씨의 연한 회색 스웨터를 장난삼아 입고 밑에는 검은 색 팬티호스 차림인 정인숙여사.

현란한 조명을 받은 늘씬한 미녀들이 움직일 때마다 화려한 옷들이 날개를 편다.

갖가지 스타일의 옷을 걸친 노랑머리·빨강머리의 8등신들이 누비는 무대에 검은 머리의 미인이 등장했다. 자연스러운 제스츄어와 동양적 매력이 더욱 돋보여 관중의 관심을 더 끈다.

이달 19일부터 9월7일까지 열리는 CNE 박람회의 의상쇼 리허설 광경이다.

이 동양인 모델이 정인숙(32) 여사.

3년전부터 모델계에 투신한 정여사는 외모와 언어장벽, 텃세등 갖가지 불리한 역경을 딛고 일어서 이제 시간당 70달러의 A급 모델로 활약중이다.

그녀의 광고모델 사진은 〈토론토·스타〉지, 주간잡지등의 광고면에 자주 나온다. 광고뿐 아니라 패션관계 기사의 사진으로도등장하고 있다.

〈토론토·스타〉지 주말판 잡지 「투데이」(Today)의 7월19일자 17면을 비롯, 16일자〈선데이·스타〉가정란 기사등 정여사의 얼굴은 이 사회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다. 정여사가 소속한 인터내셔날·모델·에이전트의 슈·카터 여사는 "숙의 토론토 모델계 위치는 톱·클라스이다. 일본인, 월남인등 몇명의 동양 모델도 있지만 숙은 이중에서도 독보적 존재이다. 숙은 시간당 70달러를 받고 있으며, 톱·클라스 모델중 1~2명만이 75달러를 받는다."고 정여사에 대해 말했다.

전남욱씨와의 사이에 두 남매를 둔 정여사는 키169㎝, 무게 52kg, 34-24-34로 볼륨있는 체위는 아니더라도 한국여성으로는 탁월한 체격이다. 더구나 날카롭게 오뚝한 코, 약간 긴 얼굴은 서양인과 비슷한데가 있다. "이곳 기준에 비하면 내 키는 큰 키는 못되지요. 그러나 신체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성에서 풍기는 맛과 매너예요. 개성이 있어야 하니까요. 또 뜨거운 조명 아래서 수시간씩 견디는 참을성도 있어야 해요."

화려하게만 보이는 모델들이 겪어야 하는 어려움속에는 많은 노력과 인내가 있다고 정여사는 강조했다.

이때문인지 캐나다 최대의 모델시장인 토론토에는 40~50명 정도의 모델이 있고, 이중 동양인은 7~8명이 있으나 한국인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정여사는말했다. 물론 이 숫자는 모델업으로 생활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이며, 이외에 모델지망생들이 있다.

정여사는 이곳서 6개월간 모델학교에 다녔다. 본격적인 풀·타임 직업모델로 나선 것은 작년 12월이며, 그전에는 가사관계로 파트·파임으로 일했다. 정여사는 금년 들어서 지난 3월 투모로(Tommorow)·디자이너·쇼등 7~8 개의 주요쇼에 출연했다.

CNE쇼는 이튼백화점, 〈토론토·스타〉등 6개의 대형스폰서가 후원하는 토론토 최대의 쇼이다. 이 쇼에 출연할 신인 모델 9명 선발에는 150여명이 응모하는 치열한 경쟁이었으나정여사는 동양인이라는 핸디캡이 있으면서도 무난하게 뽑혔다. 어쩌면 정여사가 동양인이라는 사실은 희소가치를 유발, 모델 정여사의 인기를 더욱 부채질하는지 모른다.

토론토의 모델시장은 뉴욕, 파리등에 눌려 있으나 캐나다에서는 가장 크다. 금년도 미스·유니버스 2위를 차지한 미스·캐나다두 포양도 몬트리얼을 떠나 토론토모델계에서 활약중이다.

모델이 되기 위한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정여사가 마친 에이전트(소개업자)가 가르치는 약 6개월 정도의 코스도 있고, 세리단·칼레지등에서 가르치는 정규모델링·스쿨도 있다.

모델지망생등은 주로 16~17세에 시작하지만 정여사의 경우 20대말에 시작했다. 동양인은 외양적으로 젊어 보여 한번 인정만 받으면 모델로서의 수명이 길다.

미래를 향한 의상쇼인 투머로쇼에는 교민중 박숙희(79년도 캐나다 미스코리아·선)양이 디자이너로 출품했다. 지금은 몬트리얼에서 불어를 공부중인 박 양은 이달말에 토론토로 돌아와 의상계에서 활약할것이 예상된다. (유)

캐나다달러 상승

미화 $1 : 82.37센트

악화일로에 있던 캐나다 달러가 서서히 회복추세를 보이고 있다.

18일 북미외환시장에 거래된 캐나다달러는 미화 1달러당 82.37센트로 상승, 강세를 보였다. 이것은 지난 7월24일이후 81.80센트대로 내려간후 처음으로82센트대에 올라섰다.

이 강세에도 불구, 외환시장의 거간꾼들은 아직조심스러운 자세이다. 8월초의 캐나다달러 하락원인들이 아직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이자율이 계속오르는데도 캐나다 달러가상승한 이유는 대형회사들의 상업거래에서 이루어 졌다고 관측통은 보고있다.

"따라서 캐나다달러는다시 한번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 관측자가 덧붙였다.

한편, 현재 금융가에는미국금융위원회(FRB)가이자율 하락을 결정할 것이라는 풍문도 있다.

장수대학 학생모집 오는9월26일 開講

(LA지사)

장수대학(학장·정히건)은 81학년도 9월학기(제7회)신입생을 모집한다.

50세이상의 한인교포(50세미만도 희망에 따라 입학가능)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서는 신청자에게 우송해준다.

모집인원은 선착순 30명 마감이며 2년제 교육과정동안 수업료는 무료이다.

또한 점심과 학교버스로 교통편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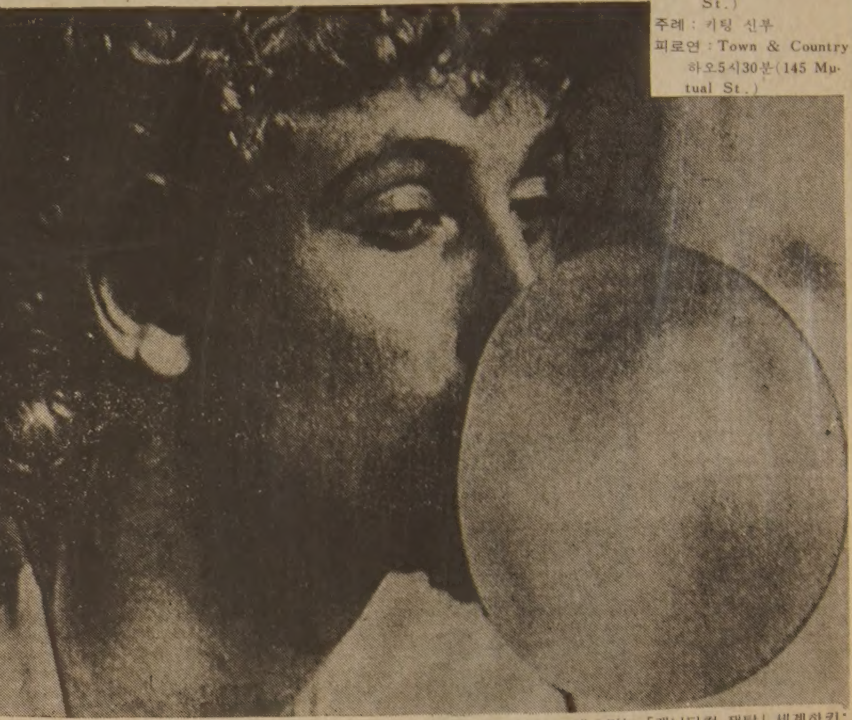
개강일자는 9월26일이며 재학생도 이날짜에 재등록해야 된다.

주소:2130 N. GRAND AVE SANTA ANA CA 92701

전화:(714)543-6202, 839-5939

결 혼 축 하

신랑 : 마크·랭겐군
신부 : 박은영양 (박찬도씨 장녀)
때 : 9월5일(토) 하오1시 30분
곳 : 생폴성당(83 Power St.)
주례 : 키팅 신부
피로연 : Town & Country 하오5시30분(145 Mutual St.)



◇아직도 어린애같이 풍선껌을 부는 에드몬턴·오일러의 웨인·그레츠키. 그레츠키는 「캐나다컵 쟁탈」 세계하키대회에 대비, 몬트리얼에서 합동훈련중이다. 지금 훈련중인 35명의 선수들을 23명으로 추려진다. 18일 발표될 예정이던 최종선수명단은 스코티·보우맨 감독에 의해 1주일 연기됐다. 보우맨 감독은 내주에 있을 미국과의 2차의 친선게임및 소련, 스웨덴과의 친선게임후 최종선발할 예정이다.

〈독자시〉 8월

정 용 회

정자나무 그늘에
홀치기하는 여인이
8월을 머금고 있다。

임추(立秋)를 셈[?]하여
아기손 닮은 김장밭에
고추잠자리 한쌍이
가을을 그리고、

말복(末伏)을 걸머지고
주체할 수 없는 몸을
땀 흘리는 해님이
밤이슬 고운 달님의 입술에
뜨거운 정을 팔고、

가만가만 붉어오는
사과밭에서
젊은 연인들의 석류빛 사랑이
터지고 있다。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㊸

팔리·모왓 원작, 천 재 훈 옮김

처음엔 내 눈과 마주치자 무안해 하는 것같더니 이내 파이프담배를 피우는 카리브를 생각해 보더니 갑짜기 몸을 꼬면서 웃기 시작했다. 미처 내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의자에서 굴러내려 정말로 미친듯이 웃으면서 데굴데굴 땅바닥에 딩굴었다. 나는 깜짝 놀래서 그가 미쳐 버리지나 않았는가 생각이 들었다. 프란쯔와 나는 대경실색이 되어 동시에 일어서 버렸다. 작은 노트는땅바닥에 떨어져 오호토의무릎위에 놓이자 그는 잠깐 들여다 보드니 역시 남폭 여게 웃어제꼈다. 그림은 손에서 손으로 잽싸게 건너가더니 번개 같은 속도로 웃음 바다가 되어 버려 텐트안은 미친 사람들의 수라장으로 변했다. 이것은 전쟁에 나가기위한 춤도 아니고 얼간이들의 익살도 아닌 내 그림을 칭찬해 주기 위한 것들이라는 것을 천천히 깨닫게 되었다. 나는 주위에서 비명을 지르고꾸밈없는 명랑함으로 눈물을 흘쳐 내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어보였다. 그리고 작은 아이손에 쥐어져 밖으로 나갈려는 그림을 빼앗아 들여다 보았드니 이상하게도 예절을 생각해볼겨를없이 나의 조그만 농에 그만 휘말려들어가 어쩌나 우스워지는지 몰랐다.

이제는 누구도 어찌 해볼도리가 없는 상태까지 되었다. 헤카우는 숨을 못쉬고 까무라쳐서 누군가 밖으로 들쳐내갔다.

한늙은 노파는 발란스를 잃고 텐트를 넘어졌다. 팽팽하게 땡겨진 가죽이 확 찢어지면서 그녀는 밖의뾰족한 바위 돌위로 나가 동그라졌는 데도 아직 비명을 지르며 웃고 있었다.

나는 걱정이 되었다. 정말로 나는 이처럼 우스워 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한번 히스테리에 덮치면 아무것도 이사람들을 말릴수가 없었다. 먹는것 이외는 아무것도 이들을 말릴재간이 없다.

하우믹은 큰나무 쟁반에다 김이 무럭무럭 솟아오르는 사슴 고기덩이를 들고 문안에 들어서면서 이상하게 이 광경을 둘러 보았다. 고기 냄새가 코를 찌르자 요술처럼 웃음이 끝났다. 헤카우는 아직도 돌떠서 늙은 여인을 데리고 텐트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모두 앉아서 고기 쟁반을 게걸스럽게 바라봤다.

편히 앉기보다는 쭈그려 앉아서 이 사람들과 처음으로 음식을 같이 먹게 되었다. 하우믹이 텐트 안의 마루바닥에 큰 쟁반을 내려놓자, 우리들 다섯명은 주위에 둘러 앉았다.

쟁반은 4피트 가량의 길이와 2피트 정도의 넓이인데, 위로 말려 올라갔고, 제대로 공을 들여 만든 것이었다.

바렌의 남쪽에서 자라는 작은 난장이 전나무를 쪼개어 심혈을 기울여 만든 것이었는데, 적어도 30여개의 나무토막을 이어서 사슴뼈을 못처럼 사용해서 박아 놓았다 나무가 이어진 곳을 사슴의 심줄로 탄탄히 조여매어 쟁반에 물이 전혀 새지 않게 되어 있었다.

쟁반도 훌륭했지만, 음식은 더욱 인상적이었다. 대여섯개의 삶은 사슴다리가 기름기와 사슴털로 범벅이 된채 담겨져 있고, 여나무개의 혓바닥이 다리 사이에 놓였고, 한쪽으로는 살점이 적게 붙은 사슴의 가슴뼈가 통째로 놓여있다.

하우믹이 밖으로 들락거릴 때마다 반찬을 가져 오는데, 가죽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말린 고기를 마루바닥에 아무렇게나 쏟아놓았다. 이것 뿐 아니고, 헤카우의 아내가 자기 몫으로 김이 무럭무럭 솟는 골수가 들어있는 뼈를 한아름 들고 들어왔다. 뼈는 이미 쪼개 놓아서 고소한 골수를 빼먹는데 힘들지 않았다.

나는 몹시 배가 고프면서도 고기가 산더미처럼쌓여있는 광경이 약간은 게름찍했으나 속이 울렁거림을 느끼는 사람은 나 혼자뿐이었다.

손님인 내가 먼저 식사를 시작하기를 모두 기다렸다. 예의를 지켜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작은 칼을 들고 다리에 털이 엉겨붙은 큰 고기덩이를 잘라서 담을 접시가 없기 때문에 무릎에 올려놓았다.

프란쯔와 이할미우트 사람들은 동시에 덤벼들었다. 오호토는 큰 다리를 집어 들더니 혓바닥을 날름거리며 겉에 묻은 국물을 핥아먹고는 왼손으로 잡고 한입을 물어뜯고 나서 칼을 든 다른손으로 썩 비어 먹는다. 나는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날카로운 칼날은 그의 넓은 코끝을 겨우 비켜 내려갔는데 어디를 자르는지 생각도 안해보고 그냥 싹둑 잘라 내려갔지만 코는 그대로 붙어 있었다.

한입의 고기를 한두번씹더니 곧 삼켜버린다. 헤카우는 국을 좋아하는 모양이다. 손을 컵처럼 사용해서 국물을 마시는데 기름기가 묻은 손을 열심히 핥아먹고 이따금씩 식은 사슴혓바닥을 국물에 다시 넣었다가 씹어먹었다. 잠시 광경을 바라보고 있자니 나는 사소한 일에 너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을 깨닫고, 칼을 칼집에 도로 집어 넣고, 큰 숨을 한번 쉬고, 두손으로 고기를 들고는 막 먹어치웠다. 정말로 맛이있었다. 그러자 오―텍이 주인답게 기분이 좋아서 골수가 들어있는 뼈는 주위에 놓여진 돌위에 쳐서 젤로같은 골수를 빼먹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미식가로서의 지식은 없지만 따끈따끈한 골수처럼 내가 생전 그렇게 맛있는 것을 처음 먹어봤다면 독자들은 믿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아는 소의 맛없는 골수에 비해 지방분이 덜하고 어쨌든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한 맛이었다.

이제 이할미우트 사람들의 파카가 어째서 그렇게 더러운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들은 휴지 대용품으로 파카를 사용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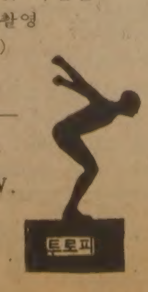
헤카우의 큰 턱밑으로국물과 고기 기름이 계속 흘러내려 입고 있는 훌리툭이라는 겉옷의 털속으로 배어 들어갔다. 나 역시 흘러내리는 국물을 주체하지 못해서 셔츠 속으로 배어 들어가는 걸 내버려 두자고 생각하고, 닦으려고 하지 않았다.

하우믹은 연방 들락거렸는데, 이번에는 밖에서 보았던 큰 쇠솥을 안고 들어왔는데 빈솥이었다. 좀전에 먹은 음식을 끓였음이 분명한데, 전혀 씻지도 않고, 거기다 차를 끓일 모양이다. 우리가 물론 차를 짐에서 끌러주었다. 이 솥은 이할미우트 사람들이 갖고 는 제일 큰 솥이었다. 아마 목간통이 옆에 있었더라면 거기에다 틀림없이 차를 끓여 마실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억제 못하는 버릇이 하나 있다면 차를 계속해서 마시는 일이다.

차를 들여다보니 그렇게 시커먼 차는 아직 본 일이 없기도 했지만 고기덩이와 기름이 둥둥 떠다녔다. 비교적 작은 몸집의 오―백은 계속 큰잔으로 3개를연거푸 마시는데 한컵을 한두번 벌꺽벌꺽 마셔버렸다. 20분도 못되어 차는 바닥이 났지만 사람들은 아직도 충분히 마신 것같지 않았고, 새차를 더 보태서 다시 끓이도록 새물을 부었다.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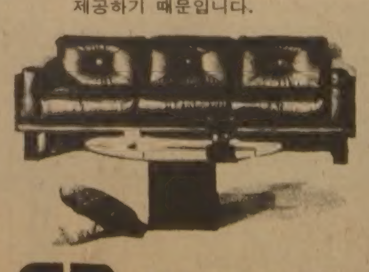
킴스 카메라 및 트로피
Kim's Camera & Sound

취급품목 : ①카메라 일절
②각종트로피및 상패 50% OFF
③여권사진및 시민권 사진즉석촬영 (5분이내)



대표 : 김 춘 탁
619 BLOOR ST. W.
B) 534-1085
R) 244-9073

교포를위한 제4주년 기념 특별세일
왜 에코시스 가구가 인기 있을까요?
◆그것은 최고급회사 제품들로서 물건이 특이하고
◆일반 가구점에서 볼수없는 차원높은 가구들이고
◆양심적으로 거래하며
◆사신후에 문제점을 책임지고
◆교포들 에게는 특별염가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MODERN FURNITURE
ecosys
2300 YONGE ST. TOR. (In Yonge-Eglinton Centre)
TEL. 486-0397 김만구

SunLife OF CANADA
취급보험
ㅁ생명보험
ㅁ연금제도
ㅁ교육보험
ㅁ그룹보험
ㅁ주택, 건물및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ㅁR.R.S.P

김 신 영

보장된 삶을 가지세요!
주소 : TORONTO METRO BRANCH SUN LIFE OF CANADA 22 St. Clair Ave. E. 4th Floor, Toronto, Ont. M4T 2S3
TEL : B)922-3111 R)439-8885

제1회 바시티배 쟁탈 야구대회
일 시 : 9월5일 오전 9시
장 소 : 센테니얼 팍 야구장
신청장소 : ⊙바시티 운동구점(967-7304)
⊙박재선씨(755-6434)
⊙조용덕씨(423-3251)
참 가 비 : $50 (팀당)
주장회의날자 : 8월28일(금)하오8시 (바시티 운동구점)
주최 : 바시티 운동구점(이건영)
후원 : 민중신문사·코리아 저널·대한체육회 쌍방울 메리야스·미도파 선물센타 SUN-LIFE (윤호영) 국제상사
●심판위원 : 박재선, 박샌디, 김경서, 문영환, 김문당, 조용덕, 김제일, 천경호, 박홍일, 박세영, 장인택, 윤호영, 최이락, 조동식, 정세용, 김은하

The Korea Times Toronto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INCOME TAX Service
※개인 세무및 보고서 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ST. W.(한국관 건너편)
☎:(B) 533-7573. (R) 699-3591 최 태 권

週刊한국

— 4 —

The Korea Times of Toronto (or Hankookilbo)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 Holidays. Subscription fee $90. per year $8. per month
ISSN 0319 2962
구독료: 연 $90. 월 $8.00

1981년8월22일(토)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Saturday, August 22, 1981

◇78년 세계사격선수권大會 기념주화

◇지난70년 최초로 발행된 기념주화。 이 때의 주화는 대외홍보용으로 외국인에게만 판매됐다。

第5共和國 출범을 契機로 본

우리나라 紀念鑄貨의 実相

70年 最初의 鑄貨는 1세트에 35만원선…지금은 1천2백만원으로 값올라

제5공화국 출범을 경축하는 기념주화가 지난 14일 전국의 은행창구를 통해 일제히 발매됐다。 건국이후 4번째로 발행된 이번 기념주화는 2만원짜리 銀貨가 10만개、1천원짜리 니켈貨가 2백만개、1백원짜리 백동전이 5백만개로 모두 3종 7백10만개에 달했다。 이번 紀念鑄貨를 계기로 본 그 發券 이모저모—。

◇제5공화국 출범을 기념해서 만든 4번째 기념주화。 지난 14일을 기해 일제히 발매됐다。

◇이번이 4번째

지난70년3월、정부는 프랑스 국립은행에 12가지 종류의 金·銀貨를 주조의뢰했다。 금액으로 따져 6천만원 상당이었다。大韓民國榮光史를 주제로 한 이 기념주화들은 대외 홍보용으로 외국에서만 발매되는데 그쳤다。

이것이 建國후 발행된 첫번째 기념주화였다。

이를 더 구체적으로 보면 액면금액이 2만5천원·2만원·1만원·5천원·2천5백원·1천원등의 金貨가 6종、1천원·5백원·2백50원·2백원·1백원·50원짜리 銀貨가 6종。

발행량은 金貨5백짝、銀貨가 5천짝이었다。

이때만 해도 12종 1세트에 美貨7백달러(당시 약35만원)에 판매됐으나 그후 금값이 오름에 따라 지금은 무려 1천2백만원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그나마 완전세트가 나오는 경우가 드문 희귀주화가 되고 말았다。

두번째 기념주화는 75년8월15일에 나온 光復30주년기념주화。

1백원짜리 5백만개로 실제 통용을 위한 것이었다。

성분은 구리75%、니켈25%의 白銅貨였다。

당초 이 주화는 단순한 수집품으로 시장성이 적을 것으로 내다봤으나 6년도 채 못돼 완전히 퇴장되어 古貨자 돼버렸다。

현재 미사용품은 1천2백원 정도 호가되고 있으며、프루프(만들때 부터 수집가를 위해 특별히 제조하여 표면이 윤이 나도록하고 케이스에 넣은것)는 5만원이나 나간다。

세번째가 78년9월、제42회 國際射擊대회를 기념해서 그해 6월에 모습을 보인、5천원짜리 銀貨와 5백원권 白銅貨였다。

이 기념주화는 당시 국내에 기념주화붐을 일게 해서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아뭏든 이때의 5천원권은 미사용품이 3만5천원、프루프는 7만5천원이나 호가되고 있고 5백원짜리 미사용품이 2천8백원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5백원짜리라도 프루프는 有光이 4만5천원、無光은 9만원선에서 호가되고 있는데 이는 발행량이 2천개에 불과해서 비싼 것이다。

최근 미국의 한 화폐수집상이 10년전「5천년榮光史」기념주화를 팔겠다고 광고를 해서 눈길을 끈 일이 있었다。

그 값이 1만7천5백달러、원화로 약1천2백만원으로 국내 시세와도 거의 맞먹는 액수였다。

수집붐은 78년 국제사격대회때가 絶頂

故 朴대통령 주화는 1백10만원 호가

또 이들 기념 주화는 낱개로도 거래되는수가 있는데 신라금관이 새겨진 2만원짜리 金貨는 1백90만원、朴대통령초상이 그려진 1만원짜리 金貨가 1백10만원 수준이다。

◇최고 2~3천만원

기념주화는 아니지만 自由黨때 故李承晩대통령 얼굴이 나온 白銅貨 1백환짜리가 있다。

그 값이 최고 2천5백원을 호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나온 돈 가운데 가장 비싼것은 舊韓末 光武10년 발행의 20圓짜리 金貨(16·678g)로 2천~3천만원이나 된다。

참고로 鑄貨의 진 역사를 잠시 되돌아보자。

물론 古代 그리스나 中國등에 비해 우리나라 鑄貨가 갖고있는 역사는 짧다。

그러나 西紀996년 高麗 成宗15년에 이미 鐵錢을 만들었다는 기록과 함께「無文錢·乾元重寶」등이 출토된 사실에서 한국주화의 역사가 그렇게 만만한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 高麗 肅宗때는 大臣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大覺國師 義天의 건의에 따라 본격적인 鑄造를 시작한 기록도 있다。

이것은 義天이 宋나라 유학시절 그곳의 화폐경제가 얼마나 이로운 것인가를 눈여겨 본 결과이기도 했다。

그 이듬해 肅宗은 宗廟에 告祀를 지낸후 海東通寶15만5천貫을 만들어 文武臣下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이 주화로 때마침 京內(松都)에 문을 연 酒食店의 값을 치르게 했다。

하지만 언제부터 紀念鑄貨가 발행됐는지는 알길이 없다。

이는 國內外 어느경우에서든 마찬가지다。

다만 서양에선 1923년 로마에 진주한 뭇솔리니가 그 1주년 기념주화를 만든것이 효시로 전해질뿐이고、우리나라는 高麗때 銀으로 만든「別錢」이 주조됐으나 이는 단지 몸에 차거나 新房에 거는 祝儀用에 불과한 것이었다。

기념주화의 발매성격은 가지가지。이스라엘처럼 外貨충당의 목적으로 되는 경우도 없지않다。

한때 이나라 歲入의 0·6%까지 이 기념주화가 기여했던 사실은 유명한 이야기로 전해오고 있다。

이것은 마치 모나코와 산마리노가 郵票발행으로 톡톡히 재미보는 경우와 흡사하다。

역사적으로 鑄貨에 文字나 무늬가 아닌 實存人物이 새겨진것은「알렉산더 銀貨」가 처음인것으로 알려져있다。

外國선 뭇솔리니의 로마進駐 기념이 효시

이 주화는 BC4세기께 알렉산더大王의 친구이며 部將이고 뒤날 이집트의 王이 된 프톨레마이오스1世가 大王의 偉業을 기리기위해 주조한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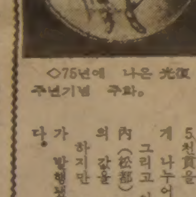
더욱 十字軍이 東方文明에 접하면서 1252년에 만들어낸 피렌체의 플로린 金貨는 그 정교한 조각으로해서 경실상부한 작품의 경지를 이루고 있기도하다。

아뭏든 이번 鑄貨이 발매한、鑄貨는 여러모로 큰 뜻이 부여돼 있다。

우선 제5공화국출범을 기념해 주조됐다는 점외에 그 제조나 도안、제조과정 모두가 우리 기술진에 의한 최초의 것이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주조된 45억원어치의 기념주화는 지난1월말 현재 화폐발행잔고의 0·23%에 지나지 않으나 이 돈이 그대로 死藏됨으로써 그만큼 통화가 회수된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車成万기자>


◇75년에 나온 光復 30주년기념 주화。

해외 걸작 만화

"건강하시려면 저희 회사 비타민을 드십시오"

◇비싼 여행비에 놀라 졸도한부부, 여기에 세금까지 붙으면…。

"실적표와 세일즈맨들의 표정"

"발가벗고 있으면 자연히 냉방이 되는 거야"

뉴서울
아늑한 분위기와
세련된 서비스
그리고
달콤한 음악은
뉴서울 만의
자랑입니다.
부인 모시고
친지들과 어울려
하루의 피로를 날려 버리세요.
밴드·가수·무용단 매일 공연함
장 소: 오리엔탈 팔레스2층
주 소: 529 BLOOR ST. W.
전 화: 533-3545-6, 533-1500

주식회사 황용현 부동산
(TOM HWANG REAL ESTATE LTD)
101 DUNCAN MILL RD., SUITE 404
DON MILLS, M3B 1Z3
전화: (B)449-8644, 8645(H)286-1548

부동산 BROKER
모게지 BROKER

금주의 새 리스팅

드라이크리닝사업
주매상 $3000 맥도날드 햄버거 옆,
$100,000다운, 가격 $150,000

건물달린가게
1)주매상 $6,500 3베드룸, 코너, 외국인 경영 50,000만 다운, 잔액 모게지 잡아줌, 가격 $220,000
2)주매상 $4,000 3베드룸 코너 가격 $129,000

바라어티
1)몬트리얼에 있는 주매상 $13,000 시간짧고 이윤좋은가게. $100,000다운 가격 $155,000
2)주매상 $3,700 일요일 닫고 주중 시간도 짧음, 그로서리 없으며 NET월수입 $3,000 가격 $35,000
3)바라어티와 픽업 드라이크리닝겸한 가게 월 순수익 $4,000 리스 월 $400 4년+5년 5년옵션.

꽃 과일가게
1)주매상 $3,500~$4,000 월 $550 담배와 티켓 포함되지 않음, 일요일 닫고, 주중시간 짧음, 현 외국인 경영 가격 $22,000

샵핑몰안에 있는 기프트 가게
년매상 약 170,000 가격 $80,000

이외 투자용 건물, 프라자및 GAS STATION 자리도 있읍니다.

종합예술제
때 : 1981. 8. 28(금), 29(토) 오후8시
곳 : HARBORD C.I. 286 Harbord St. at Bathurst)
요 금 : 일반($5.00), 학생($3.00)
예매처 : 종교서관
주 최 : K.I.V.F (한국기독대학생회)
종합예술제

Daily Newspaper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TEL.: (416) 533-2361

連載小說

스물두살의 자서전

金洪信 作 崔然石 畫

(37)

지난줄거리

떼치파의 칼 솜씨 좋다는 칼잡이에게 잡힌 춘찬이는 흥정하는 체 하면서 그들의 수법을 알아냈다. 그리고는 칼잡이 일행을 가둬놓고 H호텔로 떼치를 잡으러 갔다. 떼치는 밤무대 나서려는 여가수 나미와 육체의 향연을 벌이고 있다가 춘찬이에게 정말 떡이 되도록 맞는다. 춘찬이는 나미의 엉덩짝을 힘껏 내려치고 나온다. 나미가 떼그르르 굴렀다.

다혜의 절교선언은 내게 큰 충격을 안겨다 주었다. 한번도 다혜와 헤어지게 될 거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우리의 만남이 보통사람과는 다르기 때문이었다. 다혜는 내가 은주 누나네집에 입주한 것에서 부터 예민한 반응을 일으켰다. 숨김 없이 어렸을때 은주 누나를 사랑했었다고 고백한것이 화근인것 같았다.

『내가 그렇게 속 좋은 여잔줄 알았어. 은주 누난 분명히 누나야. 그 이상은 없어.』

내가 답답해서 이렇게 말했다. 다혜는 별로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누가 뭐랬어? 이제 우리 그만 만나자는 거지. 찬이더러 그 여자하고 이상한 관계냐고 따진거 아냐. 그런건 내가 상관할 일도 아냐.』

『그럼 갑자기 왜 헤어지자는 거야.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네 남고 한 집에서 살던 사람들도 싫으면 헤어지는 거야.』

『내가 싫어서 이러는 거니?』

『좋은데 그럴까.』

차가운 대답이었다. 나는 다혜의 그런 차가운 표정은 처음 보았다.

『내가 은주 누나네 집에서 나오면 되잖아.』

『왜 나와? 그렇게 편한 곳에서 뭐하러 나와.』

『장난하지 말고…내가 나오면 되잖아.』

『나오고 안나오고가 무슨 상관야.』

『그럼 왜 그래. 무슨 불만이 있으면 얘기해 봐. 내가 다 들어줄테니까.』

『내가 그렇게 속없는 여잔줄 알아? 치사하게 굴지말고 깨끗이 헤어져.』

표정이나 말투로 보아서 심상치않았다. 나는 다혜가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라고 단정했다. 은주 누나가 과부라는 것과 내가 그 집에 입주한 것을 묶어서 나쁜 상상력을 발휘한 것만 같았다. 그리고 은주 누나를 만나기 전부터의 내 아리송한 행적에 대해 믿음을 상실한 것 같기도 했다.

『난 하늘을 두고 맹세할 수 있어. 헤어져도 좋고 다시 안만나도 좋아. 그러나 분명히 밝힐 건 밝혀야겠어. 은주 누나하곤 추호도 양심이 꺼릴 게 없어.』

나는 정말 가슴을 열어보이고 싶었다.

『이거 왜 이래. 누굴 바보로 알아? 나는 뭐 눈 가운데 박힌 허수아비인줄 알아?』

『그럼 말해봐. 이유를 대봐.』

『찬이가 그렇게 뻔뻔스러울줄 몰랐어. 난 여태 그런 남잔 줄은 몰랐어.』

아까보다 표정이 더 굳어졌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은 완력으로 다루려고 하지마.』

다혜가 한발짝 뒤로 물러섰다. 내 표정에서 그런 완력을 느낀 모양이었다.

『헤어져도 좋다. 사연이나 듣자.』

나는 화가 치미는 걸 참고 이렇게 말했다.

『뻔뻔스러운 것도 정도가 있었으면 좋겠어. 말하라면 못할 것도 없지.』

『해봐.』

『이거 놔.』

『말해야 놓는다.』

『웃겨. 내가 찬이 맘대로 되는 물건인 줄 알아?』

『잔소리 말고 말해.』

『못할 거 없지.』

『어서 해봐.』

나는 다혜의 팔목을 움켜잡고 있었다. 죄없는 은주 누나를 화냥기있는 여자로 몰고가면 따귀라도 갈길 참이었다. 그리고 그런 누명만은 뒤집어 쓰고 싶지 않았다.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다혜가 그렇게 소갈머리 없게 나오는 건 봐줄 마음이 없었다.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는 여자였기 때문이었다.

『미나란 계집앨 모른다고는 않겠지?』

다혜 얼굴이 표독스러울이 만큼 침착해졌다.

『알아. 우리 주임교수 딸….』

『교수딸이란 걸 얘기하려는 게 아냐. 난 삼류 연속극 얘길 하는거야. 우리나라 텔리비전 연속극 보면 으례 사내 하나에 여자 둘이 붙거나 여자 하나에 사내가 두어명 붙는 거 몰라? 난 삼각관계 취미 없어. 더 얘기할 필요 없겠지.』

다혜는 손목을 뿌리쳐서 빼고 또박거리며 걸어 갔다. 나는 그 순간에

삼각관계는 싫어! 치사하게 굴지말고 깨끗이 헤어지지 主任敎授 딸이 아니라면 그날밤에 훔쳤을지 모르나!

난생 처음준 사랑이니 몽땅가져요, 나는 處女란 말이야 火傷입을것 같은 뜨거운입술이 그렇게 달콤할수 없고

힘이 빠지는 걸 알았다. 다혜를 붙잡을 힘이 없었다.

미나와 뜨겁게 끌어안고 입맞춤 한 것을 그 순간에 떠올렸기 때문이었다. 지금까지 한번도 그 뜨거운 입맞춤의 의미를 잊어 본 적은 없었다. 그러나 그때의 상황을 설명할 방법은 떠오르지 않았다.

생명이 끝장나는 그 순간에 그 한번의 입맞춤으로 나는 지하실에서 벌떡 일어나 밖으로 걸어나올 수 있었다. 죽음을 눈 앞에 둔 처절한 순간, 일어날 힘조차 빼앗겨 버린 폭행, 전신이 무감각하도록 매질을 당한 그 상황에서 미나의 입술, 그 뜨거운 입술은 나를 살려내는 마력을 지니고 있었다.

미나가 그렇게 뜨거운 열기로 내 입술을 끌어 당겼을 때 내 어디에서 그런 질긴 힘이 솟구쳐 올랐는지 나는 지금도 알 수가 없었다. 미나의 입맞춤으로 나는 생명을 건져냈었다.

다혜한테 몇번인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었지만 차마 할 수가 없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재주가 내겐 없었다.

그런데 다혜가 미나와의 일을 어째 안단 말인가?

설마 미나가 다혜에게 그런 걸 고백했을 리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다혜가 미나와의 일을 안다는 게 더 이상한 일이었다.

천국직행교 지하실에서의 뜨거운 입맞춤 뒤에 미나와 나는 두번 만났다. 한번은 병원에서였고 또 한번은 퇴원하고 사에 들어가기 전날 저녁이었다.

병원에서는 미나의 식구들과 함께 만나서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사에 들어가기 전날 저녁에는 미나가 특별히 나를 초청한 날이었다.

『오빠, 고마와요.』

미나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생기 있는 입술을 쳐다 보았다. 아버지를 닮았다면 크로마뇽인처럼 투박해야 마땅할 미나의 입술이었지만 내 생명을 구해줄 만큼 소담한 매력이 돋아있는 것 같았다.

『오히려 내가 고맙다. 까딱했으면 지금 미나와 얘기도 못할 뻔했으니까. 미나 때문에 살아났으니까 말야.』

『아녜요. 오빠, 제가 나 때문에 죽을 고비까지 넘기고…그래서 인사나 하려고 나오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어색한 만남이었다. 지하실에서의 그런 뜨거운 충동이 없었다면 이렇게 어색하지는 않았을 것같았다. 웬만해서 [illegible] 하지 않는 나였지만 이 자리만은 그렇지 않았다. 자꾸만 그 뜨거운 입술과 혀의 감촉이 되살아나곤 했다.

어색한 시간과 침묵의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는 하고 싶은 말을 더 하지 못했다.

미나는 제 취해 있었다. 잘 마시지 못하는 맥주를 겨우 마셨기 때문이었다. 나는 취하고 싶었지만 더 말똥말똥하게 의식이 깨어 있었다. 흐어진 얼굴, 가빠지는 숨소리, 깊게 내쉬는 한숨소리, 그리고 흐트러지는 자세. 그것이 미나의 술취한 행동이었다.

『그만 일어나자. 우리 그런건 몽땅 잊어버리자. 그건 젊은 시절에 한번쯤 해프닝을 벌였었던걸로 치부해 버리자. 자, 그만 일어나. 늦었어. 내가 바래다 줄께.』

미나는 일어나지 않았다. 못다한 말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사실 나도 그녀에게 할 말이 없는 건 아니었다.

좀 더 솔직하게 말하라면 그녀와 다시 한번 뜨겁게 포옹하고 싶었다. 내가 미나와 뜨겁게 부딪치고 싶은 것도 사실이었다.

『조금 더 있다 가요, 오빠. 나 어지러워서 그래요.』

그녀가 주임교수의 딸이 아니었거나 내가 다혜를 사랑하고 있는건 사실이지만 다혜를 사랑하고 있지 않았다면 그날 밤 나는 그녀를 훔쳤을지 모른다. 가슴 속에서는 그런 욕망의 끈이 자꾸 나를 붙잡고 늘어졌다. 나는 그 두가지의 제약 때문에 욕망을 겨우 달랠 수 있었다.

『늦었어. 집에서 기다리겠다.』

『늦게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나와서 괜찮아요.』

[illegible] 말할수 없이 [illegible]한 애련이 담겨져 있었다. 다혜보다 훨씬 섹시 [illegible]이 돋보이는 자태였다.

흔히 세상 사람들은 여자의 매력을 건강이나 지성, 얼굴의 생김새나 정신 따위라고 말했다. 물론 누구든지 나한테 여자의 매력을 물으면 그런거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내 본심은 그렇지 않았다. 매력있는 여자를 제일 먼저 손꼽으라면 내 말을 잘 듣는 여자라고 대답할 것이고 그 다음에 꼽는 것은 성적 매력이라고 자신있게 대답하고 싶었다. 그리고 세속적으로 매력있는 여자를 지칭하는 건강, 용모, 지성 따위는 그 다음 순서라고 말하고 싶었다.

확실히 여자의 매력은 성적매력에서부터 출발하는것 같았다. 도덕으로 무장한 가면 쓴 인간들이 하기 좋은 말로 어쩌구 떠드는게 나는 가소로와 못견디었다.

하나님. 인간의 마음 속을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는 특수촬영기나 안경 같은 게 없을까요?

사람 마음 참 알다가도 모르겠읍니다. 마음 속에 있는 본심을 숨긴채 도덕이나 윤리 같은 걸로 무장하고 사는 거야 인간사의 혼란을 막는 것이니까 이해한다 하더라도 주둥아리는 그렇게 놀리고 행동은 본심대로 해치우는 족속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런 안경 하나 만들어서 보내주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그렇게 되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아름다운 땅이 될텐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굳이 천당이나 지옥같은 무기로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보다 그 편이 훨씬 다스리기 쉬울겁니다.

미나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내가 미나의 손을 잡았다. 미나는 내 손목을 잡고 의자에 앉았다.

『왜 이래?』

『오빠, 할 얘기가 있어. 나 취했어. 취했다고 하는 소리가 아냐.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해봐.』

『나, 오빠 좋아해도 돼?』

가슴 끝이 찌르르 했다. 뒤통수를 한대 얻어맞은 기분이기도 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난 내 마음을 속이고 싶지 않아. 난…오빤 좋아해.』

목소리가 깊숙하게 가라앉았다.

『알아, 안다니까. 그러나….』

『다혜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냐, 그런 건 아니지만.』

내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나는 그 순간에 다혜보다 미나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심정적으로 편하다는 생각을 어째서 했는지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나는 다혜를 놓을 수 없다는 가슴 밑바닥의 소리를 들었다.

『그럼 내가 싫어서?』

취한 목소리치곤 너무 엄숙한 표정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잡힌 팔목이 행복해지는 걸 느꼈다.

『싫다기보다는… 우린 그런 사이가 아녔잖아. 우린….』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미나는 내 입술을 손으로 막았다.

『내 입술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오빠한테 준거야. 난 오빨 사랑해. 내 생명의 은인이라서 그런게 아냐.』

『알아, 안다니까 그래.』

『그럼 날 가져. 오빠꺼야, 난 오빠꺼야.』

『너 취했구나. 일어나. 어서!』

가슴속에서는 당기고 겉으로는 거부하는 내 이중성을 그 순간에 깨닫고 있었다. 내 자신을 내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를 갖고 싶었다. 내가 한마디만 하면 오늘밤 그녀를 조용히 가질 수 있을 것 같았다. 다혜처럼 훔칠 궁리를 할 것까지는 없었다.

『취하긴 아냐. 오빠, 난 취하지않았어. 내 입술을 처음 줬기 때문야.』

『그건…무슨 말인가 알지만…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오늘은 일단 돌아가고 맑은 정신으로.』

『오빤 치사해.』

『그런 게 아니래두 그래.』

『그건 아니지만.』

『다혜를 그렇게 사랑해?』

『그럼 뭐가 두려워. 두려울 거 없잖아. 오빤 남자잖아?』

『아무것도 두려운 건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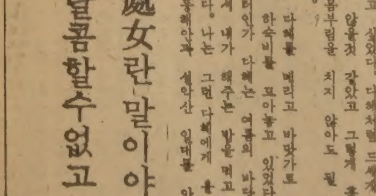
『그럼 날 다 가져버려. 오빠한테 다 주고 싶어.』

『제발 정신 차려.』

『난 멀쩡해.』

나는 어째서 다혜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발뺌을 하는지 알수가 없었다. 그녀에게 욕심이 남아 있어서 그런다는걸 나는 알고 있었다. 사실 나는 그녀를 갖고 싶었다. 아주 쉽게 갖고 싶었다. 다혜처럼 드세게 나오지도 않을것 같았고 그렇게 훔치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나는 다혜를 데리고 바닷가로 가기위해 하숙비를 모아놓고 있었다. 언제부터인가 다혜는 여름의 바닷가에 가서 내가 해주는 밥을 먹고 싶어 했다. 나는 그런 다혜에게 올 여름엔 동해안과 설악산 일대를 안내해 주겠다고 약속했었다.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텐트를 치고 나는 파도소리 따라 다혜의 가슴을 요동치게 할 셈이었다. 그리고 다혜를 훔칠 생각이었다. 여자에게 분위기만 만들어 주면 쉽게 넘어가는 거라고 믿고 있었다. 우리는 아직 한번도 한 방에서 단 둘이 자본 적이 없었다. 평소에 내가 그녀를 갖고 싶어도 그녀는 냉정하게 거절을 했지만 한 텐트 안에서 자게 되면 어쩌면 생각보다 쉽게 그녀를 소유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그녀를 훔칠 생각이었다. 그래서 못된 생각까지 품고 있었다. 그녀 음료수에 묘한 약이라도 타서 그녀를 내것으로 만들고 싶었다.

『오빠, 나 처녀야. 날 가져봐.』

미나가 내 가슴에 안겨왔다. 미나의 심장 소리가 드세게 울려왔다.

나는 미나를 밀어냈다.

『솔직하게 얘기할께. 솔직하게.』

미나가 고개를 들고 나를 쳐다보았다.

『널 좋아하고 싶어. 그런데 내겐 다혜가 있어. 다혤 나는 사랑해.』

미나는 고개를 숙였다.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단 말야.』

『그렇지만 계약된 건 아니잖아? 그렇지!』

『사랑하는데 무슨 계약.』

『그러니까 하는 소리야. 난 뺏을 거야. 오빨 뺏을 거야.』

『미나야, 이러지마. 정신 좀 차려봐.』

미나는 힘없이 주저앉았다. 그녀의 눈빛은 묘하게 일그러졌다. 불꽃이라도 일것 같았다. 우리는 그렇게 반시간이 넘도록 입씨름을 하고 있었다. 나는 미나를 어떻게 할수가 없었다.

『오빠, 그럼 좋아. 내 소원 하나 들어줄래?』

『그래. 무엇이든지.』

나는 괜히 들어주겠다는 약속을했다.

『손가락 걸어.』

미나는 새끼 손가락을 내밀었다.

『약속한 거다.』

나도 손가락을 내밀었다.

『그래.』

『키스해 줘.』

미나가 눈을 감고 말했다. 나는 망설인 채 앉아 있었다.

『첨엔 내가 했어. 되돌려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난 잘 수없어.』

미나는 눈을 감은 그대로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 순간 그녀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입술을 대었다.

미나는 무작정 나를 안았다. 그리고 뜨거운 입김을 뿜어냈다. 열기였다. 화상을 입을 것 같은 열정이 숨겨져 있었다. 나도 그녀를 끌어 안았다.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었다.

미나는 뒤도 안돌아 보고 택시를 탔다. 나는 하늘을 쳐다 보았다. 어두운 하늘 한 자락을 놓고 서있는 초승달이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나는 뛰어가서 다혜의 팔을 잡았다.

『다 얘기할께. 얘기할테니까 이리와.』

『듣고싶지 않아. 이젠 끝난 거야. 이거 놔. 창피하게 왜 이래?』

『변명이라도 하자. 사실을 알고 이해야 할 거 아냐?』

『알고 싶지 않아. 그리고 두번 다시 연락할 생각 마. 이전 이게 필요 없겠지.』

다혜는 내게 설악산행 관광버스 예약표를 내밀었다. 내 용돈과 그녀의 용돈이 도사리고 있던 버스표 두장이었다.

『너 정말 이럴 거야? 이유나 알고 헤어지든 갈라서든 해야 할 거 아냐.』

나는 염치없이 다혜를 끌어당겼다. 사람들이 우리를 힐끗힐끗 쳐다보고 있었다.

『창피하게 이러지마. 사내답게 굴어.』

다혜는 내 손을 뿌리치고 달려오는 택시를 세웠다. 문소리가 나고 그는 떠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 멍청하게 서 있었다.

<다음호에 계속>

俗談속엔 世態·処世·教育観이 담겨

俗談은「말중의 寶玉이며 말속의 꽃이요、말속의 별이다」고 俗談 극찬론을 펴는 학자도 있듯이 그 구슬같은 한마디 한마디엔 民族의 오랜 경험과 지혜가 단적으로 반영되고 있다。俗談이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쓰이기 시작한것은 朝鮮宣祖때 柳夢寅의「於于野談」에「俗談」이란 말이 나온것으로 보아 이때부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며 俚諺、俗諺、俗言、俚言、里言、常言、상네말씀、諺등으로 불리기도 한다。민족의 마음이 反映되고 民衆의 꿈과 삶의 슬기와 유머와 아이러니가 색동저고리의 무늬처럼 아로새겨져 있는 俗談言語가 人格형성에 미치는 영향등、俗談을 교육학적 측면에서 분석고찰한 禹盛永씨(東國大교육대학원)의 석사학위논문「俗談을 통해 본 한국인의 교육관」이 관심과 화제를 낳고 있다。

구슬같은 寶玉 9백개 추출、碩士論文 쓴 禹盛永씨

俗談엔 民族의 마음과 教育學的 가치 지녀

"초년 고생은 銀 주고 산다" 世態 단적反映

◇나쁜 벗들과 사귀지 말라는 교훈의 主人公으로「白鷺」가 등장한다。俗談들은 우리 주변의 自然을 곁들여서 敎訓을 준다。<「白鷺」柳智元畵>

◇禹盛永씨

◇俗談속의 世態觀

이 연구는 우리 문헌에 수록돼있는 俗談 7천여개 가운데서 교육의 德目에 포함시킬수있는 俗談 9백여개를 추출해 俗談言語가 가지는 가치와 현실적 의의를 世態觀、人性觀、處世觀의 측면에서 고찰했다.

첫째로 우리 俗談은 世態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의 배양을 목적으로▲고생끝에 낙이 온다 ▲초년 고생은 은 주고 산다 ▲물은 건너 보아야 알고 사람은 지내 보아야 안다 ▲한집 살아보고 한배 타 보아야 속 안다 ▲죽어보아야 저승 안다」등의 寸鐵殺人의 力動을 가진 言語를 탄생시켰다. ▲고기는 씹어야 맛을 안다▲제 앞에 안 떨어지는 불은 뜨거운줄 모른다」와 같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이야말로 완전하고 확실한 지식임을 암시하고 있다.

둘째로 경험은 인간능력에 변화를 준다고 보아 ▲길고 짧은것은 대어보아야한다▲내 말(馬)이 좋으니 네말이 좋으니 해도 달려보아야 안다 ▲본 놈이 도둑질 한다 ▲쓴맛 단맛 다 보았다라고 말함으로써 百聞이 不如一見을 體得케한다. 또한 ▲눈먹던 토끼, 얼음 먹던 토끼가 다 각각 ▲이웃집 처녀도 내 부엌에 들려 세워보아야 안다」고하여、경험한 환경에 따라 그 능력과 행동에 차이가 있음을 가르친다. 여기서 더 나아가 體驗으로 쌓은 지식이야말로 값진것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늙은 개는 공연히 짖지 않는다 ▲山戰水戰 다 겪었다는 속담을 낳았다.

세째 좋은 人的環境의 선택과 信義의 교육을 강조하기 위해 ▲눈감으면 코베어먹을 세상▲눈뜨고 코베어갈 세상▲간에가 붙고 염통에 가 붙는다▲大監죽은데는 안가도 대감 말 죽은데는 간다▲한 솥의 밥먹고 訟事간다」는 속담을 낳았다。信義나 正義를 저버리고 利己로 치닫는 인심을 배척하면서 機會主義的 인간세상이 될까 우려하는 속담으로▲남산골 샌님이 역적 바라듯▲등겨먹던 개는 들키고 쌀먹던 개는 안들킨다」며 비꼬았다。▲개도 무는 개를 돌아본다는 속담 역시 不義와 惡한 사람에게 害를 당할까 두려워 이를 모르는체하고 동조하는 세태를 警告하는것。

다음은 人性觀에 따른 俗談。

◇人性觀과 俗談

人性이 교육에 의해 어떻게 변화될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교육해야 할것인가를 내포한 속담이다。

첫째 人性은 재능과 신체적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고 俗談을 통해 알수있다。즉 ▲굼벵이도 구를 재주는 있다 ▲눈 작은 메기도 저 먹을것은 안다 ▲제비가 작아도 강남 간다」등은 하찮은 微物을 예시하여 재능이 하잘것 없더라도 이를 잘 살린다면 人性의 변화와 人性의 발달은 가능하다고 보고있는 것이다。

둘째 人性은 유전적인 本性및 성장환경요인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는 속담이다。즉▲게 새끼는 집고 고양이새끼는 할퀸다▲밤에 보아도 낫자루、낮에 보아도 밤 나무 ▲개꼬리 삼년 묵어도 黃毛 못된다▲고름이 살되나▲나무접시 놋접시 될까▲사람은 雜技를 해 보아야 마음을 안다 ▲송충이가 갈잎 먹으면 죽는다▲그 아버지에 그 아들 ▲개가 개를 낳지▲조개껍질은 녹슬지 않는다등이 그것。─다시 말해 사람이 태어날때 가지고 나오는 人性은 그가 지닌 本性과 결부돼 교육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상태에서는「개꼬리 삼년 묵어도 황모 못된다」와 같이 자발적인 행동변화가 거의 불가능하다。사람성장에 미치는 환경의 영향이 중요함을 인식케 하는 속담들인것이다。

세째 人性은 반복되는 습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속담들이 있다。즉▲개살구도 맛들일 탓이다▲쏜 베도 맛들일 탓이다▲솔개 어물전 돌듯▲고기도 저 놀던 물이 좋다 ▲중이 고기맛을 보더니 절의 빈대를 안 남긴다▲素症(채소만 너무 먹어서 고기가 먹고싶어 생긴 증세)나면 병아리만 쫓아도 낫는다」등은 食生活을 비유해서、인간의 반복되는 습관이 인간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것이다。아울러 관심없이 보아넘긴 버릇이 급기야는 돌이킬수없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경고의 교훈을 주고 동시에 早期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속담이 있다。즉▲늦게 배운 도둑질이 날새는 줄 모른다▲늦바람이 곱새를 벗긴다▲바늘 도둑이 황소도둑된다▲개 겨 먹다가 필경 쌀 먹는다▲어질병이 지랄병 된다▲색시 그루는 다홍치마적에 앉혀야 한다▲아내행실은 다홍치마적부터 그루를 앉혀야한다 (紅裳教妻) ▲행랑을 빌면 안방까지 든다▲세살버릇 여든까지 간다등이 그것。

한편 한번 몸에 밴 직업도 습성화되면 끝까지 버릴수없음을 말해주면서 성실한 직업관을 알리는 人性觀의 속담으로 ▲농사꾼은 굶어도 종자는 베고 죽는다 ▲백정이 버들잎 물고 죽는다는 말이 있다。

人性은 사회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영향권밖으로 벗어날수 없다고 보는 속담으로 ▲참새가 방앗간을 그저 지나가지 못한다 ▲제버릇 개줄까 ▲보자보자하니 얻어온 장(醬)한번 더 뜬다▲버릇을 배우라니까 과부집 문고리 빼들고

"서당 개 삼년에 풍월한다" 人性도 變하고

엿장수 부른다▲집에서 새는 바가지 들에 가도 샌다▲굿들은 무당 재들은 중▲장비는 만나면 싸움등이 있다。

그러나 교육여하에 따라 人性은 그 본질적인것을 제외하고는 환경요인에 따라 변화될수있음을 시사하는 속담이 있다。▲서당개 삼년에 풍월한다▲독서당 개가 맹자왈 한다▲소리개도 오래면 꿩을 잡는다 등이 그것。

◇處世觀과 俗談

끝으로 處世觀과 관련되는 俗談―세상을 살아 갈 일에 대해 필요한 방법과 處身및 교훈에 관계되는 사항、즉 처세술및 처세교훈등이 담긴 속담으로 첫째 自身을 省察하는 습관과 경거망동하지 말것을 당부하는 것을 들수있다。즉 ▲올챙이 개구리된지 몇해나 되나 ▲올챙이적 생각은 못하고 개구리 된 생각만 한다 ▲아이 자라 어른 된다 ▲며느리 자라 시어미 되니 시어미티 더 한다등이 그것。

또한 일반 세태인심들이 제 허물 큰 줄은 모르고 남의 작은 허물만 물고 늘어지는 어리석은 행동을 지적하고、自己修養의 길이 끝이 없는 것임을 알리는 속담으로▲제 똥 구린줄 모른다▲숯이 검정 나무란다 ▲가마솥이 노구솥을 검다고 한다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거린다고 한다 ▲샛바리 짚바리 나무란다 ▲똥싼 주제에 매화타령한다 ▲국수 못하는 년이 피나무 안반 나무란다▲서투른 무당이 장구만 나무란다등이 있다。

둘째로 속담은 寬容의 美德을 일깨운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친 사람은 다리를 오므리고 자고 맞은 사람은 펴고 잔다 ▲독을 보아 쥐를 못 친다등이 그것。

自己修養의 길이 끝없음을 알리는 俗談에 "올챙이 개구리된지 몇해나되나" 處世觀도

세째로 處身을 함에 있어서 확실한 정보및 지식의 습득을 당부한다。즉▲새도 가지를 가려 앉는다 ▲나를 칭찬하는 자는 나의 적이다▲얇은 내도 깊게 건너라 ▲구운 게도 다리를 떼고 먹는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아는 길도 물어가라 ▲늙은이도 세살 먹은 아이 말 귀담아 들어라 등이 그것。

네째로 세치 혀끝을 잘못 놀려 자신과 주변에 나쁜 영향을 크게 미치게 하는것을 경고하고 있다。즉▲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말은 적을수록 좋다▲말이 많으면 쓸말이 적다▲말 많은 집에 장맛이 쓰다등은 모두「세치 혀로 다섯자 몸을 죽이는」경박한 처세에 쐐기를 박기 위한것。西洋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보이는것으로「남의 좋고 그름을 말 하는 자는 密事를 누설한다」、또「친구의 비밀을 아는것은 좋지만 말해서는 안된다」등등에서 보듯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言行에 대한 조심이 당부되고 있다。

특히 對人관계나 이웃간에 일어나기 쉬운 분쟁이나 처신의 어려움은 말을 잘 못한데서 나타나는것이 많다고 보고 이에 관한 俗談이 적지않다。즉▲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웃으며 한 말에 초상난다▲남의 말이면 쌍지팡이 짚고 나선다 ▲살(矢)은 쏘고 주워도 말하고 못 줍는다▲말은 갈수록 보태고 封送은 갈수록 준다▲음식은 갈수록 줄고 말은 갈수록 는다▲못바른 짐은 써도 입바른 짐은 못쓴다▲입은 밥먹고 선소리 한다▲발없는 말이 천리 간다 등이 그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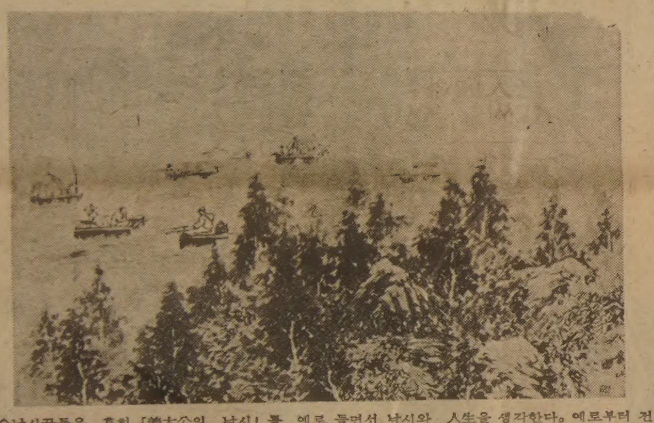
다섯째로 속담속의 協同心 함양부분。즉▲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도둑질도 손이 맞아야 한다▲두 손뼉이 맞아야 소리 난다▲외손뼉이 못 울고 한 다리로 가지 못한다▲열의 한술 밥이 한 그릇 푼푼하다등이 그것。

◇兒童觀

우리 속담에서 아동교육을 위하여 언급한것이 어떤것인지를 분석해본것으로 첫째 有用한 인간으로 유도하기 위한 속담이 있다。▲열 소경에 한 막대▲개천에 내다버릴 종 없다 ▲굽은 가지는 길마가 된다▲빰맞는데 구레나룻 한 부조▲언제 쓰자는 하눌타리냐등이 그것。우리의 兒童觀에 의하면「열 소경에 한 막대」라고 하여 사회에 꼭 필요한 有用한 인간이 되어줄것을 당부하고 있다。또한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지 말기를 간접적으로 일러주는 속담으로▲짚신에 丁粉칠▲거적문에 돌쩌귀▲돌담 배부른것▲사발 이 빠진것▲중의 빗이라는것이 있다。

둘째로 論理的思惟의 생활화를 요구하는 속담이 있다。▲가는 년이 물 길어다 놓고 갈까 ▲그물이 삼천코라도 벼리가 으뜸 ▲꿈보다 해몽 ▲마소의 새끼는 시골로、사람의 새끼는 서울로 ▲머리를 삼으면 귀까지 익는다 ▲무는 호랑이는 뿔이 없다등이 그것。「호랑이는 날카로운 이빨로 무기를 삼으니 당연히 뿔은 없을것」이라는 이치를 알려줌으로써 논리적 사유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다。

세째로、아동들에게 自主性을 함양시키고 있다。▲권에 못이겨 방립쓴다 ▲남이 장 간다고 하니 거름지고 나선다 ▲친구따라 강남간다 ▲숭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 ▲렬도 없이 부얼부얼 한다라고하여 간접적으로 主體性을 가르치고 있다。



◇낚시꾼들은 흔히「姜太公의 낚시」를 예로 들면서 낚시와 人生을 생각한다。예로부터 전해오는 속담들은 이렇듯 우리에게 反省과 생활의 지혜를 일깨워 주고 있다。<「江邊」金東洙畵>

네째로 근면생활을 습성화시킨다。▲가을 일은 미련한 놈이 잘한다▲개미 금탑 모으듯한다▲거지도 부지런하면 더운 밥을 얻어 먹는다▲부뚜막의 소금도 집어 넣어야 짜다▲돌쩌귀에 녹이 슬지 않는다 ▲귀 먹은 중이 마 캐듯▲부지런한 물방아는 얼 새도 없다▲땀 아니 흘리고 유복하랴가 그것。

우리 속담 속의 兒童觀은 단순히 아동들에게 언어교육이나 말 놀이에 그치지 않고 생애교육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게 특징이다。

◇教師觀

교사란「栗谷의 밝은 눈」、退溪의「찬 머리」、元曉의「뜨거운 가슴」을 지닌 자라 규정지을 수도 있다。따라서 자신의 인격도야 및 교수활동에 필요한 준비를 갖춰야한다。이에 관한 속담으로▲웃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꼭뒤에 부은 물이 발뒤꿈치로 내린다▲금강산 그늘이 관동팔십리▲개장수도 올가미가 있어야 한다등이 있다。

다음으로 교수활동의 어려움을 의지와 신념으로 극복하는 사명인으로서의 교사를 비유해 ▲물은 트는대로 흐른다 ▲初學훈장의 똥은 개도 안 먹는다▲生馬잡아 길들이기 ▲송아지 천자가르치듯 ▲물이 깊어야 고기가 모인다 ▲산이 깊어야 골이 깊다 ▲대문턱 높은 집에 정강이 높은 며느리 들어온다등이 있다。

다음은 教育內容觀고찰。어떤 내용과 방법을 적용시켜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느냐 하는 과정이 교육의 힘이고 사명이며 이는 교육의 내용으로 결정된다。우리 속담은 첫째 誠의 교육으로―

▲공든 탑이 무너지랴▲돌도 십년을 보고 있으면 뚫린다 ▲銘心하면 명심덕이 있다 ▲정성이 있으면 한식에도 세배간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등의 속담을 낳았다。이것은 요령주의、적당주의에 대한 경고도 포함한다。

"땀 아니흘리고 유복하랴" 勤勉생활 反映

"물은 트는대로 흐른다" 教授의 使命 비유

다음 仁義교육으로―

▲殺身成仁▲큰북에서 큰 소리난다▲숲이 깊어야 도깨비가 나온다▲길 아니거든 가지 말고 말 아니거든 듣지 말라。

목표를 향한 학습의 노력과정에서 內的充實을 위한 교육방법관으로―

▲꽃구경을 하려면 계면떡이 나오도록 해라▲산 까마귀 염불한다▲낙수물이 댓돌을 뚫는다▲무쇠도 갈면 바늘이 된다▲먹돌도 뚫으면 구멍이 난다고 했다。동시에 학문하는 방법의 어려움과 신중함을 알려주기 위해▲반식자 우환▲반풍수 집안 망친다▲선 무당이 사람 죽인다라고 말한다。

또한 知的 修養의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벼슬은 높이고 뜻은 낮추어라▲窮(구멍)에든 뱀 길이를 모른다▲물이 깊을수록 소리가 없다▲곡식 이삭은 잘 될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여 知的수준이 높을수록 思惟를 중히 여기는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적극적 실천주의 교육방법을 대하는 속담으로、교육을 받은 사람은 무엇보다도 실천이 앞서야 한다고 보았다。즉 ▲겁진 상치 않게 호랑이를 잡을까▲범굴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범새끼를 잡지 못한다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글까 ▲어린아이 예뻐 말고 거드랑이 밑이나 잡아주어라 등이 그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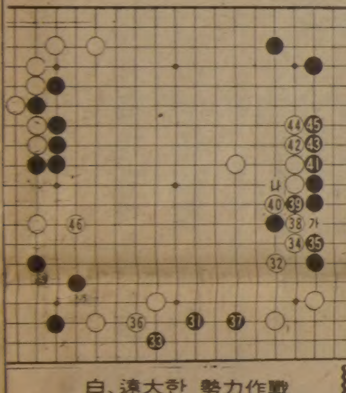
이처럼 우리의 속담은 言語民衆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표현하면서 민족의 마음이 반영되고 꿈과 삶의 슬기를 지닌 지식적 유산이 되고 있다。따라서 앞으로 教育現場에서 그 적극적 응용도 생각해볼 수 있을것 같다。

<[illegible]기자>

꽃도매상
437
CARLAW ST.
☎465-8167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1局 第3譜 31~46 (각 5시간 덤 5집반)



白、遠大한 勢力作戰

白(6段) 徐能旭
黑(4段) 姜 勳

기사들도 해마다 여름한철은 피서를위한 휴식이 필요하다。이래서 해마다 7월달에 미리 여러판을 두어놓게 마련인데 이바둑도 예에따라 7월21일 한국기원 특별대국실에서 두어졌다。

그러나 일찌감치 기승을부리는 더위로 말미암아 실내의 에어컨 하나만으로는 견디지못할 지경이었는데 이들 두결은이는 以熱治熱식으로 판에 다 넋을쏟기 시작한다。

접전의출발점은 바로 黑31。하변白진의 영성한곳을 姜4단은 진작부터 노리고있었는지 노타임으로 찍어놓았다。순간 徐6단은 피로운표정。불과 2분만에 결정한 白32는 일종의궁여지책인가 싶어보였다。

『白32는 조급했다。우선 33자리에 참아두고 黑37때 白32라야 편했다』는 국후중론。왜냐하면 黑33이 너무도 편하여 白의 근거가 일순에 무너진때문이다。

물론 徐6단으로서는 또하나의 원대한 작전이 있었다。白34에서 38까지로 중앙을 제압한 세력이 이상적。

黑은 당장 눈에띄는 白「가」의 허를 보강할 요량으로 41、43에 기어나갔다。이수는 姜4단이 10분이나 신중하게 생각한 보람으로 우변에 착실한 실리를 확보해서 성공한것처럼 보여지는데 국후검토에서는 평이 좋지않았다。

『黑43은「나」의곳을 선수하고 곱게「가」의곳을 이어놓만 못했다』이것을 좀구체적으로 부연하면 黑45까지로된 우변은 납작한집이어서 대단치않고 오히려 白44까지의 세가견고해서 黑이 불만이란얘기다。드디어 白46。멀리 우측의 철벽을 바라보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一凡】

演藝話題

세계最初 집시映畫 日本人촬영 公開해

세계최초로 집시의 일상생활을 생생하게그린 다큐멘터리영화가 이달말 오오사까에서 일반에게 공개된다。

『마이라이프 더 집시즈 인 어 캐러밴』이란 제목의 이 영화는 수이다에있는 국립민족학박물관에서 보조연구원으로 일하고있는 38세의 오모리·야스히로씨와 그의부인 37세의 기미에씨가 74년과 76년에 촬영한것이다。

이들 부부는 1백명이 넘는 한가족을 이끌고 북부프랑스를 옮겨다니는 집시캐러밴을 도합 두달에 걸쳐 자동차로 따라다녔다。

印度에서 생겨난 집시는 6세기경부터 어떤이유로 유랑생활을 하기시작、14세기에 유럽에 도달했다。약 2〜3백만으로 추산되는 이들집시는 中國과 日本을 제외한 거의 전세계 어디나 방황하고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오오사까=[illegible]】

뉴스·안테나

社會 長期 매복간첩 2명檢擧 사회혼란 획책、暗躍해와

치안본부는 北傀의 지령을 받아 서울등지를 거점으로 주요 군사시설과 국가기밀을 탐지하고 사회혼란을 획책、소위 결정적 시기조성을 위해 암약중이던 장기매복 고정간첩 2명을 검거해 12일 서울지검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6·25당시 월북자로서 北傀고위층에있는 金鍾相(일명 金松武·48)이 62년 연고지에 침투하여 자첩망을 부식했다는 첩보를 입수、1년3개월간에 걸친 수사끝에 金에게 포섭돼 간첩활동을 벌이고 있는 羅讚(48·상업)과 羅水淵(여·53·의상실경영)을 지난달25일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 간첩 일당이 金浦·濟州공항 규모와 각 항만의 경계상황、각급 군부대 위치등 군사및 중요시설의 경비상황등 국가기밀을 탐지、보고하고 위장업체인 한양상사를 열어 三星전자 특허파장 金南國등에게 20만원을 제공、三星전자등 4개업체의 거래자 1천7백여명의 명단을 입수해 동조자를 물색하는등 암약해 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간첩사건이『北傀가 6·25당시 남한출신으로 월북한자를 간첩으로 선발、연고지에 침투시켜 동조자를 포섭하거나 연고자를 대동월북、단기 교육을시켜 간첩으로 다시 남파시킬것을 획책한것』이라고 밝혔다。

▲羅讚(48)은 62년6월부터 7월사이 간첩 金鍾相(48)에게 포섭되어 공작금 27만5천원 받음。63년1월 金과 함께 월북하여 木浦항 해군기지사령부 경비상황등을 제보하고 노동당에 입당한후 동년2월 仁川에 다시 잠입。67년6월 [illegible] 정보자료를 간첩 金에게 보고、72년부터 77년까지 金浦·濟州공항 경비및 검문상황등 기밀탐지、80년12월 漢陽상사를 개설한후 三星전자 특허파장인 金南國등에게 20만원을 제공한바있다。

▲羅水淵(여·53)은 62년7월 간첩 金에게 포섭된후 공작금 39만원받음。66년4월 외숙모인 張仁順(53)을 포섭、간첩 金에게 인계、77년부터 81년까지 濟州·原州등지를 내왕하면서 金浦및 濟州공항 경비·검문상황、서울―原州및 春川간 검문소 위치및 검문상황、군부대위치등 탐지。

海外 美 極東서도 中性子彈 사용 北傀 대규모 南侵 경우도

美國은 유럽에서뿐만아니라 中東과 極東의 분쟁지역에서도 中性子彈을 사용할 의향이라고 한 美國防省대변인이 말했다。

이대변인은 대량인명살상무기인 中性子彈을 생산비축키로한 레이건대통령의 최근 결정에 관해 논평하는가운데 그같이 말했다。

또 美國은 만일 北傀가 탱크등동원 南侵을 할경우 韓國에서 中性子彈을 사용할것인가라는 한 기자 질문에 답변하기를 회피하고 다만 美國이 中性子彈을 사용할 경우 美盟邦들과 사전 협의할것이라고만 말했다。

이 대변인은 레이건대통령의 中性子彈생산에 관한 결정이 약 2주전에 내려졌다고 밝히고 이 결정은 日本을 포함한 美盟邦들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日本정부는 레이건美대통령의 中性子彈 생산·비축결정이전에 이 사실을 美國정부로부터 통보받았다는 설을 부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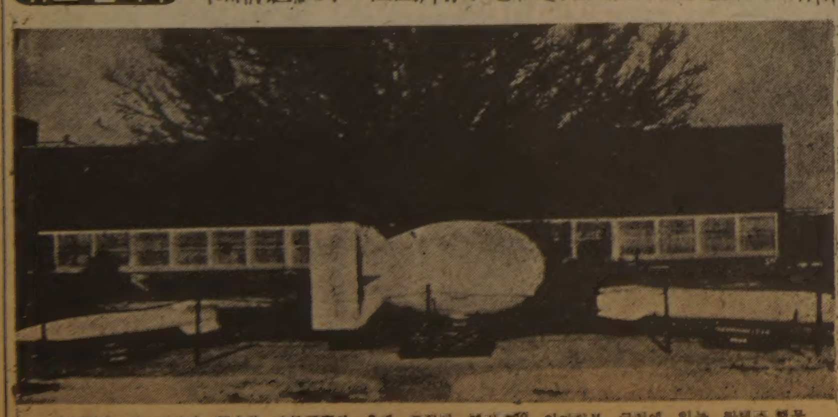
미야자와·기이찌(宮澤喜一) 日本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8일 레이건대통령에 의해 中性子彈 생산·비축결정사실이 공식발표될때까지 美정부측으로부터 사전통보를 받은바 없다고 밝혔다。

美국방성의 한 대변인은 美國의 中性子彈 생산재개결정이 2주일전에 내려졌으며 이같은 사실이 日本을 포함한 맹방에 사전에 통보됐다고 밝히고 美國의 中性子彈이 앞으로 비상시에 유럽뿐만 아니라 中東및 극동에도 배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워싱턴 발신 보도들이 전했다。

한편 美國은 연말께로 예정돼있는 유럽배치 核무기제한에 관한 對蘇협상을 약속대로 시작할것이나 이협상에서 中性子彈생산결정을 흥정대상으로 삼지는 않을것이라고 밝혔다。이 관리들은 蘇聯과의 核무기제한 협상이 中性子彈과 같은 戰域무기가 아닌 중장거리 核미사일의 제한문제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美國이 11월말이나 12월께 유럽 배치 중거리 核미사일제한에 관한 對蘇협상을 시작하겠다는 약속을 행할것임을 맹방국들에게 다짐하고 있으나 이 협상에서 中性子彈생산결정을 흥정대상으로 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나토가 軍縮을 추구하는 한편으로 나토의 核전력을 현대화하기로한 79년의 결정을 계속 추진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美國이 풀 생산에 착수한 中性子彈의 3개 모형이 텍사스州 아마릴로 근처에 있는 판텍스 핵무기조립공장에서 전시됐다。

全大統領사촌동생등 5명拘束

全禹煥씨 詐欺團體에 利用당해

땅 萬餘평 寄贈받고 巨額詐取

그린벨트解除 "福祉시설" 속여

老人福祉會 玄씨등 4명

◇ 대통령의 인척을 앞세워 사기극을 벌인 일당。관계기관과 지도층 인사들을 당당하게 만나 청탁하던 얼굴이 신문사 카메라 앞에서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대통령4촌동생과 노인들의 종합복지시설을 건립하겠다던 한국노년복지자조회(가칭) 간부4명등 5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시경은 19일 全대통령의 4촌동생 全禹煥씨(48·한국양곡협회 중앙회장·서울道峰區 月溪1洞 신동아아파트 12棟203호)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全씨를 끌어들여 사업에 이용한 한국노년복지자조회장 玄村燮씨(58·전과2범·전서울시 사회과장·서울江東區 夏室시영아파트 38棟408호)와 부회장 全相根씨(54·동남제약이사·서울鍾路區 苑西洞 77의6) 총무위원장 安炅太씨(49·서울恩平區 鷹岩洞8의30) 한국양곡가공협회 전무이사 全尙奉씨(49·서울 銅雀區 上道洞335의58)등 4명은 사기및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범 玄씨는 지난해 12월 서울中區 舊場洞 한양스튜디오 빌딩401호에 가칭 한국노년복지자조회라는 사무실을 차린후 全禹煥씨에게 접근, 사무실 운영비등을 사주어 자기들 사업에 대통령 인척이 관여하는것처럼 꾸민뒤 서울道峰區 牛耳洞山63의1에 있는 스카라극장 대표 金昌根씨 소유 그린벨트지역 8만6천8백42평을 해제시켜 준다고 속여 20%에 해당하는 1만7천여평(싯가50억원)을 무상으로 기증받았고 이곳에 대규모 노인아파트와 복지시설을 건립한다고 선전했다。玄씨는 아파트입주와 의료혜택권, 공사청부등을 준다는 조건으로 병원장등으로부터 4천7백만원을 받아 썼다는것。

한편 全禹煥씨는 玄씨등의 사기행각을 모른채 사무실과 집기등을 제공받은뒤 당파랑께 보사부등 관계장관을 방문, 사단법인체로 등록 인가해줄것을 청탁했다。

【玄村燮】 사기극의 주범 玄씨는 5·16혁명1주년기념사업박람회 기획국장, 담군중령회부회장, 한국경로복지회장등 사회사업가로 행세해오다 지난해 10월 스카라극장대표 金씨의 牛耳洞 땅이 그린벨트에 묶여있다는 사실을 알고 본격적인 사기극을 시작했다。

玄씨는 지난해 11월2일 스카라극장에서 金씨에게 그린벨트 해제와 판매 허가를 책임지고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1만7천3백68평을 기증받기도 했다。

玄씨는 또 지난4월17일 회등 각계 저명인사 1백30명을 고문 또는 자문위원으로 추대, 그중 69명의 승락을 받은뒤 지난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각계인사 1백1명을 초청, 창립총회까지 성대하게 열었다는 것이다。

【全相根】 全씨는 주범玄씨와 공모, 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난7월16일 韓亞전기주식회사가 시공중인 서울恩平區 增山洞244의2 아파트 2세대를 韓亞전기회장 崔珍藍씨에게 4천만원에 매수키로하고 선금3천만원을 준것처럼 허위양도계약서를 작성한뒤 忠南舒川郡庇仁面 大里76 黃恩官씨에게 권리를 그대로 양도한다고 속여 계약금조로 3백만원을 받았다。

【安炅太】 지난 5월부터 총무위원장으로 가담, 이단체의 회 정무이사로 있으면서 한국양곡가공협회 부회장으로 있으면서 지난7월10일 玄씨로부터 한국노년복지자조회 사무실의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61만5천원어치의 응접세트와 집기를 받았으며 7월20일 서울鍾路區 體府洞 大泉요정에서 6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

【全禹煥】 全씨는 주범玄씨등과함께 보사부장관을 방문, 노년복지회를 등록단체로 인가해달라고 청탁했다는 것이다。

【全尙奉】 자문위원으로 추대받고 玄씨를 대동, 지난7월24일 보사부차관을 방문, 사단법인체로 등록인가해줄것을 청탁했다。

★관련기사10면

OPEC閣僚會議개막

油價 單一化방안 未合意

産油量 조정등 重點토의

【제네바18日UPI·聯合=聯合】 석유수출기구(OPEC) 13개회원국 석유상들은 19일 하오5시(한국시간) 제네바에서 긴급각료회의를 열고▲현재 배럴당32달러(사우디)~40달러(알제리·나이지리아)로 다원화돼있는 유가를 단일화하고▲세계석유시장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위해 산유량을 적정선으로 유지하는문제등을 중점토의한다。

회담에서의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유가단일화방안을 사전조정하기위해 지난 17일부터 비공식 예비회담을 벌여왔으나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하지못한채 19일 공식회담에 들어갔다。

OPEC 각료회의의장인 수브로토인도네시아석유상은 현행 유가를 배럴당 34~37달러선으로 융통성을 부여하자는 타협안을 제시하면서 인도네시아는 배럴당 36달러로 돼있는 현행유가를 인하할 생각이없으며 현행유가를 계속 고수한다 하더라도 석유판매에는 하등의 지장이없다고 밝혔다。

權民正사무총장 어제下午에出國

民正黨의 權正達 사무총장은 오는 9월13일까지 미국 日本 멕시코를 방문하기위해 19일 하오6시 KAL機로 떠났다。

權총장은 19일부터 22일까지 日本에 머무르면서 스즈끼(鈴木)수상등 정부및 自民黨지도자들과 회담을갖고 양국간의 현안문제를논의한다。

오늘 韓日外相會談

이틀동안 東京서

東北亞정세 經協논의

【東京19日=宋孝彬특파원】 불편했던 韓日관계를 정상화시키는 첫공식회합인 韓日外相회담이 20·21일 이틀동안 일본외무성에서 열려 한반도를 중심으로한 東北亞정세와 경제협력문제등 양국의 현안문제를 협의한다。

盧信永외무장관은 20일 낮 崔昌洛 경제기획원차관등 10명의 공식수행원과 함께 KAL편으로 나리따(成田)공항에 도착, 이날 하오3시30분부터 45분동안 전체회의를 가진뒤 20일과 21일 두차례에 걸쳐 소노다(園田直)외상과 단독회담을 갖고 일본의 對韓인식과 經濟協力문제에 관해 솔직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盧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對共防衛가 美日방위의 防波堤」라는 관점에서 韓日 양국은 공동운명체임을 재확인하고 이같은 對韓인식을 바탕으로 韓日경제협력 방안과 규모를 처음으로 공식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두차례의 外相회담에 제기될 經協의 내용에 관해서는 22일의외무성실무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다。여기서 일본측은 崔昌洛차관으로 부터 내년부터 실시될 제5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에 관해설명을들을예정이다。

소노다外相은 韓日외상회담에 임하는 18, 19일의 對「한국의 방위가 美日방위의 방파제」라는 全斗煥 대통령의 韓半島觀에 대해 「주관적으로는 공정적인 점이있다」고 일단 이해를표시하고 「그러나 安保를 대신하는 명목으로는 경제협력을 할수없고 상호의존관계에 따라 가능한 한 경제협력에 응한다」는 태도…

봉황대기고교야구

오늘의對戰 (20日)

▲3회전

淸州高—在日(12시반)

全州高—釜山高(3시)

어제의成績 (19日)

▲3회전

普成高	0	1	0	0	0					1
大邱高	2	2	8	2	X					14

〈5회콜드게임〉

北一高	4	0	1	1	0	0	0	0	0	6
仁川高	0	0	1	0	0	0	0	0	0	1

한독양말 협찬

海雲臺 백사장면적 넓혀

천5백m 녹지 없애기로

【釜山=聯合】 釜山해운대구청은 국내최대의 해수욕장인 해운대해수욕장의 백사장면적을 넓히기위해 현재 백사장위에있는 길이 1천5백m 폭25~40m의 시설녹지를 없애고 이를 모두 백사장으로 사용키로했다。

이 시설녹지는 지난63년 백사장을 막아 모래위에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시설만 철거하면 백사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돼있는데 해운대구청은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공사에 착수, 내년 해수욕철까지 공사를 끝낼 계획이다。

해운대해수욕장은 백사장 면적이 현재 3만4천5백여평인데 이 공사가 끝나면 5만4천여평으로 늘어나며 폭도 현재의 35~50m에서 80m로 넓어진다。

해운대구청은 이와함께 현재 1백여평밖에 안되는 임해행정봉사실을 헐고 연건평 6백여평의 현대식 3층건물을 지어 이곳에 바다경찰서, 임해우체국, 교회의교회지도한, 바다세무서, 바다철도청, 고속버스사무소, 라디오보도실등을 함께 설치, 임해종합봉사실로 운영할 방침이다。

공무원 無事安逸 腐敗보다 나빠

쇠고기등 流通구조를 전면改編

全대통령, 忠南·全南北시찰 秋夕生必品 安定공급

◇19일 忠南과 全南北지방시찰에나선 全斗煥 대통령이 농사현황을 살펴보고있다。

【光州】 全斗煥대통령은 19일오전·오후에 걸쳐 忠南論山, 全北金堤, 全南長城일대의 벼농사 작황을 돌아보고 전남도청에 들러 金宗鎬全南지사로부터 당면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우리나라의 토양이 극도로 산성화 되어있으므로 퇴비증산에 힘써 토양을 개량하는데 적극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全대통령은 또 「오는 추석에대비 쌀, 쇠고기, 돼지고기등 생활필수품 가격의 안정과 공급에 만전을기하라」고 관계관에게 지시하고 「공무원 처우가 현실적으로 볼때 만족스러운 것으로 알고 있으나 유동적인 80년대 국제경쟁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이를 참고 이겨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공무원 자세를 더욱 굳건히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全대통령은 「최근 물의를 빚은 쇠고기와 돼지고기가격과 공급문제는 정육점을통한 일방적인 유통구조를 전면개편, 가격과 공급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오는 추석에는 소비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하라」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어 「생활이 어렵다고해서 공무원이 경탁하고 부패하게되면 아무일도 못하게되는것은 물론 국민과의 화합도 이룰수없는것」이라고 지적 「공무원이 결백하기위해 필요한 國民정축도 하지않고 안일무사주의에 빠져 자기일을 기피하는것은 부패보다도 더나쁜것」이라면서 「구가원라해도 자기업무에 소신을갖고 처리해나가라」고 당부했다。

全대통령은 지난7月 全南지역에 집중됐던 태풍피해와 관련 「태풍피해 복구사업중 주택문제는 추위가 오기전에 內實있고 농민들에게 편리하게 복구시켜주라」고지시했다。

全대통령은 범죄없는 마을을 지원하고있다는 金지사의 道政보고에대해 「이와같은좋은제도를 대도시에서도 적용해 일정기간 범죄발생이 없는 區·洞과같은 행정단위에대해 포상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引下」는 우리하고 별관계가 없는거고…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ROLEX

결혼·약혼 예물은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온스당 US 428
은: 온스당 US 9.50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534-7791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Daily Newspaper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TEL: (416) 533-2361

새 예루살렘 신앙특별집회

강 사: 안 이 숙 선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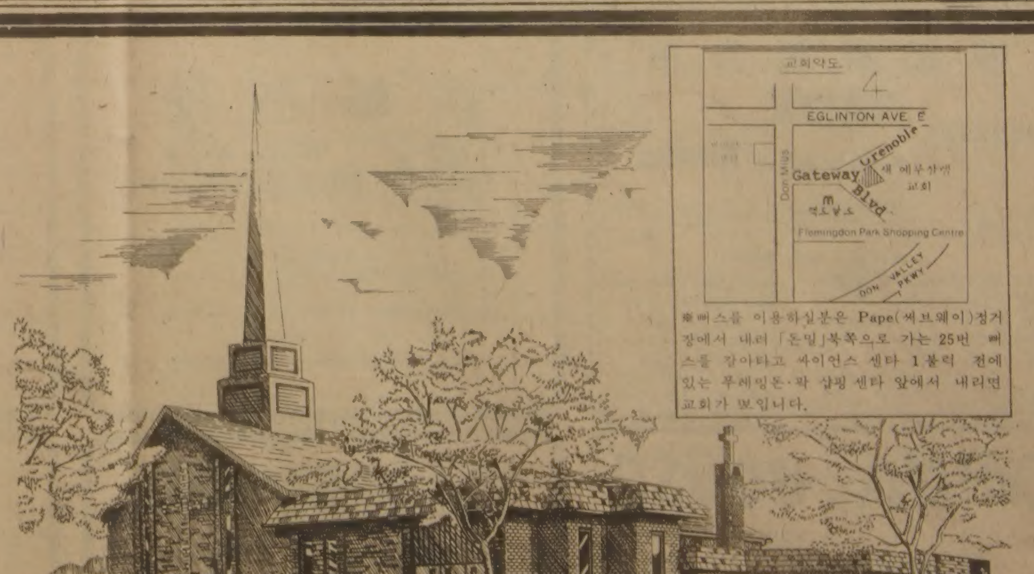
「죽으면 죽으리라」및
「죽으면 살리라」의 저자

일 시: 9월10일(목)오후7시30분
11일(금) 〃 〃
12일(토) 〃 〃
13일(일)오후2시

※청소년을 위한 영어설교
12일(토) 오후1시

장 소: 새 예루살렘교회
5 GRENOBLE DR., DON MILLS

담임목회자 김 승 환



※뻐스를 이용하실분은 Pape(써브웨이)정거장에서 내려 「돈밀」북쪽으로 가는 25번 뻐스를 갈아타고 싸이언스 센타 1불럭 전에 있는 푸레밍돈·팍 샵핑 센타 앞에서 내리면 교회가 보입니다.

새 예루살렘 교회
Korean New Jerusalem Pentecostal Church
5 GRENOBLE DRIVE, DON MILLS, ONTARIO M3C 1C3 TEL: 429-1430

發射4년만에 土星접근

銀河界 항해중인 美우주탐험선「보이저 2號」—

太陽界 진화과정을 追跡 / 環의神秘 또한번 캐낼듯

【파사데나 (캘리포니아) AP합동】 미국의 장기 무인우주탐험선 보이저2호가 4년간의 항해끝에 25일 신비의 토성에 접근한다.

은하계탐색을위한 첫 우주선 보이저2호는 77년 8월20일 발사된이래 목성을 거쳐 예정보다 2일 빨리 이날 토성을 가까이 스쳐간다.

美항공우주국(NASA)의 이계획부책임자인 엘리스·마이너는 『보이저2호가 접근함에 인류는 태양계의 지도를 가까이 볼수있으며 외계수수께끼에 다른 해답을 얻을수있고 예기치않은 놀라운사실을 발견할것이다』고 말했다.

보이저2호는 토성을 지난후에도 외계 길목이 항해를 계속, 인간이 만든 어떤기계도 접근한적이 없는 해왕성과 천왕성에도 도달할 예정이다. 보이저2호는 86년 1월에 해왕성에 접근하고 그 3년후에는 최종목적지인 32억km의 천왕성에 접근한다.

1호부터의 보이저2호는 80년 11월 토성을거쳐간 보이저1호보다 2만2천4백km 가까운 10만1천km 내로 토성에 접근한다.

土星環은 지난해 보이저1호가 통과하기전까지 65만km에걸쳐 6개로 알려졌으나 보이저1호가 촬영한 사진에의해 토성環은 고리에의해 차단되었다가 고리를 통과하며 뒤쪽에나 로밝혀졌다. 처음에 그것은 12개로보였으나 현재는 수백또는 수천개로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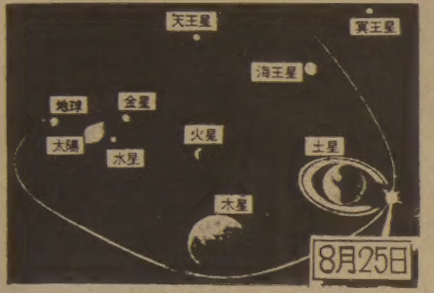
수개의 확인되지않은 고리는 궤도밖에 떠있으며 다른 두개는 이해할수없게 서로 겹쳐있는것처럼 보인다.

모든 土星環에서 공통적으로 신비스러운것은 고리를 가로지르고있는 빛의살이다.

보이저2호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고리에 나타나는것을 포착하는 순간이 될것이다.

보이저2호는 또 環복합체를 설명할수있는 몇가지 이론을 실험하게된다. 이론들은 대부분 얼음이나 얼음이 덮인 바위 입자의 큰 집합체로 보이는데 큰環은 길이가 2미터에서 10미터이상까지 있다.

보이저 2호는 화성에이어 목성, 토성, 해왕성, 천왕성을 탐험, 태양계의 진화과정을 추적하고 태양계 너머 우주공간에 존재할지 도모를 미지의 문명에 지구의 메시지를 전달하기위해 美항공우주국(NASA)에 의해 77년발사되었다. 보이저2호는 77년8월20일 발사됐으며 지름길궤도를 달리는 보이저1호는 이보다 늦은 9월5일 발사됐다. 두우주선은 앞으로 토성을 거쳐 32억km인 천왕성까지 탐험한뒤 태양계 너머까지 진출, 외계문명을 탐지할예정이다.



◇보이저 2호의 항해코스.

유엔支持위해「反共」

"共産국가 樹立않는다"

크메르·루지指導者 이엥·사리會見

「1백만處刑」汚名청산에 안간힘

"戰勢有利" 끈질긴 反베트남戰

◇이엥·사리

【몰트메이 (캄보디아) 18日로이터=聯合】 캄보디아에서 내쫓긴 크메르·루지 망명정부는 두개의 전쟁을 치른다. 캄보디아영내에서 베트남군을 몰아내기위한 게릴라戰과 자국인민과 세계로부터 신임을되찾기위한 선전戰이다. 이두전쟁의 최고사령관이며 민주캄푸챠(크메르·루지)의 부수상 이엥·사리는 18일 태국 국경부근의 정글村 몰트메이에서 로이터통신 특파원 캐더린·갬프벨과 인터뷰를가졌다.

『反베트남 연합전선 형성의 움직임이 거의 확실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反베트남연합은 그가 이끄는 크메르·루지와 손·산派·시아누크派등 세력이 손을잡는 것을 의미한다.

캄보디아는 지난79년 1월 이래 공산베트남군의 장악하에 있다. 그동안 4만명의 크메르·루지 게릴라는 5배가 많은 20만명의 베트남군과 치열한 전투를 치러왔다. 이엥·사리는 『상황은 점차로 우리에게 유리해지고 있다. 사기도 높다. 계속해서 공격의 주도권을 쥐고있으며 우리가 그 정통성을 손·산에게 넘겨준다면 그는 어떠한 싸움도 할수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엥·사리는 강변했다.

『크메르·루지만이 캄푸챠를 대표하며 이를위해 싸워왔다』

이엥·사리는 이들 뒷받침하듯 여러가지 사실들을 지적했다.

캄보디아 전체인구의 4분의1에 해당하는 1백60만명이 크메르·루지 통치하에 있으며, 국민들의 지지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금년초까지만 해도 인민들은 우리의 개혁정책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우리가 추진하고있는계획을 완전히 믿고 이해하고 있다』

『크메르·루지戰士』는 싸움이외도 하는일이 많다는것이다. 게릴라들은 적대지역일지라도 마을에 거주하면서 밭을 갈고 비전투중일때는 마을의 농사일을 돕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엥·사리는 크메르·루지 정책에 언급, 베트남군의 철수와 동시에 자유스러운 선거를통한 신정부수립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이주장은 지난6월30일 그가 스스로 개정제의한 5개강령의 주요골자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체제로는 신정부가 수립되지 않을것이다』

그러나 공산주의 포기발언은 크메르·루지를 캄보디아의 정통정부로 인정하려는 UN대다수국의 지지를 얻어내기위한것으로 보인다. 크메르·루지는 과거 3년반동안의 통치기간 과격한 사회주의 정책으로 세계의 인심을 잃었었다.

1백만명이상이 처형됐거나 굶주림에 죽어갔다.

그러나 그의 말대로 손·산 KPNLF나 시아누크세력(우리나라 저항조직)으로부터 완전한 지지를 받고있지는 않다.

손·산과 시아누크는 이달초 反베트남연합전선 형성을 위해 파리서 만났다.

이엥·사리는 『그들의 회담이 연합전선을 대표하는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中性子彈 반대하는 佛데모 레이건美행정부의 中性子彈생산결정에 항의하는 프랑스시민들이 파리주재 美대사관앞에서 시위를 벌이고있다. 프랑스공산당이 주도한 이날 시위에는 7천명이 참가했다.【파리18日AP합동=聯合】

美 MX미사일配置등 世界戰略에 헤이그·와인버거異見

최종결정 한달후로 延期

【워싱턴18日=曺淳煥특파원】 지난 17일 휴가중인 레이건 대통령주재아래 로스앤젤레스에서 3시간에걸친 對蘇전략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헤이그국무장관과 와인버거국방장관간에 전략적 의견대립이 광범하게 노정된것으로 알려졌다.

레이건 대통령은 MX미사일배치및 B1폭격기 개발에 대한 최종결정을 3~5주뒤로 미루었다.

이 연기가 헤이그─와인버거의 의견대립과 관계가있을것으로 알려졌다.

헤이그국무장관은 2차대전후 유럽및 동아시아를 중시해온 미국의 전통적 외교정책원칙을 받아들이고 있으나 와인버거국방장관은 이전통적 정책에서 이탈할것을주장하고있다.

헤이그는 와인버거와는 달리 세계평화의 열쇠가 유럽에 크게 달려있으며 독일이 유럽의 열쇠가 되고있다고본다.

와인버거가 지지한 中性子彈 생산, 또 와인버거가 추진하고있는 MX미사일을 폭격기에 배치하는 것에 헤이그가 다 반대하는 것은 슈미트西獨수상입장을 배려한데서 나왔다.

"蘇 中性子彈보유설은 추측"

헤이그, 西獨誌會見서 일축

【본18日UPI=聯合】 알렉산더·헤이그美국무장관은 18일 소련이 중성자탄을 보유하고있다는 보도는 추측에 불과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헤이그장관은 이날 발간된 서독 슈테른誌와의 회견에서 소련이 중성자탄을 보유하고 있다는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 문제에 관한 많은 추측이 있을뿐이라고 강조했다.

駐蘇美大使에 하트먼氏임명

【워싱턴18日UPI=聯合】 로널드·레이건美 대통령은 30여년간 공직에 몸담아온 직업외교관출신의 아더·하트먼駐프랑스대사(55)를 공석중인 駐蘇대사에 임명했다고 래리·스피크스백악관대변인이 18일 발표했다.

폴란드印刷工들 罷業

反勞組에 항의… 青果物 상인들도

【바르샤바18日AP=聯合】 폴란드 자유노조소속 인쇄공들은 18일 당국의 관영언론을 통한 反자유노조캠페인에 반발, 동구사상 처음으로 관영신문인쇄를 거부하는 48시간 파업에 돌입하고 언론인 신문판매상및 시민들에게 기사작성과 신문배포및구독을 거부할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때를같이하여 1백여 青果物상인들도 식품가격 인상을요구하며 1일간의 전국규모의 파업에 돌입함으로써 폴란드는 신문발간중단과 함께 청과물부족사태에 직면케됐다.

세베린·야보르스키 자유노조 바르샤바지구 제1부의장은 이날 자유노조소속 인쇄관계 노동자들이 이날부터 48시간 파업에 돌입, 관영신문 배포를 중단할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파업을 했다고 말했다.

야보르스키는 이번 파업이 전국과 지방의 관영신문에국한된 것이며 다른 인쇄물은 정상적으로 인쇄될 것이라고 밝히고 바르샤바지구 인쇄공들이 인쇄를 거부한 『정부』기사작성을 당국의 ... 기사를 쓰라고 말하고

가 우리의 파업을 분쇄하려 노력하고있지만 우리는 독자들에게 신문구독을 거부할것을 호소했다』고 강조했다.

자유노조측은 이밖에도 언론인들에게 기사작성을 거부할것과 신문판매·배달상에게 신문의 판매와 배달을 거부할 것을 호소했다.

波학생들 집단亡命 加할리팍스 寄港中

【할리팍스 (캐나다) 18日AP=聯合】 10명의 폴란드海洋학생들이 지난14일 캐나다의 할리팍스에 기항중 선박을 이탈, 캐나다에 정치망명을 요청했다고 캐나다정부관리들이 18일 밝혔다.

17세에서 21세까지의 이들은 폴란드에서는 총87개 신문이 가운데 2백70만부에 달하고 있는데 이들 신문가운데 44개는 일간지이다.

"아프간·캄叛軍에 軍援가능"

버클리美국무차관 自由鬪士들 전폭同情

【자카르타18日UPI=聯合】 동남아를 순방중인 제임스·버클리 안보지원담당美국무차관은 18일 미국이 아프가니스탄및 캄보디아 반군들에 대한 군원제공 가능성을 배제하지않고있다고 밝혔다.

버클리차관은 하루동안의 싱가포르방문에 이어 4일동안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기위해 이날 자카르타에 도착, 기자회견을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美國은 이미 이들양국내의 저항세력들을 정치적·경제적으로 지원하고있다』고 말했다.

버클리차관은 미국이 캄보디아와 아프간內 자유의 투사들을 전폭적으로 동정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미국이 구상중인 이들에대한 군사원조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밝힐수 없다고 말했다.

◇가마타고 病院으로 우·구체이라는 中68세난노인은 49년이후 거의 사용안하던 가마를 이용, 湖南省의 한병원으로 치료차 행하고있다. 共산정권이들어선 50년대초 세네타고【湖南省19日AP합동=聯合】

메아리

傳統音樂

제1회 대한민국 국악제가 오늘 20일부터 25일까지 서울시내 문예회관, 대·소극장에서 열리고 이에 뒤이어 오는 25일부터 9월1일까지는 제26차 국제민속음악회가 서울에서 열린다.

해방이 된지 36년만에야 처음으로 거국적인 규모의 국악제가 열리게 되고 이 모처럼의 잔치를 위해서 인간문화재를 포함한 최고급의 국악인이 4백여명이상 참가한다는 것은 일찌기 상상조차 어려웠던 성사라 하겠다.

다른 한편으로 1947년 런던에서 발족, IMFC로 약칭되는 국제민속음악회도 창설 33년만에 처음으로 동양권에서 대규모의 행사를 갖기로 된다.

우리 국악은 크게 아악과 속악의 두갈래로 나눌수가 있다. 아악은 궁중에서, 전해내려오는 음악이요 속악은 여염에서 전해오는 음악으로서 서로 양상을 달리한다.

그런데 아악이나 속악할것 없이 일제 식민정책에 의한 말살책과 해방후 한때의 사회적 격변·혼란으로 말미암아 일반으로부터 소외되어 민족의위기에 다다랐으나 오는날 줄기찬 생명력으로 소생의 조짐을 보이고있다.

대한민국국악제가 있기까지 오랜인고로 국악의 명맥을 이어오고 또 전승을 위해서 개인적인 희생을 무릅쓴 악인들의 굳건한 사명감은 적인 평가를받고도 남음이 있다.

뿐만아니라 엄연한 유네스코의 산하단체로 국제적인 기구인데도 동양권에서의 대회개최를 보지 못해 왔던 IMFC가 제1회 대한민국국악제의 뒤를 받아 37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학술회의와 워크숍으로 뜻깊은 성황을 이루게 된 것도 우리 국악의 든든한 터전과 국악학자들의 학문적 업적에 크게 힘입고 있음을 저버려서는 안된다.

북한 국악제에서는 종래의 국적효과를 내세우기는 곳이나 생략을 피하고 원형에 충실하려 했다. 다하니 국악의 제모습을 확인할수 있는 모처럼의 기회가 될것이고 원형의 전승을 위한 한기준이 될것이다.

더우기 이를 받은 국제민속음악회에서는 세계음악속에서 우리국악이 차지하는 위치와 비중을 높일수 있는 기회가 될것을 기대해 마지않는다.

인사이드

美國의 신문「朝刊시대」로

速報기능 경쟁서 밀려나 / 유명 全國紙 거의가朝刊

夕刊紙들 苦戰못면해

【뉴욕17日=金泰雄특파원】 미국신문은 TV와의 전쟁에서 서서히 지고 있으며 그현상이 조간신문과 석간신문의 싸움으로 나타나고 있다.

뉴스보도가 생명인 미국신문은 요즈음 보도매체라기보다는 뉴스거리가 되고있다.

미국수도 워싱턴에서 사주간지 타임즈가 발행하는 석간 워싱턴·스타는 조가 일급통제에 합의하여 어 경제지분아니라 주간 오래전에 매입을 두고있 던 보수지 워싱턴·스타는 5개신문도 예 직면했으나

조간인 워싱턴·포스트와의 싸움에서 죽음을 당했다.

미국최고 부수를 자랑하던 뉴욕의 데일리·뉴스도 「투나이트」란 석간을 따로 발행하고 있었으나 최근 석간의 발행을 중지한다고 공표하고 말았다.

미국에는 아직도 조간보다 석간이 더많다. 1천7백75개신문중 1천3백88개가 석간이며 단지 387개가 조간이다.

그러나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로스앤젤레스·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등 전국지라고 할수있는신문들은 다 조간이다.

어틀누스트런 석간 필라델피아·인콰이어러·블리틴은 조간 인콰이어러에 눌려 폐간의 위기에 겨우 다시 숨을 쉬게됐다.

얼마나 갈지 알수없지만 특히 대도시에서 석간신문이 받는 영향은 사회현상의 변화로 현저히 나타나고있다.

석간은 街販에 의존하고 있으며 독자층은 부녀자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기때문에 TV에게 독자를 많이 빼앗기고 있다.

석간은 독자시장에서만 아니라 광고시장에서도 조간에게 눌리고 있다.

가정배달도 조간의 독무대다.

시내교통이 복잡하지않은 새벽에 배달하기때문이다.

뉴욕·타임즈는 말할것도 없고 워싱턴·스타를 죽인워싱턴·포스트나 불리틴을 넘어뜨린 인콰이어러는 일

TV에 讀者뺏기는 立場은 마찬가지

지의 광고시장마저 크게잠식하고있다.

일요판이 없는 석간은보충부대가 없는 군대와 같다.

3대1의 비율로 석간의수가 조간보다 많은데 석간신문의 많은 발행인들은 살아남기위해 석간에서 조간으로 바꾸는 문제를 심각하게 연구중이다.

또 종가일로의 TV와의 싸움을 어떻게하느냐가 그들에게는 제2의 전선이다.

시간마다 스파트·뉴스로 최신소식을 보도하는 TV뉴스는 석간에게는 직격탄이다.

석간의 시대는 가고 조간의 시대가 왔다. 그러나 TV와의 싸움에서 조간이어떻게 살아남느냐 하는것은 궁금한 숙제다.

뉴욕·타임즈같은 조간도 해외특파원들이 보내는 기사를 제외하면 TV방뉴스와 아침뉴스를 상보하는 정도다.

그러니까 뉴욕·타임즈같이 막강한 해외취재망을 갖추지못한 다른조간은 해설과 기획물로 명맥을 유지하자니 힘든일이다.

오늘의 小史 〈20일〉

- ▲울머사변 발생 (1895)
- ▲남아프리카연방 설립 (1909)
- ▲蘇軍, 元山상륙 (1945)
- ▲니카라과 韓國승인 (1949)
- ▲국제난민기구(IRO) 발족 (1968)
- ▲바르샤바조약군, 체코침입 (1968)
- ▲南北赤대표, 板門店서 첫 대면 (1971)
- ▲古里원자력 1號機, 試驗송전개시 (1977)

海外토픽

올해 2백70명체포 ★南阿共, 黑白間성행위

【東京=AP】 인종차별국가인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백인과 타인종간의 섹스행위를금지법을 위반한 죄로 금년상반기 6개월동안에 총2백70명이 체포된것으로 밝혀졌다.

남아공화국 법무당국에 따르면 이들가운데 55명은 이미 유죄선고를받고 복역중이며 1백2명은 기소상태에있고 기타 1백여명은 처벌여부 심사를 받고있다는데 정부는 백인과 비백인간의 성행위가 날이갈수록 증가일로에 있어 이법의 완화를검토하고있다.【케이프타운=AP】

日, 南北平和賞계획 ★南北문제解決 기여에

일본정부는 남북문제의 해결에 크게 기여하는 국내외 인사들에게 『남북평화상』을 수여할것을 계획하고 있다.

마이니찌(每日)신문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오는10월 멕시코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때 스즈끼수상이 같은 시상계획을 정식으로 발표할것이라고 하는데 상금액은 노벨평화상 상금액의 두배가넘는 약1억엔(50만달러)으로서 2년에 한번씩 수여케 될것인데 이 상의 공식명칭과 세부사항등은 추후에 결정될것이라는 것.

韓日, 安保認識差 기우찌局長답변

【東京19日=聯合】 기우찌·아끼다네(木內昭胤)일본외무성 아시아국장은 18일 衆議院내각위에서 한국이 태평양에있어서의 美日의 방파제라고 말한 全斗煥대통령의 발언에관해 『수궁할점이있다』면서 『그러나그것은 『全대통령의 주관적인 느낌』이라고말해 韓日간의 안보외식에 완전일치할수없는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했다.

캐나다당국은 현재 이들의 정치망명요청을 심의중이다.

학생들은 폴란드의 트롤어선을 타고 항해및 기술훈련을 받던중 한 학생의 발병으로 트롤선이 할리팍스에 기항하자 집단정치망명을 감행한 것이다.

陳氏眼鏡公司

MARWITZ Zeiss-Gruppe West Germany　ZEISS ●고급안경취급 West Germany　Rodenstock

●콘택렌즈를 맞추시는 분께는 썬글라스를 선물 합니다.

BAY OPTICAL CO. LTD.
LUCLIFF PLACE
700 BAY ST.(at Gerrard)
TORONTO, ONT.
TEL: 595-1665

FASHION OPTICAL
525 DUNDAS ST.
(at Spadina Av.)
TORONTO, ONT.
TEL: 363-0684

영업시간 ●월~토 9:30AM~6:00PM　●월~토 11AM 7PM

新新酒樓

SUN SUN RESTAURANT

정통적 중국음식, 뱅킷, 카드에 담아서 원하는대로 피엉하는 식사와 정찬
영업시간: 월~일 9시~오후11
490 DUNDAS ST. W. TOR.(Spadina코너)
☎: 977-3142
닭, 오리, 돼지, 바베큐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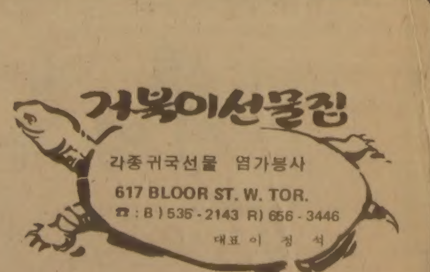
각종 가죽옷 도산매

PERFECT LEATHER GOODS

온타리오주 내에서 가장 큰 가죽제품 스토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음

192 SPADINA AVE. TOR.
☎: 368-4215, 368-0114


거북이선물집
각종귀국선물 염가봉사
617 BLOOR ST. W. TOR.
☎: B) 535-2143 R) 656-3446
대표 이 정 석

CHINA HOUSE

CANTONESE & MANDARIN CUISINE

Wilson / Eglinton / Keele / Bayview / CHINA HOUSE / Bloor / Bathurst

TWO BANQUET ROOMS
LOCAL DELIVERY AFTER 4.30 PM
AMPLE PARKING

781-9122
925 EGLINTON W.

一品香飯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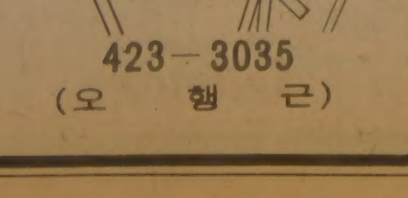
(짜장면등…)중국북방식
한국인 입에 알맞는 요리.
특히 북경오리요리전문

1주일 내내영업(11AM.~11P.M.)

393 DUNDAS ST. W.
☎: 363-9527
TOR. ONT.

CHING-ROYAL RESTAURA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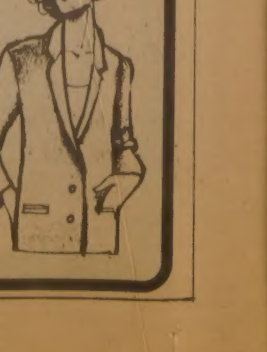
운 전 교 습



423-3035
(오 행 근)

코스모스

동양인에게 어울리는 유명 메이커
숙녀복(size 5~16)
좋은 가격으로 봉사
품질좋고 가격좋은
아동복(신생아~16)
똑같은 옷으로 다른곳 보다 저렴한 가격임을 약속드림.
월요일~토요일: 10시~7시



706BLOOR ST. W
☎: 534-2003

李承晩박사 밑에서 臨政과 연락맡아
기관지「太平洋」통해 동포愛國心고취

나의 이력서 〈題字·尹致暎〉 윤치영 ㉕

「同志會」時節

1900年代초기 移民들로 구성된 하와이의 韓人사회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어떻게하든지 나라를되찾아야겠다는 독립정신으로불탔다. 이에따라 여러 독립단체들이 생겨났지만 그가운데도 가장우뚝한것은 李承晩박사가 이끄는 同志會였다.

同志會는 하와이 韓人사회의 求心點이자 독립운동의 센터로서 눈부신 활동을 벌였다. 물론 일부인사들간의 不和로 단체간에 적지않은 물의를 빚기도했지만 同志會의 역할은 날로 국내에까지 널리 알려질정도였다.

同志會는 人頭稅를거둬 上海臨政에 보냈고 滿洲에서 활약하는 독립군을 후원했다. 또 국내와 일본에 있는 독립지사들과 陰陽으로 연락하면서 총체적인 전진을가져왔다.

나는 가이무끼山上에있는 李承晩박사 私邸에서 서신, 자금, 조직등 각종 기획을하면서 각처와 긴밀한 연락을취했다. 李박사의 私邸는 교민들이 돈을모아 지어준 木造2층집이다. 말이 2층이지 아래위에 방한칸씩있는 茅屋이었다.

우리는 각지에서 보내오는 誠金과 人頭稅로 독립자금을 마련했고 同志會를 법인체로해 땅도 사 資金源을 만들었다.

그당시 우리가 지원하고 연락을 빈번히 한 인물들 중에는 滿洲를 무대로 독립항쟁을 하던 金佐鎭장군을 비롯, 당시 젊은나이로 독립군의 前官지휘관을 하던 李範奭, 金日成이란 이름을 남기고 사라진 金光瑞 등 독립군지도자들이 있었다.

金光瑞란 인물은 바로 세상이 말하는 진짜 金日成장군이다. 그는나의 伯父가 軍部대신겸 원수부총장일 때 副官으로 있던 金正俔工兵參領의 아들로 일본군에있다 滿洲로달아나 독립군의 리더가됐다. 나는그와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려서부터 잘알기때문에 그동안 세상에서 그에관해 논란이 있었지만 침묵을 지켜왔다. 후일 기회가있으면 다시 소개하기로 한다.

이밖에도 자주 연락했던 인사로는 上海의 趙素昻, 런던과 파리에 있는 歐美위원부출장소의 黃圭煥, 멕시코의 李仁鳳씨 (女) 등이 떠오른다.

李承晩박사는 同志會의 機關誌로 月刊「太平洋誌」(The Korean Pacific Magazine)를 내고있었는데 내가 하와이에가자 나에게 主筆을맡기고 규모를 크게확장했다. 글쓰는것은 李박사와 내가 맡았다. 나는 집필외에도 발송, 요금징수, 광고청탁등 닥치는대로 했다. 鑄字와 植字는 文順益이 맡아 애를 많이썼다. 李박사도 工員들을 도와 植字, 인쇄, 제본, 발송등 혼자서 10人役을 했다. 잡지가 나올때면 李박사가차를 운전하고 나는 조수가돼 발송하기도했다.

「太平洋誌」는 워싱턴,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필라델피아등 美本土를 비롯, 런던, 파리, 上海, 北京, 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토크, 브라질, 칠레, 멕시코, 쿠바, 泰國, 印度등 세계 구석구석으로 보내졌다. 잡지규모는 1백페이지안팎정도였지만 해외유일의 교포月刊誌로서 나라안팎의 독립운동과 세계정세, 동포들의 소식을 교포들에게 상세하게 알렸다.

同志會와 「太平洋誌」의 일을 보는 틈틈이 나는 韓人기독학원 교수로서 한주일에 4시간 우리말과 역사를 가르쳤다.

기독학원활동도 상당히 활발했다. 교포2세들은 오전엔 미국인학교에서 공부하고 오후엔 기독학원과 국어학교에 달려와 우리글과 역사를 배웠다.

한편 金永琦씨가 주도하고 있던 僑民團에선 國民報라는 신문을 발행했는데 나는 그일도 열심히 도와주었다.

눈코뜰새없이 바쁜중에도 공부를 포기할 수 없어 하와이大에 다니며 국제정치학을 공부했다.

하와이大에선 총장인 딘박사가 법률을, 캘리포니아大교수를 겸하고있는 리브릭박사가 국제정치학을 가르쳤는데 나는 주로 두교수의 지도를 받았다. 하와이大에서 每週시험때마다 구두로 묻고 대답할 때는 진땀을 빼기도 했다.

나는 대학YMCA에나가 강연을 듣고 세미나에도 참석, 여러인종의 학생들과 국제정세와 弱小민족의 장래등에 대해서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YMCA세미나에서는 「우리민족의 걸어온길」「韓人과 極東문제」「아시아의 美·日관계」「中·美관계」「국제법상으로 본 태평양연안의 평화와 대한의 자주독립」「地政學上으로 본 한국의 위치」등의 주제를 갖고 발표한것이 기억난다. 지금 생각하면 유치한 얘기같지만 당시로서는 외국인들에게 우리를 적극 알려야된다는 사명감에 불타있었다.

나의 그런 입장을 많이 보살펴준이로 누우수YMCA총무인 킬팬박사가 있었다. 그는 나를 데리고 다니며 회합때마다 미국인들에게 소개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하와이의 킹·스트리트에 있는同志會회관。1949년에 신축된 건물이다。

블론디 딘·영 作 本社特約·連載漫畫

"범스테드 아저씨, 허미와 제가 아이스크림 사 먹게 아저씨 호주머니에서 25센트 동전을 꺼내가도 돼요?"

"움프".

"「움프」는 아마 노일거야" "예스의 뜻으로 말했어"

"낮잠잘때 얘기로 「움프」는 예스고 「눔프」는 노란말이야"

김인규
RIA ACCOUNTING & TAX
844-0178

流星의 賦 <162>

李炳注 作 李友範 畵

山空花自紅 ⑫

까닭도없이 당상관, 또는 당하관을 비롯하여 아치들이 시정(市井)의 유협자(遊俠者)들로부터 변을 당한다는 풍문이 장안에 퍼졌다. 혹자는 관복벗겨 짓밟힘을 당하고, 혹자는 도포를갈매갈래 찢겼다고 하고, 혹자는 삼선교에서, 혹자는 수표교에서, 혹자는 광교에서 떼밀려 물에 빠지기도하고 상처를 입었다고 했다. 혹자는 자기집 대문앞에서 뺨을 얻어 맞았다고도 했다. 그런데 그 까닭을 알수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까닭이 있었다.

육각팔방들은 곳곳의 기방이나 술집에 출몰하며 이를 두고 욕설하는자를 발견하기만 하면 그자를 뒤밟아 정황까지 두었다가 그이튿날 행패를 가했던 것이다. 그런때문에 변을당한 자들이 그까닭을 알수없었다. 그날 또는 그자리에서 당하기라도 했더라면 짐작이라도 할터인데 그렇질 않으니 공연히 행패를 당한 것으로만 알았다.

세도가 있는 당상관들은 헌핵나 쓰는 장사를 동반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아무런 보람이 없었다. 어던지 모르게 날아오는 팔매와 몽둥이를 피할 재간이 없었던것이고

『너희들 미관말직을 상대도 안할테니 괴해있으라』

는 현재의 호통이 있으면 포교나 병사들은 거미떼처럼 없어져 버렸다.

이런 난동분자들의 행패가 조정의 화제가 안될 까닭이 없었다. 어느날 임금이 임석한 경연의 자리에서 이 얘기가 나왔다. 한참 동안을 듣고 있더니 임금이 물었다.

『누구 누구가 당했는지 말해 보라』

현조판서가 대강의 이름을 들었다. 그 가운데 동인도 있었고 서인도 있었다. 그러나 임금은 행패를 당한 서인 모두가 최근 동인과 통하게된 사람들이란 사실까진 알지 못했다.

『그렇다면 조정에 있는 파당과는 관련이 없지 않는가』

임금의 말이었다.

『그러 하옵니다』

현조의 대답이었다.

『그렇다면 조정에서 외논할 일이 아니지 않는가』

『그러 하오나』

하고 누군가가 말하려고 하자 임금이 잘라 말했다.

『고래로 협객이란 것은 있는 법. 협객을 아쉬워할 망정 그 기를 꺾을순 없다. 협객은 청렴한 홍과 같은 것이다. 내 듣기로는 수신(修身)이 잘 되어 있는 자로서 행패를 당한자 없구나. 아울은 경들의 조신에 관심을 벗어 억부지란(抑扶之亂)한다는 말들은 히 일을 쓰시오. 자중자애하면 그만일 것을 괜지 않게 하시오』

요컨대 그들을 탄압하기 위해 병사와 포교들을 동원하지 말라는 임금의 분부였던 것이다.

각지 조정에 지인(知人)을 가지고 있는 팔협의 귀에 이 말은 그날로 전해졌다.

『역시 임금은 임금으로서의 뜻이 있군』

하고 팔협들은 기고만장했다. 귄유의 복장에서 큰 잔치가 열리기도 했다. 그러나 선조라고 하는 임금은 그처럼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다. 복심을 시켜 몰래 팔협의 정체를 살피도록 일렀다. 그 직을 맡은 사람이 이영(李英)이었다.

주간女性

灰色노우트 ⑪ <179>

趙善作 作 禹慶熙 畵

『뭐가요?』

나는 거의 비명에 가까울 이만큼 크게 소리쳤다. 소리쳐놓고 나는 내 목소리가 바의 그에게까지 전해진 게 아닌가 싶어 그쪽으로 돌아보았다.

그러나 바까지는 너무 멀었고, 차폐물들 때문에 보이지도 않았다.

J씨가 다시 말했다.

『원귀지. 여자의 원귀』

말하고 나서 그는 빙그레 웃었다. 그웃음은 그것이 바로 당신 아니냐고 지적하는 것같아 나는 소름이 끼쳤다.

정릉의 방갈로에서 범빛 그늘에 몸을 정말로 가리고 섰던 검은옷의 나 자신을 나는 스스로도 유령 같다고 생각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도 뜻밖의 사태가 아닐 수 없었다. 내가 의도했던 어떤 절실한 열들이 그런 으스스한 소문으로 나돌아다니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호흡이 막힐듯한 절망으로부터 가까스로 구제되었다.

『설마요. 설마 그런일이…』

『아무렴, 귀신이야 아니겠지. 과거에 그가 못되게굴었던 어떤 여자가 복수의 감정으로…』

나는 J씨의 말을 막았다.

『복수의 감정이에요? 설사 그렇대도 그런 식으로 복수할 여자가 어딨어요?』

『그럴까? 그래도 정신적으로 밸런스를 잃은 여자라면 그럴수도 있을거야. 누군가한테 얼핏 들었는데, 미스터 한을 만나면 자세히 좀 들어본다고 했다가 만나면 잊어먹곤 해 버려. 전망중 때문이야』

J씨가 그것을 나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만은 분명했다. 나는 다소 안도의 느낌으로, 그러나 그런 소문이 어디까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퍼져 있는가에 대한 무거운 의문은 어쩌지 못하면서 입을 열었다.

『놀랐겠어요. 한선생님말예요』

『역시 미스안은 미스터한 만을 염려해주는군. 아뭏든 여자복은 타고난 친구야』

『그런가요? 그냥 일상적인걸 말한 것뿐인데』

『정말요? 그럼 내가 미스안에게 희망을 걸어도 좋아요?』

『무슨 희망요?』

『날 염려하고, 아껴주고, 또…』

『어머, 부인께서 귀가 간지러우시겠어요』

『부인? 여편네?』

J씨는 정색을 하며 나를 보았다. 그랬다가는 내게서 시선을 떼고 근처를 지나치는 보타이의 종업원을 불렀다.

『여기 맥주 좀 더하고, 안주는 바싹 마른 걸로 하나 더』

그때였다. 바에 있던 그의 일행이 동굴의 중간쯤에 나와 있었다. 그들은 출구쪽으로 몰래 나가고 있는 중이었다. J씨가 그들쪽을 보았고, 손을 흔들어 작별을 표했다. 그들 중 영화감독과 아가씨를 돌도 J씨쪽을 향해 손을 들어 보였는데, 그만은 묵묵히 앞만 보고 걸었다. 그들이 모두 출구로 사라지자 나는 갑자기 혼자 남겨진 듯한 착각에 빠졌다. 비록 J씨와 어울려 있었지만 그만큼 내 신경은 바 쪽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다.

새 술병이 왔고, J씨와 나는 새술병을 컵에기울였다.

『이제 선생님도 부인께 돌아가셔야 하지 않아요?』

나는 지금부터라도 서둘러 그의 뒤를 미행하면 어떨까 하는 공상으로 초조해져서말했다. 그러면 그가 진을치고 있다는 여관하며, 새롭게 그의 행동 반경을 손바닥 위에 올려 놓을수 있으리라는 생각이었던 것이다.

J씨가 짐짓 화를 돋워 말했다.

『이거 다 마시고』

張吉山 <1633>

黃晳暎 作 崔然石 畵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93)

실로 풍열이 그들의 입국에 관한 뜻을 세운 일을 물길을 여는것에 비유한 것은 적절하였다. 이러한 원류(源流)가 오랜 세월에 걸쳐 흐르면 드디어 장강대하(長江大河)가 되어 산천을 변화시킬 것이었다. 보에서 터진 물줄기가 광야를 향하여 다름질쳐 흘러가기 시작한 것이다.

『제 생각에는… 이제 정사는 스님이 계실만한 곳이 못되는듯 합니다』

길산의 말에 풍열은 고개를 끄덕였다.

『음, 이번 일을 보아서 옥여와 나는 떠나련다. 세간에 소문이 낭자하여 한번 피한 재난을 두번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해서는 자고로 극적(劇賊)이 많이 나온다고 벼슬아치들이 수근거린다네. 일부러 험한 곳에 있을 이유가 없지』

도안이 덧붙였고 길산은 말하였다.

『저희도 팔도에 알려진 녹림당이 되어 사방에서 우리와 함께하려는 산림처사들이 결맹하고자 사람들을 보내옵니다. 말들이를 보내어 묵어 나가고 있으니 수가 자못 불어나겠지요. 때를 보아 산채를 흐트리고 이러한 결탁만을 베짜듯이 맺어 놓을까 합니다』

『우리 중이야 별로 그런 일이 없으나, 장가들고 처자 거느린 자네들은 백성들과 더불어 생활을 해야할테니 그게 걱정이로구나』

풍열의 말에 길산은 답하였다.

『뭐 송방에 나간 송상들은 섣달 그믐이나 되어야 향하여 처자를 만난답니다. 그래서 그 무렵에 생겨난 아이들이 많다지요. 저희들도 행상단처럼 때가 되면 이합집산(離合集散)을 자재로 하여 관이 포착하지 못하도록 할 작정입니다』

『장후령의 활빈행은 관서지방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소』

도안이 말하였다.

『벽동(碧潼)과 의주(義州) 도처에 잠상(潛商)들이 있고 관군도 괴롭히는 일대가 있는데 주(朱)라는 성가진 술사와 강(康)씨가 있답니다. 아직 알아보지 못하였으나 그러한 녹림처사들끼리는 줄이 닿을 것인즉, 알아보고 연을 넣어 두오』

길산은 머리를 조아려 도안에게 감사하였다.

『오늘에사 스님을 뵈어 많은 것을 배웠으니, 마치 젖먹이가 태산을 오르고 초동이 장강을 건넌듯 합니다』

하고나서 길산은 저도 모르게 말을 꺼내었다.

『스님께서 보경선사를 모시고 계시다가 묘향산으로 옮기신 것이 몇 해나 되었읍니까?』

도안이 풍열과 마주보며 웃음을 지었다. 도안은 풍열에게 되물었다.

『산사에서 바람소리와 차 끓는 소리만 들어서 그런지 세간의 일들을 헤아리지 못하겠구먼. 풍열이 내 도반이라 금강산에서 모인 것이 언제던가?』

풍열은 손가락을 짚어 헤아리는 시늉이더니 혀를 차는 것이었다.

『효종(孝宗) 임진년(壬辰年)이었으니, 그해 정월에 팔도 승군을 제도(諸道)에 나누어, 정하여 때를 이루게하였다 해였느니라. 네가 태어나기 삼년전의 일이다. 네 이제 서른 셋이니 실로 서른 여섯해가 지났구나. 허허 우리도 한창 기가 팔팔하던 수좌 시절이었지』

길산은 다시 물었다.

『혹시…그 무렵에 보경선사께서 승려를만드시고 도안스님께로보낸 사람이 없었읍니까?』

THE KOREA TIMES

BACK to SCHOOL
Money-making Specials

Noor Es (INTERNATIONAL)
Importers & Wholesalers
UNIT 7, 777 WARDEN AVENUE
SCARBOROUGH, ONTARIO Tel. 757-92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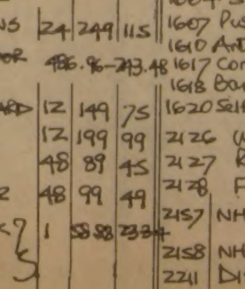
Hilroy

		PACK	RETAIL	NET COST
05-229	50 SHEET REFILLS LINED	48	99	45
05-226	" " PLAIN	48	99	45
05-235	100 SHEET REFILLS LINED	24	149	68
05-224	" " PLAIN	24	149	68
05-233	200 SHEET REFILLS LINED	24	285	120
05-225	" " PLAIN	24	285	120
05-232	250 SHEET REFILLS LINED	12	349	145
12-102	4 PACK EXERCISE BOOKS	40	209	95
13-121	COIL EXERCISE BOOKS	40	139	70
1669	COIL EXERCISE BOOKS W/ PICTURES. ASSORTED DESIGNS: WILD & WONDERFUL NHL & UFO	40	179	69
06-248	DUOTANGS. REG. 100's	1	39	18
06-448	" 3 HOLE 80's	1	45	22
17-229	VINYL FOLDING CLIPBOARD	24	299	162
04-529	VINYL BINDERS 1"	20	399	120
04-539	" 1½"	10	429	175
04-549	" 2"	10	499	225
24-402	PRESSBOARD BINDERS ⅝"	20	219	100
24-403	" " 1"	20	239	110
2107	SUPER PRESS BINDERS	50	99	55
P50	GAGE ⅝" BINDERS	12	159	60

21-120	TYPE PAPER TABLETS	40	79	40
21-220	TYPE PAPER PACK	20	225	110
41-400	FUNTIME ART PAPER	40	169	80

BiC

P51	BIC CLIC 3 PACK	24	237	99
P52	BIC VALU PACK	72	195	95
P53	BIC ROLLER 2 PACK	24	196	95
P54	BIC CLIC 2 PACK	24	198	95
P55	BIC CRAYONS 7's	24	149	75
P56	BIC PREPACK A: 24 MED. BLUE .29, 12 XFINE BLUE .69	1	15.24	7.20
P57	BIC PREPACK B: 72 BIC ULTRAFINE .99, 1 DIGITAL WATCH 25.00	1	96.28	43.20
P58	LIQUID PAPER SPECIAL DEAL 2 to pack VALUE 2.98/2 SPECIAL 1.99/2 NET 1.20/2 (60¢ PER BOTTLE)	10	2.98	1.20



Sellotape

1403	1000" SELLOTAPE	48	89	42

BIG DEALS
for Back-to-School

FaberCastell
Laurentien Pencils

		PACK	RETAIL	NET COST
1833	COLOUR PENCILS 8	12	279	119
1834	" 12	12	399	185
1835	" 20	6	649	290
1859	LAURENTIAN MARKERS 8	12	169	75
1860	" 12	12	249	120
1861	" 20	6	399	180
P59	FABER CASTELL VALU-PACK	24	189	95
P60	INTERNATIONAL 3+1 PEN SPECIAL	24	99	50
P61	POINT 5 PENCIL & LEAD DEAL	12	396	185
P62	LAURENTIAN 3 HOLE PENCIL CASE	12	99	39
1885	CAMPUS 144 PENCILS	1	25	10
P63	VENUS VELVET DELUXE PENCILS. 30 to box	1	35	18
P64	VENUS CADOMARK 20 BLACK 20 RED, BLUE, GREEN	1	99	30
P65	FANTASTIK MARKERS BLUE	12	200	69
P66	COL-ERASE PENCILS	12	149	75
P67	GOLIATH PENCILS	12	99	50

PAPER MATE

2175	ERASERMATE PENS	24	249	115
P68	PAPERMATE BTS FLOOR DISPLAY	486.96-243.48		
1690	PAPERMATE STANDARD	12	149	75
1691	MALIBU PENS	12	199	99
1688	FLAIR MARKERS	48	89	45
1685	ULTRA FINE FLAIR	48	99	49
P69	STICK PEN PREPACK 72 MEDIUM .25 72 FINE .29	1	58.88	23.34

BRISTOL BOARDS

WHITE	50	55	27
COLOURED	20	60	30

THERMOS
TRADE MARK REGISTERED/MARQUE DEPOSSE

1467	CHILDRENS LUNCH KIT	6		575
1458	10oz 'FLIP N SIP' BOTTLE	6		306
1450	P10 COFFEE THERMOS	6		330

SHEAFFER®

P70	SHEAFFER PEN & REFILL DEAL RETAIL 240.18 NET 115.00	1		
1897	NONONSENSE CARTRIDGE PEN	12	299	150
1898	" BALL PEN	12	199	100
1899	" MARKERS	12	299	150
2205	" ROLLING PEN	12	299	150
1891	SHEAFFER CARTRIDGE PEN	12	249	135
1892	" BALL PEN	12	249	135
2203	KALEIDOSCOPE PENS	12	399	200

Crayola®

1801	Crayola crayons 8's	12	65	33
1803	" " 24's	12	159	75

blisto alco

50% DISCOUNT ITEMS

1676 Math set
1853 Plaid pencil case
1603 Paint set
1604 Stars
1607 Push pins
1610 Artist brush
1617 Compass
1618 Barrel sharpener
1620 Self stick reinforcements
1606 Rubber bands
1614 Spc. eraser pack
1626 Stapler & staples
1636 Combination lock
1637 Flat comb. lock
4982 Zinc lock

2126	WEBSTERS DICTIONARY	6	299	162
2127	ROGETS THESAURUS	6	299	162
2128	FLINTSTONES DICTIONARY	6	299	162
2157	NHL SCHOOL KIT	12	299	162
2158	NHL PENCIL PACK	12	99	50
2241	DISPENCILS	72	59	30
2214	MUPPET SCHOOL KIT	12	299	162
2220	MUPPET PENCIL SHAPE CASE	12	229	115
P71	VINYL PENCIL CASES	12	99	30

14:1 大邱 포격에 普成 초토화

한이닝 打者 13명 8得點 기록 세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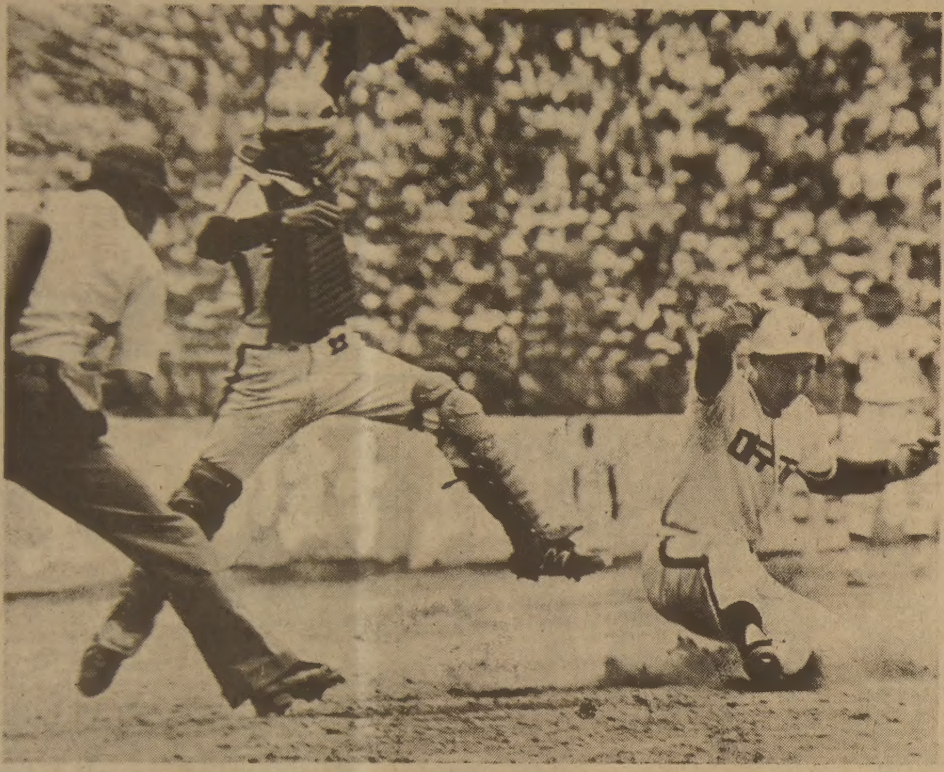
투수4명交替한 普成 5회콜드게임敗

鳳凰大旗고교야구

2連覇를 노리는 天安北一高와 금년시즌 2관왕을 노리는 大邱高가 승승장구, 제11회 봉황대기쟁탈 전국고교야구대회 8강에 안착했다。

北一高는 19일 서울운동장서 벌어진 대회14일째 3회전 경기서 1회초의 집중5안타로 명문 仁川高를 맹타, 단숨에 4점을 거둬들여 승기를 잡고 6-1로 낙승했다。仁川高는 안타수 9-9의 대등한 공격을 펼쳤으나 두차례 병살을 당하는등 불운으로 완패했다。

대봉기 우승팀 大邱高는 막강한 타력을 과시하며 大邱商高와 春川高를 제치고 올라온 普成高를 12안타로 두들겨 14-1, 5회 콜드·게임승을 거두었다。大邱高의 林淳太와 李萬得은 3타수 2안타 3타점을 기록했으며 普成高는 李滿雨 金秉奎의 계투에 눌려 1개의 안타도 기록하지 못했다。



◇거뜬히 홈인 普成高—大邱高대전。大邱공격 3회말2死후 2루주자 朴鍾哲이 林淳太의 안타로 홈인하고있다。

大邱高·普成高

3회전까지 올라온 普成의 선전분투도 아무 보람없었다。大邱의 거센 급류에 휘말려 普成은 큰숨 한번 바로 쉬지못하고 가라앉았다。

방망이로 싸운다는 大邱는 3회말 한 이닝에서 집중 5안타를 퍼붓고, 2포볼, 1도루, 2敵失을 묶어 일거에 8득점, 普成을 5회 콜드게임으로 넉·아웃 시켰다。

大邱는 이미 4-1로 승세를 굳히고 있던 3회말 선두 4번 李成根이 포볼을 골라나가고 1사후 6번 高賢喆이 우월2루타로 2、3루의 찬스를 만들자 2사후에 나온 8번李萬得이 우중간적시타로 2점을 추가했으며 잇달아터진 9번 朴鍾哲, 1번 姜起雄의 안타와 普成2루수의 수비실책, 3번 李滿雨와 4번 李成根의 밀어내기 포볼, 5번劉孝旭의 타구를 놓친 普成3루수의 실책, 6번 高賢喆의 한이닝 두번째득점타등으로 13명의 타자가 나와 무려 8점을 거둬들였다。

4회말에는 1사후 대타李琪炯의 좌전안타와 姜起雄의 포볼, 그리고 2번 林淳太의 좌중월3루타로 2점을 추가, 이번대회들어 최다인 14득점을 기록했다。

普成은 5회동안 네번이나 마운드를 교체하며 진땀을 흘렸으며 2회초 선두5번 崔炳植의 데드볼, 1사후 7번 張永八이 데드볼, 8번 辛炳允의 포볼로 안타없이 이룬 단한번의 만루찬스에서 9번 尹相喆의 스퀴즈·번트로 겨우 1점을 얻어냈다。

大邱

北一、1회 4점 先制

安打9대9 仁川自滅 6-1

北一高-仁川高

안타수 9-9。그러나 北一은 1회초의 선제공격으로 仁川을 기습, 간단히 결판을 냈다。

仁川의 장신 에이스 金榮善이 채 호흡을 가다듬기도 전에 北一선두 1번曹良根은 유격수 강습안타를 때렸으며 2번趙龍鎬는 1루 베이스쪽으로 절묘한 번트를 대고 1루에 세이프, 3번 金相國은 포볼을 골라 無死만루의 찬스를 만들었다。

4번李康昊가 스퀴즈 번트한 볼이 투수앞으로 곧바로 굴러 仁川으로서는 병살까지 바라볼수 있었으나 투수 金榮善은 조급히 서두르다 볼을 떨어뜨려 1실점에 다시 만루의 위기가 계속되었다。北一은 5번 尹洪植의 땅볼로 2점째를 올렸으며, 6번 崔在明과 7번 金賢澤의 잇단 중전 적시타로 2점을 추가, 4-0으로 안전한 리드를 잡았다。

北一은 3회초 1死후 尹在明의 중전안타와 적실, 金賢澤의 우전안타등 하위타선의 폭발로 또 1점을 추가했다。

仁川은 1、2회에 3안타로 安聖洙를 공략했으나 北一선발 安聖洙를 공략 했으나 2盜실패, 또는 후속타 불발로 뜻을 이루지못하고 3회말 포볼로나간 선두 9번 金昌秀를 北一중견수李康昊의 수비실책으로 홈에맞아들여 간신히 1점을 만회했다。

北一은 4회초 1안타, 폭투, 적실, 희생플라이로 1점을 더한데 비해 仁川은 4회말 2안타를 쳐놓고도 병살로 불러놨으며 5회말에도 안타로 마련한찬스를 병살타로 망쳐버렸다。

◇제14일3회전

	1	2	3	4	5		계
보성고	0	1	0	0	0	—	1
대구고	2	2	8	2	×	—	14

〈5회콜드·게임〉

▲보성투수=辛炳允(1、3회)、趙光文(2、3회)、高智峯(3회)=포수=韓萬征、金鎭漢(3회) ▲대구투수=李滿雨、金秉奎(4회)=포수=李成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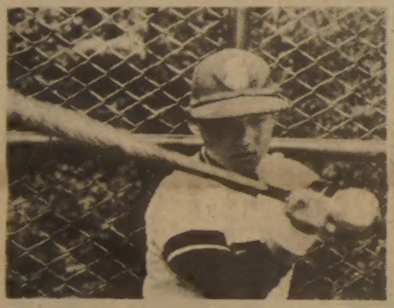
	1	2	3	4	5	6	7	8	9		계
북일고	4	0	1	1	0	0	0	0	0	—	6
인천고	0	0	1	0	0	0	0	0	0	—	1

▲북일투수=安聖洙 河仁秀(9회)=포수=金相國 ▲인천투수=金榮善 金昌秀(1회)=포수=金東基

세얼굴의 선수 李成根

포수·구원投手·强打者로

鳳凰스타



李成根은 두 얼굴을 가졌다。원래 포수인 李는 群山商高와의 1회전서 주전투수 李滿雨가 난조에 빠지면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마운드를 밟는다。도 2회에 등판, 7회를 던져 大邱高가 3-2로 역전승하는데 기여했으며 대봉기대회때도 투수로 활약, 고향팬들에게는 포수보다는 투수로서의 이미지가 강하다。

『成根의 볼은 컨트롤이 안정되고 커브각도가 예리해 평소 연습때는 프리·배팅볼을 많이놓고 던진다』고 成基泳감독은 말했다。이날 普成高와의 대전서는 계속 포수만맡았으며 1회말 2루타 1개를날리고 연속 포볼을 얻는등 타격서도 위력을 보였다。

4번타자인 李는 금년도 공식경기서 3할6푼의높은 타율을보이고있다。慶州月城국교서 야구를 시작, 月城中을거쳐 大邱高에 진학했다。포수로서는 상위수준급이라는 평을받고있다。李泰植씨(53·상업)의 6형제중 세째로 성격이원만해 『고구마』라는 별명을 갖고있다。1m75、74kg。

野球팬들의 觀戰매너 좋아져 수월

운동장警備경찰관、雜商 단속도

鳳凰관람석

◇金正彩경비계장㊧과 孫京哲경비반장。

전국고교야구대회때마다 경비경찰관들의 노고는 대단하다。스탠드 안팎에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각종 사고에 대비, 한순간도 긴장감을 풀지 못한다。봉황대기 경비를 책임지고있는 서울동부경찰서 金正彩경비과장(52)은 『한동안 관전태도가 날로 좋아지는것 같다』고 말하고 야구팬들의 관전태도가 아직 모자라 그러나 소주병을 몸에감추고 입장하는 관람객이 간혹 있어 이들을 적발하기 위해 애를먹고 있다는것。

스탠드 안팎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있어 흐뭇하다는 孫京哲경비반장(44)의 이야기。

그러나 소주병을 몸에감추고 입장하는 관람객이 간혹 있어 이들을 적발하기 위해 애를먹고 있다는것。술에 취해 만취된 스탠드서 추태를 부리거나, 소주병을 그라운드로 던지는등의 몰지각한 관객도 가끔 있다는 것。

전국고교야구대회가 끝나면 경비경찰관들이 입장하는 나면 경비경찰관들이 입장 문에서 적발 하여 임시보관하는 물건들이 수북히 쌓이는데 관람객이 찾아가지 않을 경우 불우청소년직업학교 학생들을 위해 쓰여진다는것。

또 얼마전 제8문 옆의 화장실에서 잡상인들이 숨겨놓은 2백30여개의 소주병을 적발했다。【奎】

한국、金4 銀5 銅6 종합2位

中共1위 安智榮혼자서 金3

亞洲力道폐막

【나고야(名古屋)19日=聯】제3회 아시아 역도선수권대회가 19일 폐막, 한국은 금4、은5、동6개로 中共에 이어 종합2위를 차지했다。

최종일 1백10㎏급서 한국의 安智榮은 인상서 1백55㎏, 토틀서 3백35㎏을 기록, 각각 은메달을 추가했고, 용상서는 1백82·5㎏을 기록, 동메달을 따냈다。

한편 中共은 금18、은17、동1개로 우승을 거두었으며 3위는 금2、은4개를 따낸 레바논이 차지했다。

전날인원 1백㎏급서 安智榮은 인상, 용상, 총계등 가부문을 석권, 금메달 3개를 따냈다。

◇최종일기록

◆1백10㎏급 ▲인상=①양·화이·징(중공) 155②安智榮 152·5 ▲용상=①모나트·우아에일(이라크) 185③安智榮 182·5 ▲총계=①양·화이·징(중공) 340②安智榮 335

◇메달집계

	금	은	동
①中共	18	17	1
②한국	4	5	6
③레바논	2	4	0
④日本	1	9	10
⑤이라크	1	1	5

테니스常備軍 평가 金春浩 金榮煥 1승

금년도 남자테니스 상비군 최종평가전이 金春浩 田昌大 金寧洙 宋東極 李우룡、金榮煥 周昌男등 우수선수 7명이 참가한가운데 19일장충코트서 개막됐다。풀·리그로 진행되는 대회첫날경기서 金春浩(명지대)는 田昌大(명지대)를 3-0(7-5、6-4、6-1)으로 물리쳐 1승을올렸으며 金榮煥(대우중공업)도 周昌男(대우중공업)을 3-0으로 제압했다。대회는 25일 폐막된다。

◇제1일전적

金春浩 3 (7-5 6-4 6-1) 0 田昌大

金榮煥 3 (6-3 7-5 6-4) 0 周昌男

國際大會 서울유치 體操協서 추진

대한체조협회는 메달 박스종목이면서도 낙후일로를 걷고있는 국내체조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내년중 서울에 국제대회를 유치하고 전용체육관을 건립키로 했다。

金常起회장이 지난7일 국제연맹총회에 참석한뒤 구상, 17일 이사회에서 통과된 이 체조중흥계획안에 따르면 국민들의 체조인식을 높이기위해 내년12월께 국제규모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키로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오는12월 日本서 열리는 쥬니찌(中日)컵대회에서 국제연맹관계자들과 만나 토의키로 했다는 것。

또 경기시설을 보완키 위해 2~3년안에 전용체육관을 세우고 泰陵선수촌의 현체조용구를 크게 늘리기로 했다。

한국 女子2승、男子 1승

太平洋 주니어排球

【힐로(하와이)19日=聯】한국여자 주니어배구대표팀은 19일상오(한국시간) 하와이 힐로섬에서 개막된 제8회태평양연안 청소년배구대회 첫날경기에서 브리티시·콜럼비아(캐나다)와 美國을 연파, 2연승을 올렸다。남자팀도 브리티시·콜럼비아를 3-0으로 꺾고 서전을 장식했다。

한국여자팀은 이날 美國과의 대전에서 李恩敬 金允子의 속공으로 첫세트를 15-5로 잡았으며 제2세트서도 16-14로 역전승, 세트스코어 2-0으로 앞섰다。한국은제3세트에서 15-6으로패했으나 제4세트서 李恩敬 金貞順의 오픈공격, 朴美姬의 연타, 李榮喜의 속공을 묶어 15-3으로 이겨 경기를 끝냈다。

◇첫날전적

▲여자부

한국 3 (15-5 15-3 15-5) 0 브리티시·콜럼비아

한국 3 (15-3 6-15 16-14 15-5) 1 미국

▲남자부

한국 3 (15-8 15-3 15-6) 0 브리티시·콜럼비아

베켄바우어 重傷 選手생활 어려워

뉴욕·코스모스팀에서 뛰다 西獨으로 돌아온 전설적인 축구선수 프란츠·베켄바우어(35)가 함부르거 SV팀과 벨기에의 안데레트팀과의 친선경기에 출전했다가 다리에 중상을 입어 선수로는 끝장이나게 될지도 모른다고 전문가들은우려하고있다。

이라크팀 不參

星港靑少年축구

【싱가포르18日AFP=聯】오는 30일부터 9월1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라이온시컵 쟁탈소년축구대회는 이라크가 참가신청을 철회함으로써 한국·中共및 日本등 10개국이 참가, 패권을 다투게 됐다。

한국·싱가포르B팀·사우디

同胞선수 連續홈런

日 甲子園대회

【東京=成仁滿기자】日本의 제63회전국고교야구대회(일명 고시엔대회)서 재일동포 선수들이 크게 활약하고 있다。

재일동포의 스타 플레이어는 호도꾸(報德)高의 투수이며 4번타자인 金義明(18·3년·일본명 金村義明)。

호도꾸高는 金의 활약으로 19일 열린 준준결승서 이마하루(今治)西高를 3-1로 물리치고 4강에 선착했다。

1m84、80kg의 좋은 체격을 갖춘 金은 지난15일 지난해 우승팀 요꼬하마高와의 2회전때 4회와7회서 2연타석 홈런을 때려 큰화제를 만들었다。

호도꾸高에는 金외에도 1번타자이며 3루수인 高廣秀、6번타자이며 중견수인 曺道明등 재일동포선수가 주전으로 맹활약하고있으며 교오또(京都)商高에도 4명의 재일동포선수가 있다。

86년 월드컵蹴球

流産가능성 높아

【보고타18日AFP=聯】오는86년도 월드컵축구대회 개최예정지인 콜롬비아는 의회가 대회주최에 필요한 정부의 재정지원안을 거부할경우 이대회를 주최할수 없을지모른다고 콜롬비아 의회의 라미로·안드라데의원이 18일말했다。

콜롬비아정부는 3억2천만달러에 달하는 개최비용을 재정지원하기위해 민간회사를 설립할것을 제의하고 있는데 의회내 월드컵주최반대단체를 이끌고 있는 안드라데의원은 콜롬비아가 월드컵축구에 거액의 비용을 투자할 능력이 없다면서 그같이 말했다。

아라비아·인도네시아및 泰國등과 함께 B조에 속해있던 이라크는 싱가포르축구협회(FAS)에 전문을 보내 팀파견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軟式정구代表團 하와이大會出戰

제4회 세계연식정구선수권대회(23~26·하와이)에 출전하는 한국남녀대표선수단 23명(임원7·선수16)이 20일 KAL편으로 장도에 오른다。

이번 대회에는 여자부2연패를 노리는 한국을 비롯 日本·自由中國·美國·브라질·홍콩·베네수엘라·자이레·필리핀등 9개국이 출전하는데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펼쳐진다。

黃善愛·金練子초청

11월 北歐大會서

덴마크 배드민턴연맹은 오는11월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코펜하겐에서 열리는81년도 스칸디나비아·마스터즈대회에 黃善愛(한국체대)金練子(성지여고)를 파견해 주도록 19일 배드민턴협회에 요청해왔다。

마스터즈 여자단식과 복식에는 張愛玲(중공) 베라와티(인도네시아) 요네꾸라(米倉·일본)등 세계의 강호6명이 초청됐다。

배드민턴서도 性對決

黃善愛, 말聯은퇴선수와

유럽會長이 추진

70년대의 테니스남녀性대결에 이어 배드민턴에서도 남녀대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배드민턴최초의 남녀性대결은 올해 全英오픈대회여자단식챔피언인 黃善愛와 말레이지아의 前全英오픈남자단식챔피언(50、51、52、55년 4회우승) 간에 벌어질 것같다。

유럽배드민턴연맹회장인 네덜란드의 에밀·테르·메츠씨는 18일 배드민턴협회에 공식서한을 보내 54세인 웡씨와 黃선수간의 경기를 적당한 시기에 말레이지아의 콸라룸푸르에서 개최할것을 제의했다。

부동산 매매

※바라이어티 스토어

주매상 3천불

ALL OPEN, SHORT HOURS.

원래 주매상 4천5백달러 시간 단축과 건물요일 단축으로 매상이 줄어듬

스토어 앞에 큰 아파트가 새로 서고 있음

이추에 2 베드룸 아파트와 베췰러 아파트가 있음

ASKING 2만5천달러

부인이나 노인 혼자 운전할 수 있고 부부가 같이 근무 할때는 매상이 크게 향상 될 것임

이윤이 많음

신용을 본위로 하는 이훈모 부동산을 찾아 주세요.

☎: 221-2084, 633-6813

(4975 YONGE ST. AT SHEPPARD ST)

이훈모 부동산회사

NORTH YORK CHEVROLET OLDSMOBILE G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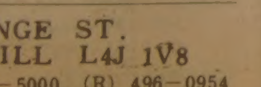
김 병 권

친애하는 교민여러분 항상 아낌없이 성원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6월1일부터 저희 회사에서는 종전과 같은 주소에 카나다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제일 큰 쇼-룸과 써비스 시설을 갖추고 여러분에게 보다 만족스러운 써비스를 제공할수 있게 되었아오니 1차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김 병 권 올림

새차및 중고차



7200 YONGE ST.
THORNHILL L4J 1V8

☎: (B) 881-5000, (R) 496-0954

Addison

BUICK
PONTIAC
CADDILLAC

Cadillac

원 재 훈

새차와 중고차 LEASING

1) GM의 각종 모델 700여대의 스틱

2) G. M. C. 경량급 VAN, TRUCK 일체취급

3) 최고의 TRADE-IN

4) 1년 보장의 USED CAR

5) SERVICE EXELLENCE

ADDISON BAY at COLLEGE

(B) 964-3211 Howard Won

Grant Brown

차가 필요하십니까?
이한구를 찾아주십시오.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82년형 J-2000

잘 정비된 백여대의
Used Car들이 있읍니다.

1575 WESTON RD.
WESTON, ONT

(B) 247-7161
(R) 977-2731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현행稅率 전반적引下를"

한국經濟硏건의 純부담률 先進國상회

名目만 合理化·租稅法律主義 정착촉구

民間경제의 이론적 뒷받침을 위해 창립된 동연구원은 18일 「82년 稅法改正方向」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등 조세제도의 현실상 합리화에도 불구하고 세제의 정상기능이 악화되고 부담편중이 심화되는 근본이유는 조세순부담률이 높기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80년현재 조세순부담률이 17.72%로 1인당 소득이 우리의 4~7배인 EC수준(18.8%)에 육박하며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보다 오히려 높다고 강조했다.

이보고서는 정부가 적정순부담률을 유지해주면 세율을 훨씬 더 낮추어도 稅收증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앞으로 순부담률의 증가를 일정기간 동결하고 목표 實效稅率의 일치, 편중의시정, 조세법률주의의 정착등을 추구하도록촉구했다.

이보고서는 또 소득세법인세율을 내리고 근로소득세는 定額控除와 定率控除를 병행하는 새로운 공제제도를 채택하는한편, 소득세累進度를 완화하라고 건의했다.

또 부가가치세의 기본세율을 현행13%에서 10%로 인하하고 탄력세율범위를 4%로 확대하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지상배당세제를 폐지하고 산업구조및 소비수준변화에 맞춰 특별소비세과세대상과 세율을 조정토록 이보고서는 건의했다.

教育稅 景氣풀린뒤 抵抗없게

新設보다 자연增收分전용

全經聯부설 韓國經濟硏究院(원장 申泰煥)은 사회보장 제도및 정부보조금등까지를 고려한 우리나라의 租稅純負擔率이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기때문에 앞으로 정부財政은 순부담률의 純增을 일정기간 동결해야하며 세율은 전반적으로 내려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敎育稅의 신설은 조세저항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 교육재정세를 우선순위로 재검토를 통한 교육재정의 효율화、현행稅制내에서의 교육재원염출및 국세 지방세에의 자연增收分을 다음해 교육재원으로 자동전입하는 방안등의 마련이 바람직스럽다고 지적하고 교육세신설이 국민부담을 연평균 GNP의 0.85%씩 더 늘릴 우려가 있고 실시시기도 경기회복전망이 뚜렷한 시기를 택해야한다고 분석했다.

非違공무원 摘發즉시 懲戒

各部處監査 본격화 國稅廳등 百40여명 조치

秋夕전후 暗行특별監査도

公職者사회의 부조리 一掃와 「깨끗한 政府」지향을 위해 정부가 지난 7월末부터 各部處別로 전반적으로 실시하고있는 監査활동은 18일로 실시20여일에 접어들면서 各部處의 여건과특성에맞춰 부조리요인을 찾아내는 작업과 함께 非違、非行、적발、처벌조치를 竝行하는등 점차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監査는『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맑고깨끗한 정부를 유지키위해 모든 공무원은 지위의 높고낮음을 막론하고 不條理와 非理의발생을 예방하고 일소하라』는 지난달21일 全斗煥 대통령의지시에따라 실시되는것으로 정부가 일제히 各部處別로 自體감사를 하기는 정부수립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이번감사에있어 오는11월말까지 1차활동 기간으로정하고▲각部處별로 어떤직책이 부조리의소지를 안고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찾아내고 ▲감사를통해 비위와관련한 공무원을적발하는 경우 즉각수사토록 의뢰하거나 징계하는등 적절한조치를 병행해나가고 ▲1차활동기간이끝날때쯤 활동상황을점검、보완대책을마련한다는 방침을세우고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활동의 중점분야는 民願업무부서와 對民관계가 많은 직무, 경제部處및그산하기관의 근원적인 부조리요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대부분의 部處에서는 감사관을 중심으로 職務와 관련, 부조리의소지를 찾아내는 職務감사반과 非行者를 찾아내는 暗行감사등 二元化된 특별감사반을 편성, 本部주변뿐 아니라 지방기관에까지 내려보내 활동케하고있다.

우선 9월초부터 秋夕을전후한 暗行특별감사활동을 계속하고있는 국세청은 이미호화생활을 해온 세무공무원41명을 免職시켰고 非違관련자12명을 파면, 6명을 직위해제、35명을 경고조치했다.

치안본부는 고급부문에서 부조리관련자13명을적발, 3명을 면직시키고 5명을 他道로전출, 5명을 他部署로 전보했고 노동부도 非違에관련된 서기관1명을 권고사직시키고 下級職3명을 직위해제하는한편 31명에게 減俸또는 경고등 問責을했었다.

經濟部處를보면 財務部의 경우 지난번 韓銀釜山지점사건과관련, 고질적인 金融부조리일소를위해 모든 금융기관에 暗行監査班을파견, 활동케하고있고 상공、건설부등은 업자들과의 접촉이빈번한 부서를 중점감사하고있다.

또 경제기획원등 일부경제부처에선 공무원자신이 깨끗하기위해서는 정화의 기풍이 가정에까지 파급돼야 實効를 거둘수있다는 판단에서 공무원의 부인에대한 특별교육을 계획하고있으며 문교부는 여름방학이 끝나는 이달 말부터 일선시·도 교육위원회나 교육청、학교등에 활동의중점을 두는 감사를 실시할계획을 세우고 각기관장의 자녀관리등 개인생활에 대해서도 관찰할 예정이다.

외무부에선 海外公館의 감사활동계획을세우고 이미 1명을 美洲지역에 내보내고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특별 감사활동과정에는 일부 부작용과 문제점이 제기되고있는데 대부분의 부처에선 암행감사요원에게 일정한件數의 비위를적발, 보고하도록하고 있어 實績과 할당量主의결과가 나오지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한편 이같은 각부처의 감사활동등 노력이 집중되면서 공무원들의 몸가짐과 행동이 한결 조심스러워졌다는 평을 듣고있다.

리비아 住宅省장관 全대통령、接見敍勳

全斗煥 대통령은 18일상오 모하메드·알·망고시리비아住宅省장관을 접견하고 修交훈장光化章을 주었다. <사진> 이자리에는 金周南건설、金容烋총무처장관과 부사·사반리비아經濟省차관이 배석했다.

趙名人도접견 환담

全斗煥 대통령은 18일 하오 귀국중인 일본바둑계의 名人이며本因坊인 趙治勳9단과 부인 小林禮子(고바야시·레이꼬)씨를접견, 환담했다. 이자리에는 李光杓문공장관、李元洪한국방송공사사장과 趙名人의兄 趙祥衍씨가 배석했다.

政治資金調達 내달 具體化

黨운영비로 기탁·補助金등 모색

民正·民韓총장접촉

각정당의 政治資金難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오는9월 중순께 마련될것으로 보인다.

辛相佑民韓黨사무총장은 18일 『17일하오 權正達民正黨사무총장과 접촉을 갖고 정치자금조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히고 『정당후원회 구성과 병행하여 시급한 당운영자금을 우선 마련키로 했던 지난번 총장회담의 합의에 따라 오는9월에 國庫보조금 또는 기탁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했다』고 말했다.

그는 『權총장이 美國·日本방문후 귀국하는 9월중순께 구체적인 진전이 있을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는데 이에 따라 오는20일을 전후하여 배분될것으로 알려졌던 정당운영비를위한 제2차 國庫보조는 9월중순이후에 지급될것으로 보인다.

韓美合作銀 우리側 대표株主

大宇그룹으로 確定

韓美합작은행 우리측 대표주주로 大宇그룹이 확정된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재계에따르면 우리측 6대주주의 하나인 大宇그룹은 지분을 9%로 나머지 5개대주주의 7%보다 2%더 많은 지분을 차지, 한국측경영권의 대표주주로확정됐다.

지난주에있었던 6대주주회합에서 大宇측은 경영권확보를위해 19%의 持分을 가져야한다고 주장했으나 다른주주들의 반발로 합의를 못봤었다.

대주주모임을 주재한 鄭壽昌商議회장은 6대주주들로하여금 18일까지 7%범위안에서 각기업들이 필요한持分率을 적어내도록 절충안을 제시한뒤 만약7%이하로 적어내는기업이 있을경우 남는지분을 대표주주에게 넘겨주기로 했었다.

그러나 이날商議에 6대기업들이 제시한 持分率은 종전의 7%를 고수, 大宇측은 소주주에게 돌아갈 9%중 2%를 차지함으로써 1인대주주로 확정됐다는 것이다.

常委활동 豫決委반영

民正 定期國會서 開會와 동시豫算심의

民正黨은 오는9월 정기국회에서는 새國會法上 예산심의권을 관계常委가 갖지않고 豫決委가 가지고 있기때문에 常委활동이끝난뒤 豫決委를열어 10일정도로 새해예산案에대한 종합심사를 해왔던 종래의 국회와는달리 정기국회開會와 동시에 豫決委를 구성, 常委활동과 竝行하여 稼動할 방침이다.

民正黨은 18일 정책위산하 豫決委에서 이같은 정기국회豫決委운영방침을 결정했는데 회의가끝난뒤 朴權欽의원은 『예산안에 대한 豫審을위해 관계常委를 장시간운영하던 과거의 국회와는달리 豫決委만이 예산심의권을 갖고있기때문에 정기국회 개회와 동시에 豫決委를 구성하여 곧 예산심의에 착수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날黨豫決委는 정기국회에서 비록常任委가 예산심의권한은 없으나 豫決委와 竝行해서할경우 各常委소관업무브리핑청취와 정책문제점과의견을 그대로豫決委에 반영、국회운영에 보다 實效를 거둘수있다는점에서 竝行稼動에 의견을 모았다.

朴의원은『豫決委의 기능은 종전 국회법에 비해 훨씬 강화되었으나 그러한 기능을 뒷받침할 제도적인 준비가부족한상태』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補強하기위해 7~8개 分科委를 두어 분야별로 예산심의를 하도록하고 전문위원도 증원하는한편 각 分科委별로 활동할수있도록 따로 국회내에 사무실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日大使 일시歸國

마에다·도시가즈(前田利)

駐韓일본대사가 東京에서 열리는 韓日外相회담에 앞서 본국정부와의 政務협의차 18일하오 일시 귀국했다. 마에다대사는 外相회담이 끝난뒤 24일 귀임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安保관련 經協불응

日、外相會談 방침세워

【東京18日=宋孝彬특파원】일본외무성은 18일 소노다외상、스노베사무차관、기우찌(木內)東北亞국장등 관계관이 참석한가운데 韓日외상회담에 임하는 대책을 협의、북괴의 군사력증강에 따른 한반도의 긴장을 인식하고 한국의 방위증강 노력에 대해 이해하고는있으나 안보와 관련된 경제협력은 하지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날 대책회의는 안전보장을 대신한다는 명목으로 한일 경제협력은 하지않는다는 기본입장을 세우면서 ①극동에있어서 소련군의 군사력증강과 북괴의 군사력증강에 따라 한반도의 긴장이 존재하고있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②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속에서 방위력증강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점을 이해하며③한국이南北대화를위해 노력하고있음을평가했다.

盧外務 내일向日

韓日 外相會談 참석

20일 東京에서 열리는 韓日外相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盧信永외무장관을 수석대표로하는 11명의 정부측대표단이 20일상오10시 KAL便으로 出國한다고 외무부가 18일 공식발표했다. 隨行員명단과 日程은 다음과같다.

隨行員

▲崔慶祿駐日대사 ▲崔昌洛경제기획원차관 ▲金在益청와대경제담당수석비서관 ▲孔魯明외무부政務次官補 ▲李相振駐日公使 ▲崔東鎭외무부亞洲局長 ▲李琪閔국제경제국장 ▲金庚哲통상국장 ▲柳得煥상공부통상진흥관 ▲李在春외무부日本담당관

日程

◇20日▲상오10시=金浦출발 ▲하오3시30분=日외務省에서 1次外相회담 ▲하오7시=시로가네(白金)영빈관에서 소노다外相 초청만찬
◇21日▲상오=스즈끼수상등 日정계인사 예방및 양측실무局長級회담 ▲하오2시30분=2次外相회담(日외무성) ▲하오6시30분=駐日대사주최 리셉션
◇22日▲상오=民團간부들과 조찬후 日政界요인 예방 ▲양측 실무담당자간의 오찬 ▲하오=스노베(須之部)日외무성사무차관주최 비공식만찬
◇23日▲상오=駐日대사관간부및 駐日각급공관장을 위한 早發 ▲하오3시40분=金浦귀국

太白山 국민觀光地로 개발

技術陣초빙 現地답사 끝내

【太白=黔】강원도太白市는 17일 太白山으로 알려진 太白山을 국민관광지로 개발키로 결정하고 1차 현지조사에 착수했다.

太白市의 이같은 종합개발계획은 전국 제일의 광산도시인 太白市가 수십년내에 자원고갈상태에 이를것으로 판단, 조속한 관광개발의 필요성에서 취해진것.

이에따라 市는 관광개발원기술진을 초빙, 지난14일부터 16일까지 太白山(해발 1,547m)주봉까지 현지답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太白山과 咸白山이 스키장으로 개발될 경우 현재의 대관령스키장보다 훨씬 입지조건이 나은것으로 밝혀져 太白山을 母山으로하며 인근 군봉들을 연결하는 기존등산로와 또 所道里일대 (속칭당골) 자연경관이 수려한 점을 들어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또 太白山정상에있는 단군제단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겐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으나 등산로로는 각광을 받지못하고 있어 82년도에 越~黃池(所道)간의 86·6km도로가 포장완공되면 전국 제일의 등산코스가 된다는 것.

◇太白山정상에있는 檀君제단。太白市는 이太白山을 국민관광지로개발을 서둘고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地平線

新安앞바다의 해저보물선으로 세계에 떠들썩한 화제를 던진 우리나라 近海엔 도서에도 보물선이 또 잠겨있는것이 이제 뚜렷해졌다. 이번엔 安興앞바다에서 11세기 高麗靑瓷등 1천여점이 발견되는가 하면 鬱陵島근해에선 수산 50兆원 이상의 보화를 싣고 가라앉은 러시아보물선 인양작업이 내달부터 본격화한다는 소식이다.

▼국제적 관심거리인 러시아보물선은 1905년 5월27일 露日전쟁때 금은보화와 골동품을 싣고 고전중 일본해군의 공격을 받아 침몰한 6천2백톤급 순양함 드미트리·돈스코이호로 76년만의 인양시도이다. 문화재관리국、한은、국세청등과 절충한 결과 인양회사측에서는 83년 2월까지 선체를 끌어 올린다고 하니 세계의 눈이 또 한번 한국에 쏠릴 것이 틀림없다. 지금 시세로 50조원이나 된다는 보화속에 과연 무엇이 들어있는지 자못 궁금해진다.

▼新安에 뒤이어 安興앞바다에서 발견된 제2보물선은 스쿠버·다이버들에의해 확인된것이다. 뻘속에 파묻혀 선수부분만 내밀고있는 목선언저리에 청자 배자등이 열및 개씩 포개져 묶여있는상태로 깔려있다는 것이다. 元代褐釉四耳瓶도 끼어있다고 하니 기대해 볼만하다. 이고장 해상에서는 수십년전부터 어부들의 그물에 청자등 도자기가 심심찮게 걸려나와 당국에 신고된 일도 있고 도자기 몇점씩을 보관한 어부들이 수두룩 하다고 하니 지금껏 방임되어온것이 안타까울 정도다.

▼그뿐아니라 옛적부터 難行梁으로 알려진 安興앞바다의 馬島근처는 고려때부터 양자강에서 목포를 거쳐 예성강으로 올라가는 무역항로로 알려져왔다. 암초가 있는데다 조류가 급해 여울목에서 해난사고가 많이 난 이길목엔 보물이 무진장 흩어져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므로 소극적인 해저발굴작업을 할것이 아니라 이번기회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광범위한 인양작업을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뒤따라 울릉도근해에서 러시아 보물선인양작업을 시작하므로 안흥앞바다에서도 청일전쟁때 침몰한 군함이라도 끌어올릴수 있다면 좋은 대조가 될지 모른다.

▼6백년만에 햇빛을 본 新安앞바다의 보물에 이어 안흥앞바다의 보물선도 그 인양성과에 대한 관심은 한국민뿐만아니라 세계의 주목을 끌듯하다. 게다가 러시아 보물선까지 인양된다고 하니 차근히 실수없이 일을 처리해 나가야 後代에 부끄럽지 않을 것같다.

봉황대기고교야구

오늘의 対陣 ▲3회전
▲普成高—大邱高 (12시반)
▲北一高—仁川高 (3시)
(19日)

어제의 결과 ▲3회전
慶北高 信一高 善隣商 世光高
0 3 0 3
(18日)

한독약품 협찬

社会漫評

나를 「앓은뱅이」로 아는 모양이구나…

구독신청은 (416) 533·2361

ROLEX

결혼·약혼 예물은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 온스당 US 428
은 : 온스당 US 950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534-7791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아는 것이 힘"
소매상경영학 강좌안내
RSI RETAIL SERVICES INSTITUTE

〈캐나다 로스만·팔말 주식회사〉는 고도의 경쟁 속에 어려움을 겪는 소매상을 위한 무료 경영학강좌를 마련했읍니다.

동사의 소매상경영연구소(Retail Service Institute)가 주관하는 이 강좌는 캐나다의 현존하는 소매상들을 위한 이익 개선책과 경영의 능률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 강좌는 소매상 경영학 전문코스로서 각종 세미나와 같이 일주일 한번씩 5주~6주간 개최됩니다.

지금까지 7백여명 소매상 경영주들이 거쳐간 이 강좌는 오는 9월초부터 새로 시작될 예정이며, 10명 정도의 조그만 경영학교실이 될 것입니다.

등록은 선착순이며 $25의 등록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등록금은 종강후 되돌려드립니다.

이 강좌에서 쓰이는 모든 교재와 자료는 무료입니다. 한국인 통역이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한국인들만을 위한 강좌입니다.

등록문의는 : 1500 DON MILLS, DON MILL, ONT.
전 화 : (416) 449-5525
THE RETAIL SERVICES INSTITUTE
MR. PETER TESAR

●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 수리중 차 대여
○ 완전한 차체수리
○ 사고차량 Towing Service
○ 페인팅(Oven Bake Finishes)

MISSISSAUGA AUTO COLLISION 69 JOHN ST.
최신의 시설을 갖춘
MISSISSAUGA AUTO COLLISION
69 John Street, Mississauga, ONT.
Bus.: 275•3131, 3133 Res.: 622-1171
정 창 현

"OPEC 점차 瓦解된다"

美誌보도 超高價·代替에너지開發촉진에

◇예비會談참가한 石油相들 19일 개막되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임시 석유상회담에 앞서 17일의 예비회담에 참가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베네수엘라 3개국의 석유상。【제네바17일AP電送=聯合】

"세계原油市場을 파괴"

과잉供給해소등 이번會議서결정

한때 세계경제를 뒤흔들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석유수출기구(OPEC)가 점차 와해되고있다고 美시사주간지 유·에스·뉴스 앤드·월드·리포트誌가 24일자에서 보도했다.

이 주간지는 전문가들이 OPEC가 지난72년부터 유가를 1천5백%나 인상해 세계원유시장을 파괴하고 대체에너지개발을 촉진한것으로 분석했다고 보도했다.

이 잡지는 OPEC의 석유상들이 19일 제네바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잠정적인 휴전을 모색할것이나 자초한 화를 극복하지 못할것이라고 예견했다.

또 이잡지는 OPEC붕괴의 징조가 세계도처에서 터지고있다면서 OPEC를 결속시켜왔던 유가가 전세계적인 공급과잉현상으로 폭락, 일부 산유국들이 최근 유가를 배럴당 4달러씩이나 인하하는 현상을 빚었다고 보도했다.

원유의 공급과잉을 종식시키고 유가를 단일화하려던 지금까지의 노력도 실패했다고 말한 이잡지도 OPEC회원국들의 산유량이 최근 격감, 일부 산유국들은 심각한 재정문제에 봉착해있다고 지적했다.

의욕적인 경제개발사업등으로 많은 오일달러가 필요한 리비아의 경우 산유량이 연초 일산1백60만배럴에서 반으로 격감했고 나이지리아는 일산2백만배럴의 반으로 줄었고, 쿠웨이트는 일산1백20만배럴에서 90만배럴로 줄었다는 것이다.

이잡지에의하면 OPEC 강경국이 최근 주요석유회사 대표들을 트리폴리로 불러 원유구입량을 늘리라고 압력을 가했으나 실패하자 유가와 산유량의 조정을위한 제네바 OPEC특별회의의 소집을 요구했다는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현재의 입장을 고집한다면 OPEC는 끝장이다」고 경고했다고 리비아외상 투라이키는 말했다는 전했다.

OPEC가 진통을겪고 있을동안 유값이 떨어지자 미국과 일본및 유럽국가들은 유가상승의 중단을 여유있게 즐기고 있다면서 동지는 미국에서 휘발유값이 최근 갤런당 4센트(21원)가 떨어졌음을 지적했다.

이잡지는 중동의 서방외교관들이 현재의 추세로는 과거70년대에 세계가겪었던 석유값의 상승이 없을것으로 보았다.

【런던17日外信=聯】【外信部】제네바에서 열리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특별석유상회의는 새로운 유가및 사우디아라비아의 산유량감축에 관한 모종의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세계적인 원유공급 과잉상태의 해소는 어려울것 같다고 런던에서 발행되는 석유전문지 주간석유정보(PIW)가 17일 보도했다.

PIW는 이번 제네바OPEC 석유상회의에서 배럴당 32~40달러로 다원화돼 있는 현재의 OPEC유가가 34~37달러로 새로 책정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의 구매의욕을 크게 고취시키지는 못할것이라고 지적, 이같이 전망했다.

油價引下 사우디引上으로 實益적어

오늘 제네바서 OPEC會議

해설

【제네바17日=聯】오는 19일 제네바에서 열릴 석유수출국기구(OPEC)회의는 최소한 일부 회원국들에 있어서는 가격인하조치에 동의하는 회의가 될것으로 보여 OPEC의 사상 독특한 면모를 갖춘 회의가 될것으로 보인다.

油價 引下확실

OPEC 創設20년만에 처음내려

【제네바17日UPI·로이터=聯】석유시장의 공급과잉 해소책을 논의하기위해 19일 제네바에서 긴급석유상회의를 개최하는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유가인하를 통한 유가단일화를 주장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압력에 리비아·나이지리아·알제리등 고유가 강경파들이 굴복, 유가인하에 동의할것으로 알려짐으로써 OPEC창설 20년만에 처음으로 기존유가를 인하조정하는 획기적인 타협안에 합의할것으로 17일 알려졌다.

波印刷工 "罷業" 경고

官營언론선 反勞組캠페인 抗議

48시간 全國 신문印刷拒否

【바르샤바17日UPI·로이터=聯合】폴란드신문인쇄공들은 관영언론들을 동원한 당국의 반자유노조캠페인에 항의, 18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준비를 완료했으며 파업·야채판매상인들도 정부의 가격통제에 반발, 같은날부터 항의파업에 들어갈것이라고 17일 발표했다.

자유노조지도자들은 당국이 관영언론을 통한 반자유노조캠페인을 중지하고 자유노조의 언론접근을 자유롭게 보장하지 않는한 인쇄공들은 18일부터 48시간동안 전국지와 지방지의 인쇄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리랑카 非常事態선포

人種暴動 방화·약탈로 번져

【콜롬보17日AFP=聯】주니우스·자예와르데네 스리랑카대통령은 지난 2주 이래 중부라트나푸라를 중심으로 계속돼온 인종폭동이 방화, 약탈등 불법행위와 함께 점차 걷잡을수 없는 국면으로 치닫게되자 17일을 기해 전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加、中共에 戰略무기 판매

平和主導위해 緊密협력

【北京17日AP=聯】캐나다는 중공에 「모종의 전략물자」를 판매할 용의가 있다고 마크·머귀건 캐나다외상이 17일 밝혔다.

외원및 경제계인사가 포함된 캐나다사절단을 이끌고 11일간의 중공방문에 들어간 머귀건외상은 이날 北京방문을 마치고 가진 회견에서 중공에 무기를 판매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캐나다는 전통적으로 무기공급국가가 아니다」라고 전제한뒤 「그러나 여타국가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중공에 대해서도 모종의 전략물자를 공급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美·中共 공격武器거래 지연

머귀건외상의 대중공전략물자판매발언은 헤이그 미국무장관이 지난 6월 北京방문시 중공에 공격용 무기를 판매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지 2개월만에 나온것으로 주목된다.

異見差 못좁혀… 選別단계에

글렌上院議員밝혀

【北京17日AP=聯】중공과 미국은 공격용무기 거래문제에 아직 상당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고 北京을 방문중인 존·글렌 미상원의원(民·오하이오)은 17일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글렌의원은 중공지도자들이 자신과의 회담에서 중공이 앞서 미국으로부터 구입하고자하는 무기들의 목록을 미국정부에 제시했다고 말했다.

글렌의원은 자신이 이에대해 중공이 미국정부에 보낸 무기목록이 「수량을 전혀 밝히지 않고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상원외교위원인 글렌의원은 또 「미국은 아직 판매대상무기를 선별하려 노력하고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헤이그 미국무장관은 지난 6월 北京공식방문중 공격용무기의 대중공판매방침을 발표하면서 중공해군 부참모장 劉華淸이 8월중 미제무기구입문제에관한협상차 워싱턴을 방문할것이라고 밝힌바있다.

"오스월드屍體는 가짜"

부인、警察서 찍은 入棺때 사진보고

◇존·F·케네디 암살범 리·하비·오스월드。

◇오스월드 미망인 마리너·오스월드·포터。

오스월드는 당시 24세에 대머리

棺속남자는 30대에 머리숱 많아

"무덤 公開…규명하라"

【댈라스17日UPI=聯】존·F·케네디 대통령을 저격암살했던 오스월드의 미망인 마리너·오스월드·포터와 오스월드의 시신을 방부처리했던 장의사 폴·그래디 두 사람은 16일 오스월드의 시신이들어가 있어야 할 관속에 오스월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시신이 들어가 있다고 주장, 주목을 끌었다.

이들 두사람은 그 증거물로 오스월드의 관을 찍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이들은 오스월드의 무덤을 속히 열어 진상을 규명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미망인 포터가 허락을 받기위해 법원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공개한 문제의 사진은 존·F·케네디의 암살을 다룬 「음모」라는 책자에 실려있던것으로 오스월드의 관속에는 검정타이에 검정웃옷을 입은 30대후반의 사람이 들어있음을 보여주고있다. 관속의 사람은 풍만한 목에 숱이 많고 짙은 머리를 하고있다.

장의사 그래디여사는 사진을 보고서 「이 사람이 오스월드라고는 믿을수 없다. 내가 방부처리해서 관속에 넣었던 바로그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있다.

오스월드미망인 포터도 「리·하비·오스월드가 아닙니다. 나는 도대체 관속의 인물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오스월드가 묻힐 때 그는 불과 24세였다. 그런데 사진에 찍힌 인물은 35세에서 40세사이의 나이로 보인다.

그러나 이마를 봐도 오스월드가 아님을 금방 알아볼수 있겠다. 오스월드는 대머리였다. 그러나 사진에 나타난 인물은 머리 숱이 많지않은가」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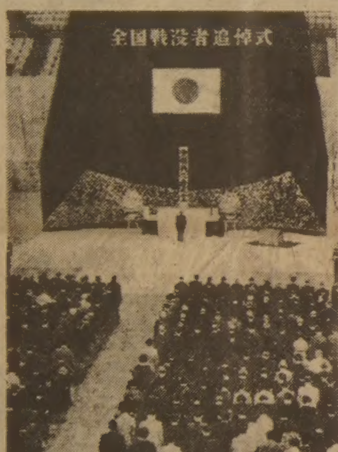
이 사진은 오스월드 시신이 매장될 준비가 완료된후 포트·워드의 한경찰이 찍은 것으로 당시 포트·워드의 스타·텔리그램紙의 기자인 짐·마즈가 입수, AP통신에 5백달러를 받고 팔았었다.

당시에 찍은 사진중 가장 잘된것 4장이 엔터니·서머즈가 쓴 「음모」(컨스피러시)에 실려 지난 80년에 발간됐으나 그때는 발행부수가 적어 많은 사람의 주의를 끌지못했었다.

미망인 포터는 「내가 살아있는한 그 무덤에 누가 손을 댔는지 여부를 밝혀내겠다」고 결의를 가다듬고있다.

그러나 포터의 집념에는 사스州 위치타·폴즈에 살고있는 오스월드의 모든 강력히 반대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日의 36회戰歿者추도식



36회째의 종전기념일을 맞은 일본은 지난 8월15일 東京 부도깐(武道館)에서 제19회 「전국전몰자 추도식」을 가졌다. 軍國主義정쟁에 희생된 3백10만전몰자의 명복을 비는 추도식은 해마다 열리지만 금년은 히로히또(裕仁) 천황, 스즈끼(鈴木) 수상, 유족등 참가자 6천6백명으로 과장사상 많은 수를 기록, 일본의 우경보수화무드를 뒷받침 했다.

「中性子彈비축」에 贊·反엇갈려

수년내戰爭介入가능

AP·NBC 輿論조사

對蘇정책에 64%支持

【뉴욕17日AP=聯】미국민들은 중성자탄의 비축에 찬·반견해가 크게 엇갈리고 있으며 상당수가 향후 수년내에 미국이 전쟁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는것으로 믿고있으나 중성자탄의 비축이 대소전쟁의 기회를 증대시키지 않을것으로 생각하고있는 것으로 AP통신과 NBC방송의 공동여론조사 결과 밝혀졌다.

지난 10·11일 이틀간 1천6백1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한 전화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31%는 레이건 대통령의 중성자탄 생산결정을 찬성했으며 26%는 반대, 35%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다수의 미국민들은 또한 레이건 대통령의 對蘇정책을 잘한다고 믿어 64%가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對이 戰鬪機 판매

美、引渡재개 결정

헤이그 發表

【로스앤젤레스17日AP·AFP=聯】미행정부는 이스라엘의 ...

蘇, 中性子彈실험

【로마17日AP=聯】東西군축위원들은 지난6월 모스크바 방문때 소련이 이미 중성자탄 실험을 했다는 결론을 내렸었다고 서독의 고위군축전문가이며 당시 모스크바방문단의 일원이었던 에곤·바르씨가 17일 밝혔다.

월도크卿 別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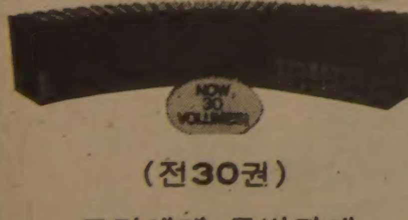
國際司法 재판소장

【헤이그17日路=聯】유엔산하 15人국제사법재판소장인 영국의 험프리·월도크경이 15일 헤이그에서 심장마비로 별세했다고 재판소대변인이 17일 발표했다。향년 77세。

메아리

合同民願

大英百科辭典
BRITANNICA 3



(전30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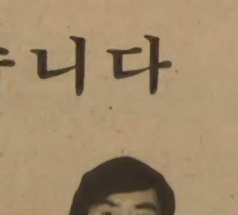
교민에게 특별판매

● 교회, 학교, 단체등엔 특별할인
● 국민학교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쓸 수 있읍니다.
● 모국의 동생, 스승, 학교에 보내는 편리한 방법도 있읍니다.

문의처 : 745-5485 미세스 황

사람을 찾습니다

본 명 : 이 시 교
(또는 이삼구)
나 이 : 43세



이 자는 한국에 처자식이 있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총각을 가장하여 토론토의 한인여성과 결혼, 이곳 영주권을 획득하고 캐나다에 온 후 곧 동 여성과 헤어져 미국 뉴욕등지와 토론토의 수많은 남편 없는 이혼여성들을 농락, 돈을 갖고 도망치는 수법으로 많은 피해자를 내었음.

본인은 이 자에게 1만달러 이상의 돈과 새 자동차(폰티악 80년도)를 사기당함으로써 이 자를 만천하에 고발하여, 더 이상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공고하니, 혹시 이 자의 거처를 아시는 분이 있으면 연락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이 자의 팔뚝에는 한국에서 여자에게 입으로 물린 상처가 있으며, 콧수염을 기르고 있음.

연락처 : 291-4547 미세스 윤

ICE CREAM FRANCHISE

아이스크림 사업을 생각하시는 분에게 절호의 기회.
METRO TORONTO, LONDON, KITCHENER, HAMILTON지역.
MAJOR MALL위치에 DEALER를 모집합니다.

자기자본 3만달러 요하며 차액은 은행융자를 알선함.

상세한 내용은 전화 :
741-2701 MR. KIM

SCOOPS ICE CREAM PARLORS INC

高여인 單獨殺人단정 拘束

尹甲富피살사건, 法院 기록검토 3시간半만에 슈狀(새벽2시)

"뒤뜰의 빨래줄·쇠망치 준비 TV보던 尹노파 머리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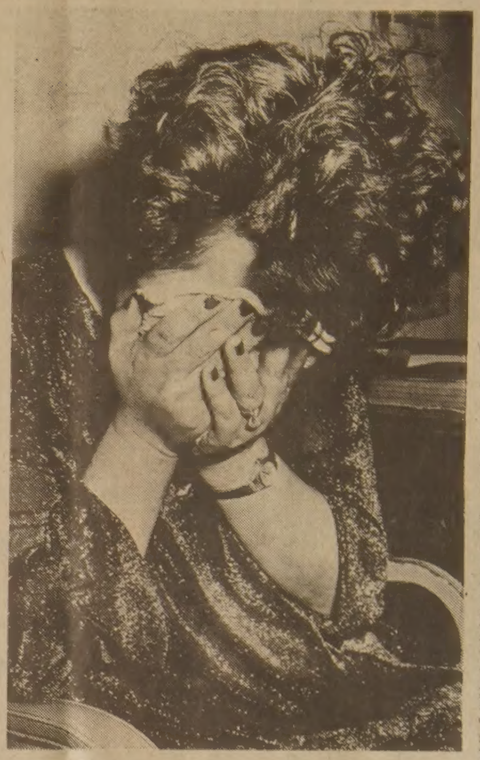
警察, 전모발표

서울龍山區 元曉路1街 10억대여갑부 尹甲花씨(72) 일가족 피살사건 수사본부는 17일하오6시 사건전모를 공식발표하고, 범인으로 단정해온 尹씨의 조카며느리 高淑鍾씨(46)를 서울형사지법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강도살인혐의로 구속했다. 高씨에대한 구속영장은 이날밤 서울지검 申熙求검사가 청구, 서울형사지법 항소4부 金炳宰판사가 이례적으로 3시간30분동안 기록을 검토한끝에 18일 새벽2시 구속영장에 서명했다.

이날 수사본부장 李尙衡총경(龍山경찰서장)은『高씨가 그동안 알리바이를 12번이나 번복하고 결정적인 증거확보가 안돼 수사에 애로가 많았다』고 밝히고『高씨가 범행당시입었던 원피스에서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자백내용과 정황증거등이 공소유지에 충분할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5·10면

겁먹고 달아나던 가정부 쫓아 8번쳐
2층에 숨은 養女찾아 때리고 목졸라



◇『죽여달라』울부짖는 高여인 수사관에 이끌려 모습을 드러낸 살인범 高淑鍾씨. 시종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린채『죽여달라』며 울음을 터뜨렸다.

"아파트커녕 10원도 줄수없다"에 앙심
"계획없는 單獨犯行…한땐 自殺생각도"

犯人高와 一問一答

지갑은 콩밭에 내다버려
패물은 베개속에 감추고
面會온 長女에 귓속말 지시

高씨는 지난6일 경찰에연행된후 면회온 장녀 美瑗양에게 귓속말로『패물을감추라』고 지시, 美瑗양은 집에 돌아온즉시 패물을 베개속에 감추고 손지갑과안경은 江南區三成洞 콩밭에버렸다고 말했다.

「음악의 나라 韓國」특집
英 더·타임즈紙 "아시아最高수준"

英國의 有力紙 더·타임즈는 지난3일자 신문에서 한국의 젊은 음악가들에대한 특집을 게재, 「음악의 나라 한국」의 이미지를 세계에심고있는 이들을 음악가들의 활동과 그 성장과정을 자세히 보도했다.

윌리엄·펀치기자가쓴 이기사는 서양음악을 받아들인지 1백년도 못되는 한국이 아시아에서서양음악이가장발전한나라로성장,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피아노를 배우고 서울에만 10개의 음악대학이있으며 자랑할만한 교향악단을 3개나 갖고있고 매년 2회의 음악제가 열리고있다고 소개하고 이러한 음악적 발전은 60년·70년代의 경제성장과 정부의 예술진흥정책에 힘입은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한국태생의 음악가들이 어떻게 그처럼 어린 나이에서부터 西洋에 쉽게 同化하여 西洋음악을 그렇게 깊이 이해할수있는지 경이로운일』이라고 말하고『나에게 음악은 東·西洋을 뛰어넘은 유니버설한 言語』라는 鄭明勳의 말을 인용했다.

더·타임즈는 세계적 바이얼리니스트·첼리스트·지휘자로 활약하고있는 鄭3男妹와 13살때 루돌프·제르킨에 발탁되어 미국·유럽·아시아 대륙의 심퍼니·스타로 성장한 바이얼리니스트 金永旭, 부조니피아노콩쿠르의우승자 徐惠京, 예후디·메뉴힌이격찬한 바이얼리니스트姜東錫, 뉴요크의 오페라무대에서두각을 나타내고있는 소프라노 李聖淑, 英國등 유럽에서호평을받고있는 피아니스트金亨圭등 세계무대에뛰어난 한국의 음악가제1世代를 일일이 소개하고있다.

◇姜東錫

◇金亨圭

10億臺 遺産은 어디로

정확한 액수모른채 相續놓고話題
조카 8명이 나눠가질듯
佛教界 헌납은 遺言등 없어 곤란

꽃도매상
437 CARLAW ST.
☎ : 465-8167

流星의 賦 <161>

李炳注作 李友範畵

山空花自紅 ⑪

張吉山 (1632)

黃晳暎作 崔然石畵

一部 四章 彌逆 勸謀 (92)

스타니슬라브스키 演技術
27일 文振院서 無料워크숍

⇒ 순교 영화상영 ⇐

주제 :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주연 : 신영균, 고은아

한국 전역 일반극장에서 대 절찬리에 상연되었든 감동적인 주기철 목사 순교 영화.

시일 : 1981 년 8 월 30 일(주일)오후3 시

장소 : 토론토 영락교회당

(126 O'connor Dr. at Pape Ave. Tor.)

전화 423 - 9880, 759 - 2006

주최 : 한국복음 선교협회

후원 : 영락교회, 성도교회, 펜티코스탈교회, 빌라델비아교회 기타

심령대부흥성회

강사 : 김 기 동 목사

할렐루야! 우리주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교포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본 교회에서는 한국에서 "말씀과 신유와 귀신쫓는 권세"를 가지시고 현재 한국에서 기적적으로 부흥되고 있는 성락침례교회(현재 6.000명 교인) 담임목사이신 김기동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성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이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일 시 : 1981년9월5일부터 9일까지

날 자	새벽기도	낮 공 부	저녁예배	비 고
5일(토)	없 음	없 음	7 시30분	
6일(일)	5 시30분	오후2시 대예배	〃	새벽안수기도
7일(월)	〃	11시	〃	〃
8일(화)	없 음	없 음	〃	안 수 기 도
9일(수)	〃	〃	〃	〃

장 소 : 기 독 교 대한감리회 서머나교회

교회주소 : 675 SHEPPARD AVE. E. WILLOWDALE

전화연락 : 752 - 9860

752 - 9727(김옥희 전도사)

751 - 5831(엄기옥 장로)

각종難治病 빛으로 치료한다

레이저光의 醫學的利用…그효험과 多樣性

빛으로 치료를 한다. 천분의1초란 짧은순간에 다이어먼드에 바늘구멍을 뚫고 한시간에남자 옷 40벌을 재단할수 있으며 머리칼같이 가느다란 광섬유속으로 전화8만회선을 동시에 잡아 넣을수 있는 레이저光이 각종 난치병 치료에 동원, 큰 효험을 보고있다. 레이저광은 눈물의 정상적인흐름을 가로막아 결과적으로 무서운 綠內障을 일으키는 이상으로 자란 혈관을 제거하고 떨어진 網膜을 접합시킨다. 中耳에 조직을 접합, 청력을 되찾게한다. 뇌속깊숙이에 자리잡고 있는 혹(腫瘍)을 찾아 깨끗이증발시켜 버리는가 하면 출혈하고있는 위궤양을 지져, 출혈을 멎게 한다. 文身을 비롯 태어나면서 갖고있는 각종피부색깔의 이상을 없애주기도한다.

眼질환·腦腫瘍·胃腸病·귀·피부등 광범위
萬能수술칼…후유증·흉터줄여
최근엔多月經·不姙症도 퇴치

◇광섬유를따라 유도된 레이저광선。최근 이레이저광선이 각종 질병치료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고있다。

레이저광은 지난 20여년동안 수술칼로서의효용을 입증해왔다. 레이저광은임상결과 종래 외과용수술칼이 도달할수없는 몸의 깊숙한곳까지 정확하게 접근,病巢를 도려낼수있음이 입증됐다.뿐만아니라 정상조직은 다치지않고 정확하게 수술을 할수있다. 이때문에 수술후의 합병증이나 통증을 크게줄인다.

레이저광의 뜨거운열은 병소를 도려낼때 주위의 작은 혈관을 동시에 봉합, 출혈을 막아준다. 출혈은 외과의사들을 종종당황케하는 일가운데 하나이다. 이때문에 수술을할땐 잘라진 혈관을 찾아 일일이 묶어주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레이저광을 이용, 수술을 하게되면 이같은 번거로움을 없앨수있다.

레이저광은 불필요한 조직을 순간적으로 지져 없앤다. 또 이때 상처를 소독하는 작용도 갖는다. 이때문에 수술을 할때 감염의 위험을크게 줄인다.

또 레이저광을 이용, 수술을하게되면 수술시간을 크게 줄일수 있다. 이때문에 환자는 종래의 수술시간에비해마취상태에있는 시간을 크게줄여, 빠른 회복을 가져 오게 한다.

벌써 상당수의 부인과의들은 종래의외과용수술칼을 빛칼로서서히 바꿔가고있다. 5년전부터 몇몇 부인과의들은 레이저광을 이용, 자궁頸部上皮內신생물(CIN)로 불리는 前癌상태의 병소를 도려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腟과 자궁경부로부터 옮기기쉬운 혹을효과적으로 제거하는방법을 익혀왔다.

아주 최근 전문의들은 레이저광을 과다월경증을 치료하는데 이용하기 시작했다. 과다월경은 생리때 지나치게 많은 양의 출혈을 하는것으로 또 많은 여성들이 이로해서 시달림을 받고있다.

레이저광으로 과다월경증을 치료하는 방법을 처음 도입한 사람은 美 디트로이트에있는 시나이병원 산부인과과장 밀톤·골드라드박사. 골드라드박사는이 子宮鏡을 출혈하고 있는자궁부위에 정확히 삽입, 빛을 비춰 출혈을 멎게 과다월경증을 치료할수 있게한것이다.

뿐만아니라 레이저광은 막힌 나팔관을 뚫어 불임여성이 아기를가질수 있게 하는데 성공하고 있다. 미국의경우 현재 부부 15~20%정도가 아기를 갖지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중의 상당수가여성의 나팔관이 막혀 아기를 갖지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팔관은 卵巢에서 子宮으로 卵子를 옮기는 통로로 길이 12·5㎝정도의 가느다란 근육관이다. 나팔관이 막히게 되면 精子가 卵子와 만날수 없어 아기를 가질수 없게된다.

지금까지는 나팔관이 막힌 상태가 경미할 경우 탄산가스를 불어넣어 이를 뚫어 주었다. 그리고 상태가 좀심하면 수술을 하게 되는데 성공률은 20~30%에 불과했다.

뚜이지어나주립대학교 파대학 부인과 전문의인 조셉·벨라 박사는 레이저광을 이분야에 응용해본 최초의 사람이다. 벨라박사팀은 나팔관이 막힌 1백20명의 부인을 상대로 레이저미세수술을 시험해보았다. 이들의 대부분은 종래의 방법으로 막힌 나팔관을 뚫을수없다고판정되었거나 병소가 너무깊어 외과적인 수술을하려해도 전문의들로부터 거절당했던 사람이었다. 벨라박사는 이들에게 레이저미세수술을시행, 33명이 아기를 가질수있도록 했다. 이미 이중 21명은 아기를 낳았거나 임신을했다. 벨라박사는 나머지 부인중적어도 80명정도는 더아기를가질수 있게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벨라박사는 현재 매주 3~5명씩 레이저 미세수술을하고있다.

코네티컷주 하트포드에있는 聖시나이병원의 미카엘·배기시박사는 나팔관이 막힌 30명의 부인을 치료하는데성공하고 있다. 배기시박사는 이같은 결과를 지난 7월호 美산부인과학회지에 최초로 발표, 관심을 모았다.

레이저광은 이제 외과와산부인과 영역뿐아니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신경외과등 각분야에서 보다 폭넓은 활용도를 찾고있다.

현재 의학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레이저는 주로 알곤과 탄산가스레이저이다.

이중 알곤가스레이저는 안과에서 이용하고 있다. 빛에너지가 눈의망막에 도달할때까지 흡수현상을 일으키지않기 때문이다. 수술용으로 이용하는것은 탄산가스레이저. 탄산가스레이저는 강력한에너지를 낼수 있을뿐 아니라 에너지가 물기가 있는 조직에 잘흡수, 순간적으로 조직을 자를 다든가 태워버릴수 있기 때문이다. 레이저광 수술실을 갖추려면 대략 4천2백만원(6만달러)정도가든다고.【外誌】

나의 이력서

〈題字·尹致暎〉

윤치영 ㉔

霽南 李承晩박사를 만난 뒤 수년간에 걸친 하와이생활은 强行軍의 연속이었다.

同志會, 韓人기독교회, 기독학원, 太平洋誌, 國民報등 온갖 일을 한 몸에 맡아 허리가 휠 정도로 뛰었다. 일이라기 보다 하나의 투쟁이었다. 그 좋아하던 운동도 완전히 포기했다.

가장 주된 활동은 同志會였다.

霽南 李承晩박사는 閔瓚鎬, 安賢卿, 李종관등과 함께 1911년 7월21일 독립운동을 목표로 한 정치단체인 同志會를 조직했다. 해외각지에 있는 1백50여만동포를 규합해 독립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자는 것이 霽南의 취지였다.

同志會는 對外선전공세를위해 3백만회원을 내세우면서 워싱턴등미국各地와 파리, 런던, 上海, 北京, 天津, 奉天, 하르빈,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로프스크, 멕시코, 쿠바, 싱가포르등 각처에지부를 두고上海임시정부및 滿洲, 露領의 독립군과 연락을 하면서 조직적인 독립운동을 도모했다.

李박사는 同志會총재였고 나는 사무총장, 財務理事를 맡았다.

1924년7월, 제2차 「汎太平洋會議」가미국주최로 호놀룰루에서 열렸다. 누아누고등학교에서 개최

汎太平洋 會議

된 이 회의엔 美, 英, 佛, 일본, 중국, 캐나다, 필리핀, 泰國, 네덜란드, 포르투갈등 植民利權을 갖고있는나라들 포함, 16개국이 참가했다.

우리는 민족대표로서 臨政을대표해 필라델피아의 徐載弼박사(首席)와 李承晩박사, 그리고 해외韓人대표로 閔瓚鎬 金泳琦 梁裕燦 尹致暎, 본국에서 宋鎭禹 兪億兼 白寬洙 申興雨 金良洙씨가 참가했다.

各國대표에 日帝蠻行사진등 돌리고
우리代表들 熱띤 공격…日을 궁지로

미국은 이 회의에서 얼마전 통과된 移民法이후 일본의 속셈을 알아보려는 의도를 가지고있었다. 우리는 한국의 독립을 주창할 절호의기회로 생각했다.

일본에서는 當代의 웅변가이자一級정치가로 이름난 국회의원 쓰루미·유스케(鶴見祐輔)를 단장으로해 저팬·타임즈主筆인 쓰모도(頭本), 東京帝大교수등 30여명의쟁쟁한 정치인, 학자등을 총동원했다.

나는 회의벽두 각국대표에게 日帝의 만행을 폭로하는 각종사진자료를 배포하고 진상을 알렸다. 2주일동안 하와이에서 일본과 불을 뿜는 宣傳戰이 벌어졌다. 徐박사를 비롯한 우리대표들은日帝의 야만성을 일일이 공격하면서 총공세를폈다. 특히 지난해 9월에 있었던 東京大震災당시의 韓人虐殺사건도 폭로했다.

우리는 日帝의 악독한 군국주의를 연일공격하고 각국대표들에게우리의 자주독립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시간이 갈수록 궁지에 몰린 일본 대표단은 도중『돌아가겠다』고 주최측에 위협하는게 아닌가. 이쯤되자 주최측은 우리대표단에게 공격을 너무 심하게하지 말아달라고 사정했다.

汎태평양회의에선 다행히도 東京유학시절 나에게 영어 개인교수를 해주고 형제처럼 날 봐줬던 일본기독교청년회 총무 잭·데이비스씨가 사무총장을 맡아 우리를 적극적으로후원해주었다.

◇1910年代부터 李承晩박사와함께 하와이韓人사회를 이끌었던 林正樹(上)朴容萬씨

회의기간중 나는 일본 대표단장 쓰루미에게 東亞日報와 太平洋誌기자라고 하면서 인터뷰를 요청했다. 東亞기자라고 한것은 하와이방문야구단으로 떠날 때 東亞주필겸 편집국장인 李濟衍씨가『北美합중국 통신원이 돼달라』고 부탁했던 인연때문이었다.

나는 壬亂이후 閔妃弑害사건, 庚戌國恥에서부터 3·1운동때의 殘虐相, 水原堤岩교회放火몰살사건, 東京大震災대학살등 갖가지 야만적 史實을 들어 공격했다.

쓰루미는 나의 영어질문에 영어로 답변하면서『99가지는 일본이 잘못했다』고 謝罪하고는『그러나 교육, 의료시설, 도로개선, 治山治水등 몇가지는 잘 한것』이라고 변명했다. 나중엔『당신네 본국대표들도 다 일본서 교육받지 않았느냐. 당신도 와세다대학을 나왔다는데…』하며 말꼬리를 돌렸다.

나는『그것을 식민정책의 補償, 恩典으로 아는가. 그 모든 것이 식민정책의 합리화 또는 착취 수단이다. 日帝는 天罰을 받기 전에 물러나라』고 대들었다.

회의가 열리고 있을 때 마침 하와이에는 上海에서 美본토로 가던 島山 安昌浩선생이 2주간 묵고 갔고 朴容萬씨도 왔다. 우리는 용기백배했고 반면 李承晩, 徐載弼, 安昌浩, 朴容萬등 독립운동의 巨物들을 본 일본대표단은 크게 놀라 회의가 끝나기전에 돌아가려고 애를썼다.

회의기간중 각나라가 만찬을 주최하는데「親韓派」인사였던 캐나다의 매킨지수상이 베푼 만찬회장에선 日章旗보다 배나큰 大型태극기를 달아줬다. 일본인들이 질색을 한것은 말할나위도없다. 매킨지수상이 만찬에서『독립된 역사와 문화를 가진 한민족이 他민족에게 강제수탈당할 때 그곳에 영원한 평화는 없다』고 했을때 우리는 얼마나 통쾌했는지 모른다.

그당시 일본의 야마사끼(山崎)총영사가 나에게『李承晩박사에게 敬意를 표하고 싶은데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대사라면 몰라도 안된다』고 하니『나는 곧 브라질대사로 갈 사람』이라며 사정을 하기도 했다.

現代人의 健康百科

구역질과 구토

구역질은 구토의 전조이다. 구토에는 습관적인것과 위분문 경련과 같이 구역질을 수반하지 않는것이 있기는하나 대부분의 경우 구역질이 있은 다음에 구토증이 일어난다.

이것은 위에 들어간 유독성분또는 자극성인 물질을 토해내려고 하는 절박한 요구에서 인후부의뒤쪽, 즉 위·십이지장에 이상한 감각이 일어나고 위의 연동이 높아지며 장관의 위쪽에 역연동을 일으키게 되기 때문이다.

구역질과 함께 실신, 창백, 군침, 발한, 현기증, 두통등이 일어나고 때로는 혈압의 강하, 맥이 느리게 뛰는 혈관운동신경이나 자율신경계의 장애도 일어난다.

원인으로는 장관의 역연동 그 자체가 구역질을 일으킨다거나 위벽근의 긴장과 장관의 긴장등 위장의질병으로 일어나는 경우도있고 신경과민상태인 경우에도 일어난다. 징그러운 것을 본다든지 불유쾌한 음식물의 냄새를 맡았을때 일어나는 구역질이 바로 신경과민이 가져다준것들이다. 상상임신에 의한 입덧증상도 이에 속한다.

胃속의 有害·자극성物質이 원인

구역질은 또 과음을 했다든지 담배를 지나치게 많이 피울때도 문제가된다. 아침 칫솔질을 할때 나타나는 헛구역질은 대부분 이에 속한다. 이땐 위와 장의 이상으로 오는 구역질때와 달리 식욕엔 큰변화가 없는것이 보통이다. 위와 장의 이상으로 오는 구역질은 흔히 식욕을 잃는다.

이러한 구역질이 계속되면 구토로 옮겨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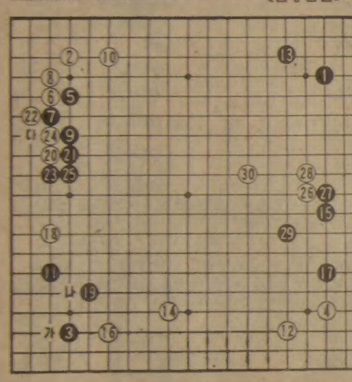
구토는 위와 식도, 그리고 복벽의 운동이 일시에 일어남으로써 생긴다. 구역질이 있으면 먼저 위의 유문부가 수축하고 위속의 음식물이 장쪽으로 가지않게된다. 동시에 위와 식도가 느슨해지는 한편 횡경막복벽이 심하게 수축되어 복강내의 압력을 강하게하고 역연동이 일어나 위내용물이 느슨해진 위와 식도를 통해 입으로 밀려 나온다.

구토의 원인은 여러가지를 생각할수 있다. 먼저 구토는 일종의 반사운동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괄하는 중추가 있다고하면 이 구토중추에 대한 자극을 들수가 있다.

朴昃南【醫博·漢陽大의대소화기내과장】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1局第 2譜1~36 (각5시간 덤5집반)



白 (6段) 徐能旭 〈3勝1敗〉
黑 (4段) 姜 勳 〈1勝3敗〉

徐6단과 姜4단은 제10期이래 이번이 4번째의 대결이지만 그간에 徐6단이 연속3승을 하고있다.『名人戰에서는 웬지 徐6단에게 씨가 안먹힌다』는 식으로 무척 애가타는 눈치. 그러나 20세를 갓 넘은 이들인지라 棋力이 일취월장하는 가운데 오늘이 바둑에서도 어떤 내용을 보여줄 것인지 두고봐야할 일이다.

黑1이하 17까지. 도중 黑5와 11은 일종의 포석 취향이지만 그러므로 徐戰의 진용이 형성되었는데 여기서 白18, 20에 관해서는 국후이론이 좀 있었다.

黑3과 11의 目字굳힘에는 白16, 18이 귀를위협하는 수법으로확실하다. 『그러나 白18은 아직두지 말고 직접 白20부터 착수하는것이 어떠냐』는의견들인데 徐6단은 黑의 취향에 대해 뭔가 혼전으로 이끌려는 속셈이지도 모른다.

黑 實利 잃은 강수

姜4단이라해서 고분고분 白의요구를 외면할리가없다. 이리하여 오기싸인 강수가 연발되었으나 黑25까지의 결과는 일종의 시행착오였다.

우선 黑19. 일단수긍할수있는 능동적수법이지만 白「가」로 처들어오는 허점이 남아서 불만이니 黑「나」로 굳혀두는것이 일기대응책이라고 한다.

다음 黑21. 보통이라면 이경우黑「다」로 白20을 차단해야된다. 하지만 白18한점을 고립시킬 작전으로 25까지 외곽을 싸바른 것이다. 그러나 白에게 우선제공한 실리가 너무크진 않았을까. 역시『21로는「다」에 차단하여 싸워야했다』는 의견을 수긍하게되는 대목이다.

白은「가」의 맛을 남긴이상 18을가볍게 보고 26이하30으로 앞질러 黑집을 삭감하며 중앙에 세를폈다. 【一凡】

현대화 애쓰는 鍼灸醫學

전국學術大會 硏究논문 24편 발표

◇釜山시민회관에서 열린 전국 한의학침구 학술대회。

腰痛은 膀胱經穴에 침·뜸
耳鍼法이용 肥滿症 치료
"담배끊는데도 効力"주장

광복36주년기념 전국漢醫學鍼灸학술대회가 13, 14양일간 釜山市民會館에서 열렸다. 침구의학의 현대화를 모색키 위해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엔 전국에서 1천여명의 한의사가 자리를 함께한 가운데 「2천년대를 향한 침구요법」등 24편의 연구논문이 발표, 큰 성황을 이뤘다. 주요 연구논문내용을 간추려보았다.

慶熙대학교漢醫大 漢方內科교실 李庚燮교수는 中風치료에대한 새로운 학설을제기, 큰 관심을모았다.

중풍의 주요원인은 고혈압과 죽상동맥경화증。漢醫學에서는 고혈압과 동맥경화가 痰飮과 火로부터 온다고 보고있다.「담음」이란 체액이 변조된 비생리적인 노폐물。눈에 보이는 가래로부터 肺·脾·腎臟에서 만들어지는 각종 호르몬이 이에 포함된다.「화」란 중추신경의 병리적현상,한의학적으로 말하면 六慾七情에의한 精神신경계의 병리적현상을 뜻한다. 한의학은 지금까지 중풍이 이를 담음과 火를 만드는 모든 臟腑와 氣血의 기능이상에서온다고 보았다.

李교수는 이에대해 중풍은 사람에따라 기질적인 차이를보여 처음부터 특정장부의 이상이 중풍을불러온다는 사실을 밝혀낸것.

즉 중풍의원인이되는 고혈압과 동맥경화는 처음부터①호흡조절기(上焦)②소화기(中焦)③비뇨기(下焦)계통의 이상이 원인이되어 일어난다는것이다. 따라서 중풍의 치료는 처음부터 이중 어떤장부의 이상이 가져다 준것이기를 가려, 치료해야 마땅하다고했다.

따라서 중풍은 上焦의이상에서온 것이면 加味淸心湯類, 中焦엔 加味溫膽湯類, 下焦엔 加味補陰湯類를써야 한다고. 李교수는 이같은 분류법에 따라 동병원 中風센터에서 치료해온 결과를 컴퓨터斷層촬영장치(CT스캔)로 분석, 자신의 학설이 옳다는 사실을 확인할수 있었다고설명했다.

圓光대학교漢醫大 침구학교실 金庚植교수는 腰痛환자 2백56명에 대한 침구및 투약효과를 발표, 관심을 모았다.

金교수는 동대학 침구학교실을 찾은 2백56명의 요통환자는 연령별로봤을때 남자의경우 20, 30, 40대의 순으로 많았고 여자는 30, 50, 40, 60대 순으로 보였다면서 가장 많이 동통을 호소한 부위는 제4~5腰椎間(36%)과 제5腰椎~제1薦椎間(34%)으로전체의 70%를 차지 했다고 했다. 金교수는 이들 요통환자에게 三焦및 膀胱經上의 經穴을 주혈로한 침구요법을 시행, 27%(69예)를 7일안에, 22%(56예)를 8~14일만에 치료할수 있었다고 발표했다.

한편 慶熙대학교 漢醫大 침구학교실 崔容泰교수를 주축으로한 姜成吉·李潤浩팀은 耳鍼法을 이용, 肥滿症을 단 5회의 치료로 71%에 두렷한 체중감소 효과를 얻었다고 발표, 역시 관심을 모았다. 양호한 반응을 보인 19·2%를 합하면 비만증에대한 耳鍼요법은 90·4%의 효험을 나타냈다고. 또한 같은침구학교실의 姜成吉·崔翊善·金在圭팀은 耳鍼法을 담배를 끊는데 활용, 74·5%에서 두렷한 효과를 보았다고 보고했다. 8개월동안 흡연빈도를 절반정도로 줄인 사람까지 합하면 90·9%의 효과를 얻어 냈다고.

모순투성이의 生 〈178〉

趙善作 作
禹慶熙 畵

灰色 노우트⑩

『무슨 작품인데요?』

내가 물었고, J씨는 좀생각하는 듯한 눈치더니 대답했다.

『난 좀 건망증이 심해요. 유부녀가 혼자 어디 여행갔다가 거기서 만난 청년하고 무슨 일을 저지르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아파트로 돌아온다는식의 이야기던데…』

『〈칫솔〉이죠?』

『맞았어。그런 제목의 단편인데, 영화는 제목을 달리해 가는 모양이야。〈달무리에얼룩진금잔화는…〉식의 어쩌구 저쩌구 하는 식의 요란한 제목 있잖아요? 웃겨。엿장사 맘대로야』

J씨는 괜스레 화를 돋우었다. 일정한 높이의 품격을 지니고 있는 시인이 어쩌다가 영화 주제가의 가사를 맡게 되었고, 그것을 누군가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일 모두에 대해서 역정을 내고 있는 듯싶었다.

그러나 나는 그의 그런 역겨운 감정에 깊이 말려들 필요가 없었다. 아까부터 나는 J선생님이 왜 그런 가사를 쓰시죠 라고 묻고 싶었지만, 바에 있는 그가 계속해서 신경을 긁어 J씨를 동정할만한 여유도 없었던 것이다.

맥주가 오자 나는 화제를 바꾸었다.

『광화문의 그 출판사에는 요즘은 안가시나 보죠?』

『왜요. 가끔 가죠.』

『그럼 요즘도 이런 거 하시나요?』

나는 왼 손의 손가락들로 화투장을 잡은 시늉을 해보이며 말했다.

그러자 J씨는 크게 웃고 나서 소리쳤다.

『고스톱, 아, 저 친구한테서 들었구먼. 맹추같으니라고. 제자한테 그런 것까지 귀띔해주면 어쩌라는 거지?』

『그냥 제가 알아낸 거에요.』

내가 재빨리 변명하자, 그는 부릅뜬 눈으로 나를 노려보고 나서 말했다.

『여성들지 말아요。지금저 친군… 그렇에 왜 있었잖아? 미스 오라고。그 아가씨한테 빠져 미쓰 안까지 돌볼 여유는 없을테니까』

『그래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대답했다。그러나 나는 너무 놀라서 안면의 근육이 경련을 일으킬 지경이었다。

J씨가 다시 말했다。

『알아주는 플레이 보이를 아냐? 유모감독도 외박하고、이틀날 아침에는 집에 기어들어가 와이프한테 손이 발이되도록 빌고、며칠 안가서 또 그러고…유명한 친구들이지。게다가 요즘은 시나리오 쓴네하고 여관에 진을치고 있겠다、제 세상을 만났지。미련가질것 없어요』

비로소 나는 제정신으로 돌아온 느낌이었다. J씨가 괜한 헛구를 입에 담고있는 것 같지는 않았고, 그는 노영지에서 어느름에 미스오한테로 옮겨갔음을 나는 깨달았던 것이다. 정릉에서 내게 잠시 머물렀던 것은 간이역(簡易驛)에도 못미치는 잠깐의 휴식이었을 뿐이고, 그는 마치 초특급 열차처럼 커다란 역만을 찾아 내달리는 느낌이었다.

음악의 생활, 내 결혼의완성 따위에 그는 아무런 흥미도 없었다. 그가 말한것처럼 내게 줄 것은 아무 것도 남겨 놓지 않은 것이다. 도대체 그는 왜 그럴까,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왜?

『내가 좀 주착이 없었나?』

J씨가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간신히 대답했다.

『아뇨. 저하고는 상관없는 일예요』

『그러실테지。안심했소。미스터 한하테는 말요。밤마다 여자의 유령이 나타난다는 소문도 있소。자다가 깨보면 옆에 나체의 여자가 누워 있다는 거요』

집수리 · 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타 제작
페인팅, 타 일
669—5784
MR. 심

"아름다운 피부는 여인의 소망"

○ Mary Kay는 바로 여성의 젊음과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는 신비와 매력의 상징입니다. 특히 기미 여드름, 모공이 커서 화장에 자신없는 분, 부드럽고 탄력있는 피부를 원하시는 분에게 꼭 권하고 싶습니다.

○ 고국 방문을 하시는 분에게는 특별봉사 하겠으며, 주소가 변경되었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새주소 : 2 MEADOWGLEN PLACE # 202A, SCARB. ONT M1G 2V6

☎ : (B)438—6440 (R)439—1330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 : 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 거의 다가서임)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전화 : (416) 222—9480.

거 구 장

— 특 별 메 뉴 —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 중화요리, 케네디안식
※회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영업시간 : 11A. M. ~새벽2시까지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곽 정 렬, 김 선 남

주간女性

人形 만들다 인형같은 愛人 만나 골인
—展示會 여는 날 결혼한 탤런트 許榮
〈탤런트 鄭愛利〉
卓球스타 朴利黙선수 커플
趙基順스님의「四君子 일생」
집마당 펌프서 藥水가 펑펑
논픽션 브루스·리 ②
뉴욕 潮水에 공룡 네시 出現
人間·컴퓨터 李春德양 全部
사랑의 테마「임신中絶문제」
탤런트 李英河가 결혼 서두르는 안팎 事情
긴급特輯/춤추는 쇠고기값 슬기로운 대책

김명종 한약방

침, 보약(탕약과 에키스 약제), 심신 모두 피로, 기혈부족, 신경과민, 노이로제, 허리병, 근육통, 부인병, 불임증등에 대한 한약과 녹용, 웅담.

한약과 경전인 본 초방약에 의거한 진맥과 처방으로 조제함.

2433 FINCH AVE. W. #411
☎ : 745—2058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여러분 건강관리의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일체에 대한 하문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한국 정통침구의학의 정수인 사암오행 침구전공)

주소 : 92 Brantwood Drive(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 : 439—6717 김 남 집

서 울 식 품

Ⅰ. 싱싱한 민어회감 있읍니다.
Ⅰ. 한국에서 직 수입하므로 싼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주소 :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팽팽한 投手戰… 에러가 勝敗 갈라

慶北、信一 꺾고 8強 합류
成埈 好投로 無失點 수훈

3—0

鳳凰大旗 고교야구

2회초 2死후의 잇단 수비실책에 信一나인들은 분루를 삼켜야했다. 3만관중이 응시하는 가운데 18일서울운동장서 벌어진 제11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13일째 3회전경기서 慶北高는 좌완 에이스 成埈의 무거운 직구와 커브로 信一高 공격을 3안타, 2포볼, 무실점으로 봉쇄하며 2회초 2死후 8번 金允榮의 좌전적시타와 信一우익수의 낙구, 1루수의 악송구등 잇단 적실로 행운의 결승점을얻어 3—0으로 승리했다.

善隣商高는 3회초 朴魯俊 金健友의 연속 2루타로 2득점, 승기를 잡아 世光高를 3—0으로 완파, 慶北高와 함께 8강에 합류했다.

慶北高-信一高

信一로서는 너무도 억울한 승부였다. 비에 젖어 미끄러운 잔디에서 우익수 張光一이 타구를 빠뜨리고 볼을 릴레이한 1루수 吉洪圭의 악송구로 결승점을 허용, 무릎을 꿇었다. 게임은 청룡기우승투수 成埈과 화랑기우승투수 李載弘의 팽팽한 투수전으로 전개되었다.

어느팀이 먼저 타선에 불꽃을 당길것인가. 3만 관중의 응시속에 慶北은 2회초 뜻밖에 굴러든 2敵失로 결승 2점을 얻었다.

2死후 7번 盧國成이 유격수앞 내야안타로 살아나간후 8번 金允榮이 우전안타를 때리자, 信一우익수 張光一이 타구를 쫓다가 뒤로 빠뜨렸고 이틈에 盧가 홈으로 뛰자 볼을 중계하던 信一 1루수 吉洪圭가 홈에 악송구, 타자주자 金允榮마저 살아 2점을 선제했다.

불운의 信一은 3회말 1死후 8번 李載弘이 우전첫안타를 치고 나갔으며, 9번 金翰中이 포볼을 골라 1, 2루의 호기를 잡았다. 그러나 1번 閔庚三이 투수앞 땅볼을 때리고 慶北투수 成埈이 2루로 던져 주자를 놓쳤으나 다시 볼이 1루에 잣을 때까지 閔이 베이스를 밟지못해 아웃되었으며 3루까지 갔던 李載弘도 방심했다가 1루수의 송구에 걸려 병살당했다.

초반의 소요도 잠시. 양팀타선은 成埈, 李載弘의 위력적인 투구에 눌려 숨도쉬지 못했다. 慶北은 7, 8회에겨우 1개씩의 안타를 때리더니 9회초 1사후8번 金允榮의 내야안타, 9번 成埈의 중전안타, 1번 柳中逸의 내야안타로 1점을 추가했다.

慶北의 좌완 에이스 成埈은 무거운 직구와 커브를 섞어가며 信一공격을 3안타, 2포볼, 3三振, 무실점으로 완봉했으며 주전포수 申成哲의 컨디션부조로 대신 홈을지킨 2년생포수 金光榮은 적시안타로 승리에 공헌했다.

善隣、맹타로 世光눌러
朴魯俊·金健友 연속2루타

3—0

◇홈으로 突進 올해 청룡기 우승팀 慶北高와 화랑기 우승팀 信一高의 접전. 慶北공격2회초 2死후 3루주자 盧國成이 金允榮의 안타로 홈인하고있다.

善隣商-世光高

1회초 포볼과 도루로맞은 1死2루의 찬스에서 3번朴魯俊이 좌전적시타를 날리자 善隣의 具本浩감독은 世光수비를 얕보고 계속 주자들을 돌려 홈으로 뛰게했으나 世光좌익수 林勝奎의 호송구로 홈인하던 善隣의 金雄大가 태그아웃, 선제점의 기회를 망쳐버렸다. 3회초에는 우전안타를 날린 선두 9번 朴忠達이 욕심스럽게 2루까지 달리다 역시 우익수송구에 걸려 태그·아웃.

그러나 맹타의 善隣은 3회초 2死후에 폭발한 朴魯俊 金健友의 연속2루타로 귀중한 선제2점을 올렸다. 2번 金國鎭이 포볼을 골라나가자 3번 朴魯俊은 우월선제타점 2루타를 날렸으며 4번 金健友는 좌월2루타로 世光의 선발투수 韓龍敏을 다운시키고 1점을 추가했다.

世光은 2회말 선두 4번 金勇昊이 좌월2루타로 찬스를 맞았으나 5번李相鐵이 3루수 라이너로 잡히는등 후속타 불발로 3루진출에 그쳤다.

善隣은 3회이후 世光의구원투수 郭英陳의 역투에눌리다가 8회초 1死후 金健友의 우전안타, 5번 趙永一의 포볼, 6번 李敏후의좌전적시타로 또 1점을 더했다.

◇제13일 3회전

경북고	020	000	001	—3
신일고	000	000	000	—0

▲경북투수=成埈 포수=金允榮 ▲신일투수=李載弘 포수=徐孝仁

선린상	002	000	010	—3
세광고	000	000	000	—0

▲선린투수=李바오로 朴魯俊(7회) 포수=趙弘紀 ▲세광투수=韓龍敏 郭英陳(3회) 포수=姜熙奭

올들어 急成長한 剛速球
慶北高校 長身투수 成埈

鳳凰스타

무거운 직구와 커브를 잘구사하는 좌완의 成埈은 지난해까지만해도 지금과 같은 좋은 투수가 되리라고 생각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개소주를 세차례나 복용하고부터 몸이 좋아지기 시작, 지난 봄부터 급성장, 이번 봉황기들어서는 성가를 높이기 시작했다. 1m80, 67kg의 듬직한 체구를 가진 成埈은 인코너 낮은 볼과 커브가 특히 위력적이며 직구를 던질때의 최대스피드는 1백30km. 효성국교4학년때부터 야구를 시작한 成은 大邱中에 진학하고부터 마운드를 밟았다. 이날 강호 信一의 강타선을 맞아 30타자에게 3안타만 내주고 완투했다.

또한 타격에서는 4타수 3안타의 호타를 보여 공격에서도 큰 활약을 했다. 大邱근교에서 농사를 짓는 成炳大씨(48)의 2남1녀중 장남으로 漢陽大 진학을 희망하고있다. 한가할때는 바둑을 즐긴다.

花郞、泰 격파 準決 진출
印尼국제축구 黃石根 2골로 A組1위

【자카르타18日聯=聯合】 한국의 花郞팀은 17일밤 이곳 세나얀 국립경기장서 벌어진제10회 자카르타市창립기념 국제축구대회 예선A조 최종경기에서, 黃石根이 전후반 1골씩 넣어 泰國을 2—0으로 제압, 불가리아와 함께 2승1무를 기록했으나 골득실차서 앞서 A조 1위를 차지, 준결승전에 진출했다.

한국은 20일 하오7시30분 B조 2위 우타마팀(印尼)과 준결승전을 벌인다.

한국은 전반37분 趙鋭術이 泰國 왼쪽 사이드를 돌파하여 센터링을 시도하자 黃石根이 볼을 받아 슛, 선제점을 올리고 후반27분 黃石根이 趙廣來의 도움으로 추가골을 기록했다.

◇제5일전적

▲A조

한 국 2 (1—0 1—0) 0 태 국

불가리아 2—1 프라타마

李龍求 첫金메달
亞洲力道 60kg級 용상서

【나고야(名古屋)17日聯=聯合】 한국의 李龍求(조폐공사)는 17일 나고야에서 속행된 제13회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이틀째 60kg급용상에서 1백55kg을들어 첫금메달을 획득했고 토틀서는 2위를 차지했다.

한편 75kg급인상서 朴春宗은 132.5kg을들어 3위를 마크했다.

보라싱 11월7일 사파타에 挑戰

【방콕17日AP=聯合】 세계권투평의회(WBC) 라이트·플라이급 챔피언인 파나마의 사파타는 지난14일 동급 랭킹 1위인 멕시코의 헤르만·토레스를 심판전원일치의 판정승으로 눌러 타이틀을 방어한데이어 오는 11월7일 랭킹2위인 泰國의 네톨노이·보라싱과 泰國에서 타이틀방어전을 갖는다고 프로모터 로메·사레알씨가 17일 밝혔다.

사레알씨는 사파타가 방콕에서 북동쪽 약3백㎞떨어진 코라트에서 경기를가지며 보라싱과의 대전료로 12만달러(8천4백만원)를 받는다고 덧붙였다.

보라싱은 지난 78년4월멕시코의 프레디·카시티요로부터 챔피언 타이틀을 따냈으나 그해 한국의 金性俊에게 타이틀을 빼앗겼으며 金性俊은 사파타에게 패해 타이틀을 잃었었다.

美미거 또世界新 女百m접영

【브라운디어(美위스콘신州)17日聯=聯合】 미국의 매리·미거(16)는 16일 위스콘신州 브라운 디어에서 열린 美수영선수권대회 여자 1백m접영에서 57초93을 기록, 자신의 종전세계기록을 깨고 세계신기록을 수립했다.

미거는 지난해 텍사스州오스틴에서 열린 이대회 1백m접영에서 59초26으로 세계신기록을 수립했었는데 이보다앞서 지난 13일 여자2백m접영에서도 세계신기록을 수립한바있다.

男테니스 상비군 7強출전評價戰

남자 테니스 국가상비군평가전이 19일부터 7강 리그로 벌어진다.

참가선수는 田昌大 金春浩 이우룡(이상명지대) 宋東煜 金奉洙(이상 울산공대)등 대표급 대학선수들과 金榮煥 周昌男(대우중공업).

유니버시아드 혼합복식 銅메달리스트인 孫英大(건국대)는 허리부상으로 불참한다.

美프로野球 터론토팀서
崔東原 스카웃意思
"年俸20萬弗로… 年末에 訪韓교섭"

◇崔東原투수

【터론토支社=金李基기자】 한국야구대표팀의 에이스 崔東原(롯데)이 세계야구정상을 자랑하는 美國프로야구 메이저리그로부터 스카웃교섭을 받았다.

지난17일 폐막된 제5회 대륙간컵쟁탈 국제야구대회에서 최우수투수로 뽑힌 崔東原에게 스카웃손길을 뻗친팀은 터론토에 프랜차이스를둔 터론토·블루·제이스.

블루·제이스의 선수선발담당부장 웨인·오르잔씨(45)는 18일 기자들에게 『崔는 메이저리그2급 투수진에 해당되는 훌륭한 투수다. 스피드도 좋지만 컨트롤과 토너워이 일품으로 크게 성장할수있다. 본인이 좋다면 우리팀에서 받아들이고 싶다』고 말했다.

對캐나다戰에서 崔東原의 플레이를 봤다는 오르잔부장은 『崔가 입단하면 우선 연봉 20만달러(한화 약1억4천만원)를 받을수있고 성적에따라 보너스를 받게된다. 또 6년뒤 계약이 끝나면 프리에이전트·그룹에 속하게 되면 1백만달러(약7억원)의 연봉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오르잔부장은 이어 『9월하순 시즌이 끝나면 팀의 실력자와 함께 한국을 방문, 崔에대한 본격적인 교섭을 벌이고싶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블루·제이스는 아메리칸리그 후가리그에서 4승1패로 東部지구 7개팀중 선두를 차지하고 있는 강호다.

濠테니스코치 招請 주니어代表 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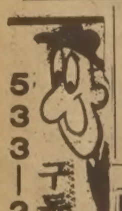
대한테니스협회는 주니어 남녀선수 각20명씩 40명을 훈련시키기위해 濠洲의 도널드·K·카메론씨를 초청했다. 카메론씨는 오는 9월11일까지 테니스의 이론과 실기를 가르치게된다.

새아마복싱聯출범

대한아마복싱연맹은 18일 새집행부를 구성 발표했다.

◇신집행부명단

▲회장=林彦彬 ▲부회장=鄭德珍 林鍾無 金尙滿 ▲총무=朴炯春 ▲경기=全在完 ▲심판=李在寅 ▲기획=鄭樂鉉 ▲재무=權赫文 ▲시설=黃成萬 ▲섭외=張圭煥 ▲국제=郭基煥 ▲사업=李千玉



中共 위選手世界新
力道 밴텀級 인상

【나고야(日本)16日聯=聯合】 日本의 나고야(名古屋)에서 16일 개막된 제13회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첫날 경기에서 56kg급(밴텀급)에 출전한 中共의 위·슈·메가 인상 1백26.5kg을 들어올려 세계신기록을 수립했다.

아시아기록의 보유자인 위는 이날 세운 세계신기록으로 지난해 모스크바올림픽에서 대니얼·누네스(쿠바)가 세운 공인세계기록 1백25kg은 물론 蘇聯의 니콜라이·자하로프선수가 보유하고 있는 1백26kg의 비공인세계기록까지 깨뜨렸다. 위는 용상부문에서도 1백40kg을 들어 金메달을 추가했다.

東洋나이론 團體우승
實業사이클 道路경기 閉幕

제1회 8·15경축 전국실업사이클 선수권대회가 총492㎞의 레이스를 마치고 18일 폐막, 단체전서 東洋나일론이 35시간47분24초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釜山銀行은 36시간6분22초61로 2위, 陸軍은 36시간13분10초50으로 3위를 차지했다.

개인전서는 金炳善(동양나일론)이 1～4구간을 내리 선두로 달린끝에 총 11시간53분0초36으로 1위를 마크했다.

◇최종기록

▲단체종합=①동양나일론 35시간47분24초24 ②부산은행 36시간06분22초61 ③육군 36시간13분10초50 ④대구시청 36시간22분27초54 ⑤산업기지 36시간30분20초36 ⑥경기은행 37시간19분34초58

▲개인종합=①金炳善(동양나일론) 11시간53분0초36 ②徐昌奎(육군) 11시간54분51초09 ③姜秉仁(공군) 11시간54분58초29 ④金圭根(동양나일론) 11시간55분01초61 ⑤金貞坤(부산은행) 11시간56분10초82 ⑥金鍾信(부산은행) 11시간57분15초95

清州商 결승에
전국中高축구

【釜山=聯合】 清州商은 18일 九德경기장서 벌어진 전국중고축구협회장盃쟁탈 전국중고축구대회 고등부 준결승전서 지난해우승팀인 東萊高와 연장 격전끝에 FW 朴贊洙가 결승골을 넣어 1—0으로 신승, 결승전에 올랐다.

◇준결승전적

청주상고 1 (0—0 1—0 연장) 0 동래고

한국일보 詩壇

내곁을 떠나버린 바다

金兌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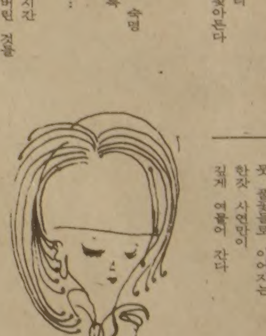
어디디 어런
불고기 서너마리
심연 깊숙이 찾아든다
요요한 달빛
공허만 남는다

목숨보다 진한 숙명
잘매기 끼룩끼룩
아린 가슴으로
저미는 의미를…

이젠 돌아설 시간
내 곁을 떠나버린 것을
쉽게 잊고 있는

파고의 몸짓을 모른다。
돌아오지 않는 날들을
열손가락으로 헤며
기다리는 날까지 기다리는
세월

꿋 풀꽃들로 이어지는
한잣 사연만이
깊게 여물어 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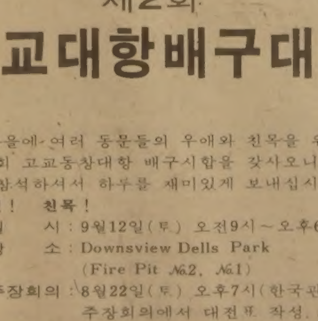
제2회
고교대항배구대회

초가을에 여러 동문들의 우애와 친목을 위해 제2회 고교동창대항 배구시합을 갖사오니 꼭 참석하셔서 하루를 재미있게 보내십시다!

단결! 친목!

일 시 : 9월12일(토) 오전9시～오후6시
장 소 : Downsview Dells Park (Fire Pit №2, №1)
주장회의 : 8월22일(토) 오후7시(한국관) 주장회의에서 대진표 작성.
식사는 주최측에서 제공합니다.
트 로 피 : 주최측에서 전부 증정합니다.
참 가 비 : 50달러
연 락 처 : 한 성 태 회장(293－6138)
황 주 빈 부회장(267－5550)
이 재 삼 총무(661－7891)

약 도 :



주최 : 성동고등학교

제63회 전국체전 파견선수 등록공고

81년 10월7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출전을 원하는 선수의 개인이나 단체는 아래 요령으로 등록을 접수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종목 : 육상, 수영, 축구, 야구, 테니스, 연식정구, 농구, 배구, 탁구, 핸드볼, 럭비풋볼, 사이클, 복싱, 레슬링, 역도, 유도, 검도, 궁도, 사격, 승마, 체조, 하키, 펜싱, 배드민톤, 태권도, 조정, 씨름 (이상 27개 종목)
접 수 처 : 대한체육회 캐나다지부
635 BLOOR ST. W. 537－0745, 533－8421
등록마감 : 1981년 8월 26일 오후7시
참가자격 : 캐나다에 거주하는 교민
선수혜택 : 단복, 국내체재비, 기념품비는 본회부담 항공료는 자비부담을 원칙으로하되 본회 재정이 허용되며 약간 보조할 방침임
※ 모국방문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체전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본회에 연락을 바랍니다.

재 캐나다대한체육회
회장 이 병 권

선린 정기총회 소집공고

본 동문회에서는 1981년도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갖고자 하오니 꼭 참석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일 시 : 9월5일(토) 오후8시
장 소 : 동문 정영일 자택
☎ : 742－2498
주 소 : 23 KENDLETON DR.
연락처 : 부회장 : 전기덕(255－2111)
총 무 : 최원보(625－0698)
재 정 : 정영일(742－2498)
섭 외 : 옥성빈(278－4867)
서 기 : 김상수(773－7777)

선린동문회장
서 병 주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정력감퇴.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웨이터, 웨이트레스 구함
일본 레스트랑
☎ : 977-9519

출퇴근 하시면서 4살 남아 돌봐주실분
그리고 산모를 돌봐 주실분 $500지불함) 후대함

143 WOOD WARD AVE.
WESTON, ONT. (JANE+CHURCH)
☎ : 242-2064. (R). 633-6813(B)

구 인
미시사가 LORNE PARK지역. 경험있는 가게헬퍼구함
☎ : 278-8101. 822-4179

스토아 매니저 구함
보증금 $15.000(스탁의 ½)
☎ : 781-8968 미스타 정

그로서리 스토아를 맡아 성실히 운영하실분을(메니저) 급히 찾읍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직접오셔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인수를 원하실 때는 아주 저렴한 DEAL로 양도하는것도 고려중입니다. 주소 : 393 EGLINTON AVE. E.

주방헬퍼구함 : 남녀 각각1명
웨이트레스 1명구함 한국관
☎ : 536-0290

도나스 샾에서 주중에는 오후 또는 주말에 밤일하실 여자분 구함(스카보로지역)
☎ : 284-9325

스토아 헬퍼구함 :
무경험자도 가능(훈련시킬 것임)
☎ : 884-8342

살림해주실분 구함☎ :
☎663-1053 244-7303 (Mrs. LEE)

주말에 맥스 밀크에서 일할분
CASHER할분
☎ : 266-3644 미스타 김

FULL TIME HELPER구함 : 남자 유경험자에 한함 막일과 CASHER를 함께 할 사람요.
☎ : 534-3338

유경험자 캐쉬어구함 : 나운타운에 있는 밀크스토아
오전8시~오후5시까지
☎ : 925-0339

쥬스바에서 파트타임 여자 헬퍼구함 :
☎ : 368-9206(2시이후) 438-0403
미세스 유

청소하실분 구함
주중 아침9시~저녁6시
☎ : 782-0316

스토아 헬퍼 구함 :
학생(남자) 파-타임(주중, 토·일요일)
☎ : 762-1572. 769-9854 미스타 김

〈사람찾음〉
성명 : 김명식(COOK) 갈가리 서울식당에서
상기 본인을 찾읍니다. ☎ : (403) 255-4778

스토아에서 일할 남자헬퍼구함(주40시간 이상) :
MAIN & GERRARD ST. 지역
☎ : 691-3363

매매및 양도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 MILTON에 있음
HWY25 · HWY401. 주매상 : 5000. 아스킹 : 39.000
(인벤토리) ☎ : (416) 878-3610

작은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스카보로 지역
가격 : $30, 000+스탁
☎ : 266-5715(오후6시 이후 연락바람)

DELI레스트랑 & 타번 매매
나운패이먼트 $50.000. 이상적 가족 비즈네스
SHEPPARD AVE. W.
☎ : 224-2800 MEL POLON
MR. REALESTATE INC.

맥스밀크 권리양도
연매상 34만달러. 연간경비 4만5천달러. 연수입 4만달러
스탁 2만5천달러. 권리금 3만5천달러. 리스 84년8월10일까지 옵션 10년
주소 : 600 THE EAST MALL RD.
☎ : 622-6155. 762-1264

FAST FOOD 프렌차이즈회사 매매
12년동안 잘 건설된 비즈네스 퇴직상 매매코자 함.
캐나다에 정식 등록된 회사명, 프라이드 취킨을 전문.
본 회사는 지금 4번 발행 100만 주식을 보유함
이 비즈네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 문의 바람.
(요리법, 고정손님, 빌딩등은 캐나다 어느곳에서든지 얻을수 있음.)

Chick-N-Joy Systems Ltd.
P.O. Box 327,
WestHill, Ont., M1E 4R8

미니슈퍼마켓 매매
주매상 7천달러 이상(5일영업), 렌트 $1200.
리스5년+5년. 가격 6만달러+스탁
☎ : 368-1917

성업중인 햄버거 레스트랑 급매
15년 리스. 아스킹 $165.000
☎ : 535-2804 미세스 김

작은가게를 원하시는 분 : 리스5년+5년옵션.
렌트 $650(2층 살림집있음)
☎ : 656-7753

버라이어티 스토어 매매 : 성업중인 스토어를 형편상 급매코저하오니 관심있으신 분은 아래 전화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 531-0773 김 (오후6시 이후)

"급 매"
POP COOLER 1 DOOR
☎ : 663-1598 미스타 서

〈매 매〉
3년된 세탁기, 3년된 DRY MACHINE. 1년된 스토브, 1년된 냉장고, 고급 응접셋트(1년됨)를 염가에 팝니다.
☎ : 275-8016

그로서리와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조그만 가게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바람
61 MAIN ST. TOR. ☎ : 694-7848

T. T. 스테레오 취급전문 : 연매상 45만달러
아스킹 : $7만+스탁
☎ : 533-2400 미스타 김

집·방세·하숙

집세놓습니다 : 스카보로지역
방4개, 화장실2개, 지하실 있는 단층집
☎ : 968-9405

세 놓습니다 : 2 BEDROOM APT. SABLET.
미시사가 있음.
☎ : 421-2276. 279-4997 미스타 박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B.A.R.I.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 근무중
●Book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Income Tax Preparation ☎ : 239-6802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미 용

스 타 미용실 미세스·김
남녀 커트, 파마 전문, 9AM~8PM 매일·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627

로마노 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B) 248-295?
(ISLINGTON과 KIPLING사이) (R) 247-6375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킴스 미 용 실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하우스 뒤)

헬 렌 미용실 미세스·리
377 ALBION RD. REXDALE (B) 741-7029 · 742-8731
※한국식품서부지점에서 동쪽 2번째 시그날에서 내리면 됨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체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M & M 카 펫
카펫, 리노리움, 비닐, 세라믹타일 벽지
인서레이션, 무료견적봉사
536-7875

악기점

피아노 조율및 손질
이동훈(서울음대 졸)
☎ : 781-0200

피아노 :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인 쇄

비둘기 사진식자 인쇄소(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 : 493-8894 윤종대
주보, 명함, 청첩장, 책자

주간女性

한방원

침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922-7090 뜸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이삿짐및 운송

각종운반및이삿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인벤토리

INVENTORY
①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②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③ STORE 납세대비 INVENTORY
※주아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B)259-5822, 255-8301 (R)252-2963 MR. 오

자동차수리

라지에타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ADIATOR CO.
☎ : (B) 245-1978, (R) 248-6032 김 용 환

FRED DOMINELLI BP SERVICE
PICK UP & DELIVERY
873 QUEEN ST. W. ☎ : 366-2673, 366-2206

자동차 수리 일체 :
20 ROGERS RD.
☎ : 651-9324(B), 226-5430(R) 변 달 원

자동차 출장수리(오전및 주말) MR. 박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 : 749-9749

MINIT TUNE : 주정부 지정 차량검사장
①TUNE UP, ②BRAKE검사무료, ③각종차수리일체
☎ : 782-6311 이 태 경(793 Spadina Rd. at Eglinton)

L & K AUTO COLLISION
☎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KIPLING)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 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 595 KEELE ST. TOR. ☎ : 762-3247

FIRST AUTO SERVICE
●메카닉샵 : 튠업, 브레이크, 전기부분
●오토바디 : 토잉써비스, 사고차량 일체수리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 : (B) 532-0200, (R) 533-2157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MASTE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페인팅, 토잉·서비스 (B)255-2111 (R)231-2822
95 PORTLAND ST. ETOBICOKE.

식품점

삼복식품 2437 Finch Ave. W.
743-8270

한 국 식 품
본점 : 721 PALMERSTON AVE. 532-2961
영업시간 : 10AM~10PM, 정기휴일 : 화요일
서부 : 1054 ALBION RD. 742-7711
영업시간 : 10AM~10PM. 정기휴일 : 화요일
동부 : 2810 Eglinton Ave. E. 261-6111
월 화 수 : 9AM~10PM, 목 금 토 : 9AM~12PM
정기휴일 : 일요일
배달도 가능 합니다.

꽃 집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님파·김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① 모든 축하 꽃꽃이와 결혼, 장례꽃 전문
②바구니 종류의 꽃에 관한 모든 물품구비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B) 769-0609
R) 242-5194 여 정 용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 751-5851 이 동 환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냉장고, 냉동기, 에어콘
(시설및 수리)
☎ : 221-5441 센츄리 냉동(원종성·이인식)

시설및 수리

L. N. ELECTRIC MOTORS LTD.
각종 전기 모터 수리및 신 중고품판매(40여년의 연륜)
☎ : (B) 661-5667, (R) 742-9450 MR. 김

TV출장 수리
☎ : 431-0102 MR. 박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438-3795 김 영 호

전기시설·보수 : 각종냉동기, 에어콘
CANKO ELECTRIC CO. 270-3118 오 현 구

자동차, 유리, 실내장치
MOON'S AUTO TRIM & GLASS LTD.
☎ : 638-0656(B), 493-7185(R)
정 해 문

KIMBO ELECTRICAL CO.
ELECTRICAL CONTRACTOR
METRO LICENSE E-725
RESIDENTIAL, COMMERCIAL, INDUSTRIAL
TEL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김 부 원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타 제작
페인팅, 타 일
669-5784 MR. 심

기 타

변호사 개업(黃永興 律師)
WING H WONG
BARRISTER & SOLICITOR TRADE MARK AGENT
OFFICE : SUITE 214, 4455 Sheppard Ave. E. (at Brimley)
Scarborough Ont. Tel 298-6767

PICTURE FRAME WAREHOUSE 조 혜 숙
각종액자, 오일페인팅(유화)판매
32A Rexdale Blvd., Rexdale☎ : 746-2120

번역 CHARLES YU(유좌석) 통역은
10 SUNRISE AVE. UNIT203 TOR. 월요일만
통역 M4A 2R1 ☎ : 759-9505(5시이후)합니다.

새한칼라 현상소
630 BLOOR ST. W. TORONTO. ☎535-7772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식 당

CHINA HOUSE
CANTONESS & MANDARIN CUISINE
781-9122 825 Eglinton W.

KOREA HOUSE
*즉석불고기 전문
666 Bloor St. West
Toronto, Ontario, ☎ TEL. 536-8666

한국일보 안내광고란을
이용하세요.
533-2361-4
1025 Dupont St.

블론디 딘·영 作

싸다고 소문 난
가 나 안
카텐
2390 LAKESHORE BLVD. W.
(B) 252-4857
(R) 252-6602
유 원 억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416)
533-2361

平統정책자문회의 교육·홍보分委열어

平和統一정책자문회의는 18일 교육·홍보분과위 제1차 위원회를 열고 자문위원전원이 지역별, 분야별로 통일·홍보활동을 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李範錫사무총장과 金相球 사무차장, 30명의 교육·홍보분과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교육홍보분과위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金宗河(고려합섬대표) ▲감사=劉周榮(한국청소년연맹사무총장) ▲위원=朴醒學(大農회장), 南相水(남영산업회장), 崔貫成(경북면직물이사장), 李英淑(여성경제인협회장), 李容弼(서울대교수), 金惠(外大교수), 趙貞順(대한연식정구협회장), 李銘昇(京鄕편집국장), 申用淳(東亞〃), 李禹世(서울〃), 崔…

9월부터 본격 引揚

울릉도近海침몰 러시아寶物船

북한뉴스

朝總聯, 民團同胞에 僞裝平和선동 편지